

머 리 말

한국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온지 근 반세기 역사를 가지고 백의 민족을 위해 복음 사업을 하게 된것은 천만 감사와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수많은 민족수난과 교파의 압력에서도 순수한 복음 주의로 교파는 물론 불신자 들에 까지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참 기쁜 일이며 이것을 위해 좋은 신앙과 신념으로 봉사하시다가 먼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분들과 년노한 교역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진정 고마운 마음 그지없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재정적으로 도와 주신 이철선 선교사님과 자료들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이흥식, 김기순, 동주금, 박선홍, 전도자 그리고 여러 교역자님들께 감사 함과 멀리 영국 런던에 계신 민경배 교수님의 꾸준한 지도는 이 한국그리스도의 교회사 책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최선을 기울여 기록한 이책은 1930년 동석기 강문석 형제로 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후 1968년 12월 현재까지 나타난 모든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해 보기위해 약 4회에 걸쳐 전국교회를 순회 했으며 약 235통의 국내의 서신을 내서 자료 수집에 전심을 기울 였으며 강문석 씨를 제외 하고 거의 생존 해 계신 분이고 강문석씨 역시 부인이 생존해 계서 좋은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든 것을 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과연 얼마나 필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순수한 역사를 발굴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다. 오직 이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양해와 용서만을 간곡히 바랄 뿐이며, 이책이 처음 출판되는 것이니 만큼 차후 어느분이 펜을 들어 교회사를 쓰던 좋은 자료의 뿌리가 되기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독자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수고 하시는 일선 교역자들과 교수님들께 영원히 있으시기 기원 한다.

1969. 9. 22

글쓴이



PREACHING STATION
Tongpang, Kyungbook
Began June 1940



TAIHYUN CHURCH OF CHRIST
Seoul
Established Oct. 1937



BRO. CHUYUNG PAK
Deacon of Taihyun Church
Seoul
Born 1898
Baptized Nov. 14, 1937



BRO. YUNTAI KIM
Deacon of Tongkyo Church
Seoul
Born Feb. 28, 1908
Baptized Dec. 11, 1938



BRO. CHANGWON LEE
Deacon of Kyungchu Church
Kyungchu, Kyungbook
Born Sept. 10, 1910
Baptized Oct. 10, 1939



SONGNIM PREACHING STATION
Inchun
Began March 1940



BRO. CHONGWOON KANG
Evangelist
Inchun
Born August 20, 1917
Baptized March 9, 1938



BRO. YUNCHANG LEE
Bible Student
Seoul
Born June 20, 1912
Baptized Sept. 19, 1937



PANSUNG CHURCH OF CHRIST
Chinyang, Kyungnam
Established March 1938



MOONSUCK KANG

Born Oct. 13, 1900.
 Baptized June 15, 1935 by Bro. G. Q. Lipscomb at Waverly Belmont Church, Nashville, Tennessee.
 Graduated from;
 Yungshin Public School, 1912.
 Chungchick High School, 1919.
 Theological Department, Kwansei Gakuin University, Kobe, Japan, 1927.
 School of Religion,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ennessee, 1935. Received B.D.
 Educated from;
 Freed Hardeman College, Henderson, Tennessee. 1935—1936.
 Left America, Nov. 4, 1936.



Those who are ready to be baptized.



TONGKYO CHURCH OF CHRIST
 Seoul
 Established May 1937



BRO. YONGCHIU LEE
 Evangelist
 Seoul
 Born Feb. 27, 1880
 Baptized Mar. 18, 1938



BRO. HAIMIN KWAK
Evangelist
Kyungchu, Kyungbook
Born Oct. 22, 1878
Baptized April 19, 1937



CHURCH OF CHRIST
Ulsan, Kyungnam
Established Dec. 1936



KONGDUCK CHUNG BUILDING
Kang's Dwelling Place
Office
Training Class Room
Seoul



CHURCH OF CHRIST
Kyungchu, Kyungbook
Established Oct. 1937

목 차

머 리 말

제 1 장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념

1. 교회란 무엇인가?	4
2.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	6
3. 환원 운동 정신	28
4. 환원 운동 성격	29

제 2 장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선 선교

1.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조선 선교	45
2. 동석기씨의 초기 활동	47
3. 강명석씨의 초기 활동	50
4. 초대 미션교사 파송	55

제 3 장 선교 사업 분류

I. 교육사업

(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60
(2) 효창고등공민학교	69
(3) 등촌고등국민학교	70
(4) 금성고등국민학교	72
(5) 명성고등국민학교	73
(6) 성광 성경구락부	74
(7) 화곡유치원	74

Ⅱ. 문서사업

- (1) 참 빛 76
- (2) 성경통신교육원 78

Ⅲ. 사회사업

- 1. 성지모자원 86
- 2. 구 호 부 89
- 3. 목장 및 농장 90
- 4. 김포진료소 95

제 4 장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

- 1.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96
- 2.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 ... 98
- 3.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 ... 99
- 4. 부여 그리스도의 교회101
- 5.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02
- 6. 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 ...106
- 7. 성지 그리스도의 교회108
- 8.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109
- 9. 서면(부산)그리스도의 교회 112
- 10.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114
- 11. 효창 그리스도의 교회117
- 12. 등촌 그리스도의 교회119
- 13.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120
- 14.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122
- 15. 장천 그리스도의 교회124
- 16. 공항 그리스도의 교회125
- 17. 안산 그리스도의 교회128
- 18. 의정부 그리스도의 교회 ...129
- 19. 미암 그리스도의 교회131
- 20. 북아현 그리스도의 교회 ...132
- 21. 상도 그리스도의 교회134
- 22. 자라리 그리스도의 교회 ...136
- 23. 화계 그리스도의 교회137
- 24. 삼각지 그리스도의 교회 ...139
- 25. 방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140
- 26. 청천 그리스도의 교회144
- 27. 구로동 그리스도의 교회 ...145
- 28. 성산 그리스도의 교회146
- 29. 왜관 그리스도의 교회148
- 30. 내전 그리스도의 교회149
- 31. 서대문 그리스도의 교회 ...150
- 32. 상두리 그리스도의 교회 ...151
- 33. 하일동 그리스도의 교회 ...152
- 34.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153
- 35. 광산 그리스도의 교회154
- 36. 화곡 그리스도의 교회155
- 37. 서면(강원)그리스도의교회 158
- 38. 운산 그리스도의 교회 159

제1장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념

1. 교회란 무엇인가?

교계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의 성질』에 대하여 확실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정의부터 먼저 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교회란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즉 건물로 오인을 하는 가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만이 부를수 있는 전용적인 용어로 착각을 하는 목사나 장로들 또는 신자들이 적지않은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한 무지의 결과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약성경의 원전은 회랍어로서 되어있는바 『교회』의 본래 의미는 『에크레시아』라고 한다. 즉 그 뜻은 『밖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의 「선과 악」의 분별함이 없이 누구든지 밖에 부름을 받은자들은 모두 에크레시아 곧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에크레시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사람들이 밖에 불려낸 에크레시아 「교회」도 있으며 「사람의 생각대로」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자들을 밖에 불려낸 에크레시아 「교회」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밖으로 불려내어 모인 무리를 「우상 제조 업자들」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시위 운동을 하려는 즉 사도바울을 해하려는 「무리들」을 가리켜 에크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 19 : 32, 행 19 : 34, 40~41) 그러므로 사람들의 뜻대로 부름을 받는 무리는 사람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우상 제조 업자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고 모인 무리라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롬16 : 16).

이같이 선 악 간의 구별없이 에크레시아라고 사용한 사실이 또한 마태복음 16 : 18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때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제마음대로 종교단

체나 교회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좋은대로 교회명을 붙인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될 것인가? 또는 사죄와 구원의 생명력이 있는가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부름을 받은 교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안식교회, 통일교회 등등 이 모두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기에 교회 명칭이 제멋대로 마구 붙여 졌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만일 명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어리석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름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지고 재산의 소유권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교회 명칭이 다른면 제도가 달라지고 주장이 달라지고 이해와 태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교회의 소유주까지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받은 ① 하나님의 아들로써 (롬8:14) ② 축복을 받게된다. (5:3-10, 뱀전2: 그리고 ③ 한 가족으로서 (엡2:19, 3:14-15) 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자고 (갈4:6-7) ⑤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맡은 자가 되시고 부름을 받는 자마다 집이되며 (히3:6 뱀전2:5) ⑤ 집마다 형제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신 것이다. (23:8 25:34)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상과 같이 교회의 성질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정의와 성질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교파 문제루 해결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그의 몸 (교회)이 된 것이며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분밖에 또 다른 머리 (명칭을 붙여서는)를 올려 놓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엡1:22-23:5:23).

요사이 누가 보수적이나? 누가 자유주의냐 하여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소위 I·C·C·C나 W·C·C 같이 국제적인 그리스도교 협의 체에 가입이나 하면 교파문제도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교파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체 교회가 얼마만큼 신약성경의 계시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충성을 하고 있는가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이 각자가 교회의 성질과 정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말씀에 복종하는데에 달려있는 것이다. (요2:9-10, 제22:18-19).

(성경 통신 68년 11월 25일 발행 “성경교육” 제6호.) (정희전)

2.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

제 일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형태로 환원을 호소하는 역사적인 운동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흥미를 갖고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일들이 있다. 저자는 독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독자들과 같이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다.

분 류

기독교계권 안에서 그 구조 성격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통상 개토릭, 프로테스탄트, 유대교 등등으로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에 속하는 교파중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생각은 옳바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리와 실제, 행동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행동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사도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하여 당신도 프로테스탄트의 한 멤버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가 프로테스탄트의 일원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린도전서 4:1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도 역시 그리스도를 쫓았던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아그립바왕을 설복하여서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에 노력 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6: 28-29)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프로테스탄트에 속하는 그 무엇이라고는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는 신약시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란 어떤 인간의 위대한 업적과 공로와 세력의 영향으로 설립되었거나 성경의 어느 한 구절 또 몇구절의 특수한 것만을 인용하여 다른 말씀 을 무시하며 세워진 교파 가운데 한 교파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를 분명하게 옛날 고린도 교회안에 이같은 당파적 분열이 있을 때 견책하며 말하기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

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린도전서 3:21-23)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이 서로 경계하며 방어하듯이 양측은 모두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을 호소한 것입니다. (요한 17:20-21). 교파적인 분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부정(下貞) 및 불신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날 분열 및 분파를 실현하는 것은 세속적(世俗的)인 포입니다. (고린도전 3:1-4).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 즉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하는 결코 파벌적인 명칭에나, 인간이 제정한 어떤 제도에나, 교황에게나, 또는 교파적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굴복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필요한 임시적인 방편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이나, 혼합적인 분열이나 부조화(不調和)와 함께 존속한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주의와 유사한 점들이 여러모로 있기는 있지만은 교회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비교파적인, 또는 비종파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까닭입니다.

하나의 해명

이 책은 수많은 모든 지방의 교회의 조직, 직원 규모 및 교회 운영의 통상적 문제들에 관하여 취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첫부분에서 우리와 같이 지방에 교회를 조직했던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었고 가르쳤느냐 하는 것을 취급하여 문제의 해명을 적당히 배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는 신조가 없습니다. 교회의 교리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지방 회의나, 총 대회가 없습니다. 수천의 각교회, 교회는 모두 독립적이며 자치적입니다. 오직 성경말씀의 지도에 따라 실천할 뿐입니다. 엄밀한 견지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조심히 실행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앙과 실천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여러가지로 물음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 중에서 우리들은 얼마를 추려서 성경에서 부터 해답을 얻도록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들은 다음의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인간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에 관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신바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머물기를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합

게 뭉쳐서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태로 환원하는 운동에 참여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약속의 교회, 장차 이를 크나 큰 날에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교회로 환원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대답들

1. 얼마나 많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웠는가?

예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또 내가 베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테 16:18)고 했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것일까?

성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기 자신의 교회—불편을 입은 집단을 세우셨다고 가르칩니다. 즉 이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로마 16:16).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로마 12:5).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일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린도전 12:12)

그리스도에 관하여 영감된 바울 사도의 기록은 말하기를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당케 하시는자의 충만이니라”(에베소 1:22-23)고 했습니다.

3. 언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날에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자신의 교회를 설립하셨다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의날에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며 인류의 구세주라함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이 경령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2:35).

사람들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저들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저들을 향하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것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사도행전 2:38)

저들이 이같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구원 받은 저들을 교회에 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7)

4.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것을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하심이요”(골로새 1:18).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그에 계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 4:15).

5.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뜻은 과연 그가 교회 안에서 모든 권세를 소유함이라는 것을 의미함일까?

물론 그렇습니다. 성서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때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마태 28:18-20).

6.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행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순절날 권능으로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도들의 가르치는 교훈을 지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명령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성서가 기록되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이것이 신약성서 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성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 안에서 오늘날 자기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디모데후서 3:16-17).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베드로후서 1:3).

7.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교파인가?

물론 아닙니다.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 카톨릭이나 회합 정교회와 같은 등등의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는 교파가 생겨지기 수백년전에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상 비교파적입니다. 교회는 교파교회들이 지지고 있는 땅위의 지상 본부(地上本部)가 없으며 인간이 제정한 교리나 신조를 소유치 않는 것이며 세계적인 어떤 연합기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란 어떤 새로운 교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일세기의 교회와 같이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은 19세기 이전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성서 안에의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제시한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자들이며 같은 원리를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8. 초대 교회가 파벌 또는 당파로 갈려진 일이 있었는가?

이 대답도 물론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 4:4-6)

9.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연합되기를 소원하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은 연합을 위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직전에 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들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 17:20-21) 라고

10. 성서는 교회의 이같은 분열을 정죄로 삼고 있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린도전서 1:10)

성서는 인간적 교리로 인하여 분열의 원인을 삼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로마 16:17).

갈라디아서 5:19-21 안에는 분열과 내분(內紛) 및 당파는 육체에 속한 일들으로써 나열되어 있습니다. 300 또는 그 이상의 교파들이 오늘날 기독교 교권 안에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순되는 교리, 행동 및 논쟁적인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심으로 그의 말을 지키는 일에서나 그의 나라 또는 교회의 신성한 권위를 세우는데 해치는 원인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분열된 기독교계의 대가는 불신의 세상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모든 믿는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교리 즉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규례이라 함을 믿는 그 곳에서 연합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 어떻게 교회의 연합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떠한 한 교파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나, 또는 성직제도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한 어떤 인물 또는 자기 교파의 머리와 같이 되어 있는 몇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들으로써는 결코 교회의 연합을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기록한바 한 신조를 받아 들인다던가, 저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해서 그 유전적 전통을 지키는 일들을 갖고서도 교회의 통일은 이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파의 모든 교회들이 통합하는 것으로도 교회의 진정한 통일을 이룩할 수 는 없습니다. 가령 혹시 이상 말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통일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연합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충성함에 기초된 연합이어야 합니다. 이같은 방법만이 곧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한 것이며 매 신자들 각각 책임과 임무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개의치 않고 이성적(理性的)인 입장에서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요한 2서 9).

우리들은 오직 하나의 신조 즉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례라고 하는 그것으로써 그리스도의 터위에 연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라”(마태 17:5)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나니라 아멘”(베드로전 4:11)이라고 하셨습니다.

12. 인간의 신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신자들을 분열케 하였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정한 신조는 어떤 것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환경에서 반대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써 첫째는 그리스도 인에게 성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하나의 신조가 성서의 교훈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만일 하나의 신조가 성서의 교훈에 비추어 미달한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조는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만일 한 신조가 성서의 교훈에서 부터 관심이 다른 것이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로 만일 어떤 신조가 성서 교훈과 꼭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T. W. Phillips 저 The Church of Christ, Funk and Wagnals Co., New York, p. 322). 신조들은 인간의 의견들과 판단들에 한 세대에서 다음의 세대로 속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칼빈(John Calvin) 주잉글리(Ulrich Zwingli) 또는 루터(Martin Luter)가 400여년 전에 지녔던 어떤 종교상의 사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경건한 남편과 아내가 신앙적으로 갈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종종 진실한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도 그 신조를 성서와 대조 연구해본 일도 없이, 또는 그것이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하나의 신조로써 고정화된 역사적인 동기도 알지 못하는 그신조로 말미암아, 부열에 가담하고 있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불변하시다”(히브리 13:8)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성서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모든 죄선을 성취하는데 완전하게 능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 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유다 3).

13.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바 모든 사람이 일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성서를 기반으로 그 위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자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스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복임을 받은 바와 같이 곧 실천할 것 뿐입니다. 빌립이 구스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시는 그 자신이 곧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인정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기록하기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36-39, 갈라디아 3:27, 로마 6:1-4, 골로새 2:12을 비교할 것)

세례는 교회 의식(ordinance)이라고 성경은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가르칩니다. 한 신자는 어떤 지방의 교회나 또는 모임에 세례를 받을만한 자격이 구비했다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신자는 그가 전에 지냈던 종교상의 여하한 사건이든지 포기하고 성서상에서 부여된 경건한 명칭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을 가져야 합니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사도행전 11:2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로새 3:16-17).

(3) 각 신자는 누구나 성서만을 지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적 신조는 혼계의 법칙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어디서든지 당신은 자신을 위하여 하

나눔의 뜻을 찾아 알기 위하여 당신의 성서를 공부하여야 합니다.

신약성서는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인으로써 인도함을 받으며 초대 교회와 같은 모양으로 예배하며 영감된 사도들의 직접 인도를 받아 실천한 사실대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연구되어야 합니다. 구약성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이었던 족장 시대와 모세 때의 율법시대 어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급하시고 일하신 원리들을 알기 위하여 연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슬하에 속해 있는 것이지 모세나 아브라함의 슬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박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대한 지도자 또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골로새 2: 14).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제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믿음은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 3: 24-27).

어떤 신자가 주장하는 모든 교리들과 어떤 그리스도인이 실천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성서의 기록에 의하여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를 물론하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여 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에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초대 시대의 제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우리들은 바울이나 베드로, 바나바, 마가 또는 아굴나와 부리스길나와 꼭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써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서의 교훈에 대하여 분열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신조나 의견에는 분열이 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사실에 만족한다면 불신사회를 놀라게 할만큼 큰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각 그리스도인은 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신약성서 안에는 신자들의 어떤 특수한 크림 즉 “교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둔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

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베드로 2:9) 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잡을 쥌어다”(히브리 4:1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으로 기도를 드릴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함이라”(요한 14:13).

(5) 각 그리스도인은 신약성서의 권위에 입각한 단순한 원리의 예배를 위하여 매주 첫날에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성서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요한 4:24)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예배에 관하여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 17:17).

여기에 교회에서의 예배의 형체에 대하여 신약성서가 제시해주는 사실들을 생각해 봅시다.

주의 만찬: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배척을 받으시기전 그날 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정된 기념의 만찬입니다(마태 26:26-28). 초대 그리스도인은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갖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으며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교제를 가졌었습니다(고린도전 11:24-25, 10:16) 이 같은 신령한 회식은(만찬) 매주 첫날에 실시되었습니다(사도행전 20:7) 기독교회의 역사를 공부한 모든 학자들은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생활하여야 하며 또한 때때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하지만 저들은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게 공적으로 합심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린도전 14:15, 데살로니가전 5:17).

찬송: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을 교훈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에베소 5:19) 신약성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세기의 교회에서 현저한 사실입니다. 악기는 적어도 주후 5세기경에 교회안에 소개되었고, 그 당시에도 많은 반대를 받아 왔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대 예배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으로 멜로디로써 능동적인 활동에 가담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연보 :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대로 자유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저들의 물질을 대주 첫날에 바쳐야 합니다. 어떠한 고상한 목적이 있다 할찌라도 자발적인 기부를 제외한 계획적인 기금 모집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신약성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서적인 연보를 바칩니다(고린도전 16:1-2, 고린도후 9:6-15).

성서의 교훈 <설교> : 그리스도인들은 모였을 때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공부하며 듣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사도행전 2:42).

(6) 각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서 시대의 교회의 모범을 따라 충성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봉사하며 예배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이십니다. 그렇지만 신약성서는 양 무리들을 치기 위한 영적 지도자들인 장노들 감독들 또는 목사들 밑에 각 지역적으로 구성된 지방 교회들—회중들—의 조직을 배워 줍니다. 이같은 지방교회들만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로 인하여 인정되는 조직된 기관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언제든지 자기 집에서나 또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어떤 본부나 대표기관을 갖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한 교회—회중—가 디모데나 디도와 같이 유능한 자를 갖게 되면 이같은 사람들이 그 개체 교회의 모든 일을 돌보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안에는 어떤 특수한 한 사람을 선출하여 그 교회와 및 다른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게 하는 실례는 결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노들” “감독들” “목사들”이라는 용어들은 같은 직책을 지닌 동일한 사람들에게 불리워지는 교체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장노가 다르고, 감독이 다르고, 목사가 다른 별개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된 명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28, 디모데전 3:1-8).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돌볼 따름이지 저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를 간섭하는 일을 결의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그 개체 교회서부터 장노들의 지도하에 교회의 특별한 봉사의 직무를 하게하기 위하여 선출되었습니다(디모데전 3:8-13).

매 개체의 교회는 다른 개체 교회로부터 독립되어 그 개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실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들을 구제해 주며 협조하는 일과 복음

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협조합니다. 그러나 매 교회들은 자체교회의 자주성을 상실치 않으며 박탈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개체의 지방교회들은 신약성서에 주어진 교회의 명칭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들(로마 16:16) “하나님의 교회”(갈라디아 1:13)” 또는 “주님의 교회”(사도행전 22:28 A.S.V.) 또는 단순히 “그 교회”(골로새 1:18)라고 불리워 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명칭은 어디까지나 성서에서 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7) 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안에서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써 나타내 보입니다. 온 세계상에 산재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교제 하며 친교를 가질 때 저들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신앙의 격려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 13:35).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각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야 함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적인 지도를 받으며 그 안에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이같이 생활하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음같이 결실있는 충성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요한 15:1-12).

또한 이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일세기에 전파되지 못했던 불신의 사회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만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통일-연합-을 이룩하여 구원 얻을 자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더하게 할 때에 수백, 수천, 아니 수억만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14. 오늘날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실천하고 있는 신자들이 기독교계 안에 과연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수천 수만의 신자들이 일세기에 존재했던 순수한 기독교의 형태로 환원을 위하여 수고하며 노력하는 운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들의 수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파교회와 같이 본부가 있어서 교인들의 등록을 하던가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고한 티는 갠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디모데후 2:19). 미국 안에서만도 10,000 이상이 환원운동에 가담하고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운동에 가담치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도 5,00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이 활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러하니라 써

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누가 8:11). 이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엔 어디든지 초대 교회와 같은 형체의 기독교로써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5.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당신도 오래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구스 내시와 같은 성질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날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지 않았다면 이제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근본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요한 14:6)고 했습니다.

성서는 또한 우리들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 2:17-24).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적 신앙은 사랑의 순종으로써 표현되는바 산 신앙입니다. 구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에베소 2:8-9). 그러나 이같은 은혜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여된 인간의 공로가 개재되지 않은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아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갖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무엇이든지 순종할 것을 원할 것입니다. 산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이 어떠하다는 것이 표현되어야 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룩되는 신앙입니다(갈라디아 5: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산 신앙은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누가 13:3)고 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의 모독—배반—을 위하여 슬피하는 것이며 이같은 경건한 슬픔은 당신의 의지를 변경하는대로 당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부정하며 이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사는 어간에 당신의 생활을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랑하며 허송세월을 하던 탕자가 그 자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아

버지 애제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누가 15 : 17—19) 아버지께로 향해가는 그 행동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첫째로 맞이하는 오순절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사도행전 2 : 38)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순증하는 생활어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에 앞서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인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회개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앞에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태 10 : 32). 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로마 10 : 10). 이같은 고백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적 진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마음속의 태도를 입술로 단순히 표현하되 그만입니다.

다음 단계로 당신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사도행전 10 : 48).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용어는 성서의 원문인 헬라어의 baptizo—뱃티조—를 번역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의 뜻은 투입하다. 물에 넣다. 잠그다를 뜻 한다는 사실에 동의 합니다. 또한 학자들은 역시 신약성서의 안에서의 세례는 언제든지 물속에 잠겼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로마 6 : 3—4). 특히 사도행전 2 : 38 이하의 기록을 주의 깊히 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 신자들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굿스피드(Goodspeed)씨는 번역하기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 3 : 27)

세례는 하나의 신앙적 행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가 구원받은 사실을 진술한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라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베드로전 3:21)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없나니라”(요한 2:5)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안의 회개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는 새로남을 입은 자이며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써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성서적인 참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경안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사도행전 22:16).

16. 어떻게 하면 내가 교파가 아닌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을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1) 첫째로, 당신은 당신의 성경을 매일 계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가운데 서신들 즉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어떻게 당신이 생활하여야 하는가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계획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모든 자, 그들섬기는 모든 자들을 환란에서 건지시고 저들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다시 재림할 때에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묘사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 및 사도행전 안에서 당신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및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취급하신 역사적인 사실의 영감된 기록입니다. 당신이 구약을 공부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항상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신(化身)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2)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아가서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시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계시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발견할 수 없으면 당신의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위에 말한바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교파에든지 속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세상 각 곳에 산재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형제들과 유대를 갖고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살고 계시는 그 고장에서 형제들을 발견할 수 없다며는 당신도 신약시대의 초대 교인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가정에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

태복음 28:18-20에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서약서나 또는 다른 권세에 복종하거나 허가를 구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구스내시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갔읍니다. 뒤에 역사가들에 의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에디오피아 여러 곳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게되어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 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흩어진 그 지방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웠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사도행전 8:4).

(3)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어데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부부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회원수가 많아야 한다던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보아야 한다던가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중에 있느니라”(마태 18:20). 고 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연대적이거나 또는 집단적이라기 보다 개체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교파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적다고 하여서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성서의 교회의 모범을 좇아 가정에서나 또는 공동 사회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고, 당신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써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로마 8).

(4) 당신은 자신이 경전한 생활에 이르기를 힘쓰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승리를 찾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부단한 노력을 바쳐야 합니다.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 7:7)

(6) 하나님께서는 자기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 8:28). 매주의 첫날인 주님의 날에 먹을 때며 포도나무의 열매로 인한 잔을 비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지 축복들은 당신을 신앙적으로 강건케 할 것입니다. 자신을 극복하며 신령한 씨를 뿌리는 생활을 당신이 체험할때 과거에 당신이 깨닫지 못하던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 5:22-23).

(7)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이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그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계속적으로 당신을 당신의 죄에서 깨끗게 해줍니다(요한일서 1:7).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써 생활하기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권능 또는 힘을 주어서 성공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나 역사 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에베소 3:20-21).

(8) 성서가 가르치는데 가능한 생각으로 실천을 시도합니다. 매일 당신의 정성을 다하여서. “무엇이던지 참되며 무엇이던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사랑할만하며……칭찬할만하며……이것들을 생각하라”(빌립보 4:8)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이같은 생각을 갖도록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에베소 4:13).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립보 4:4).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한일서 2:15-16).

(9) 위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예수의 한 가지로써 좋은 포도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바 의(義)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날에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당신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을 섬기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당신과 속죄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필자는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면 지금 곧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생활하실 것을 권면 합니다.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으며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오늘날 당신은 원하시니까?

신약 교회 환원 운동의 역사

약 150년 전에 무신론 사상의 바람이 불탄서에서부터 불기 시작하여 실로 미국 대륙 안에서 비극적인 종교적 부열의 상태와 합류하여 번져가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하여 뜻있는 기독교인의 구름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와 같은 제 1 세기와 같은 형태의 기독교만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은 뜻있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나 저들의 작은 모임들 안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서가 잠잠하는 것은 잠잠하고, 성서가 요구하는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이룩하자는 사상이었습니다. 후대에 이같은 사상의 운동을 환원 운동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운동엔 공식적인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운동은 단지 군중들의 마음 속에서 우려 나온 정신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지니고 똑같이 실현하는 사람들을 미국안의 대서양안을 비롯하여 켄터키(Kentucky) 테네스(Tennessee)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및 오하이오(Ohio) 각 주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어에서 어떤말을 하던지 “우리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일치 연합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박히워 죽으시기 바로 24시간이 남지 않았을때 예수께서 제자였던 가롯 유다에게서 배반을 당하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 사실을 기억합니다(요한 17:20-21).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연합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원운동의 뜻을 품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소원하시는 이 연합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신약성서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약성서 이외에는 기독교 안에 다른 신조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약성서보다 후대에 기록된 문서는 비록 동시대의 문서라할지라도 신약에서 제외된 문서는 어떤 것이라도 기독교의 경전에 삽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연합을 성취하는 방법은 신약의 사상으로 환원하는 그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환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의 완전한 상태로의 환원입니다. 이 목적은 연합이며 이 터전은 신약성서이며, 그 방법은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의 저들은 저들의 이웃에서, 동리에서, 신약교회로의 환원의 정신을 고조하여 설교를 했고,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호응함에 이르렀습니다. 이 운동은 순수한 신약시대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 뜻을 추종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움터서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표어는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에 우리도 말하지 않는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교리를 제정하여 들고 나선 하나의 교

파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면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서로 돌아가자는 이 환원운동은 어떤 교파적 운동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 이외에 어떤 인간의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및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같은 것들은 무려 1900여년 전 사도들의 기록에 의한 성서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불신실한 인간에 의하여 수정이 가해질 변천하는 교회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시지 아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변동(變動)이나 동향은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성을 감소시키는 것 뿐입니다. 옛 성도의 길로 돌아가는 것과 사도들이 섰던 그곳에 서는 일은 마땅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할 태도이며 필요한 일입니다.

환원 운동의 시초

환원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북부 캐롤리나(North-Carolina)주와 버지니아(Virginia) 주에서 살며 전도하고 있던 제임스 옥케리(James Okelly)란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감리교(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교역자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교파에서 제시하는 신조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성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793년 발티모어(Baltimore)에서 개최되는 자기 교단의 총회에 참석하여서 성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만을 그들의 신조로 받아야 하며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제의는 총회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얼마 후에 옥케리씨와 그와 교제하는 7,000여명의 신도들이 성서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하여 교회를 이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화적 감리교회”라고 불렀는데 후에 그들은 믿는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초대 교회의 모범에 따라 명칭 자체도 성서에 있는대로 사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서만이 오직 그들의 신조며 모든 명칭을 성서가 제시하는 것을 사용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옛 성도의 길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1802년에 이와 같은 운동이 뉴 잉글랜드(New England)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또 하나의 별개의 독립적인 운동인데 캐롤리나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운동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서로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생겨진 운동으로 우연히 일치된 운동이었습니다. 이들도 첫번의 경우와 비

슷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첫번의 경우와 같은 결단에 도달케 되었습니다.

압넬 존스(Abner Jones)라는 분과 엘리아스 스미스(Elias Smith)이란 분은 모두 침례교회의 교인인데 뉴 잉글랜드 안에서 비종파적인 신약성서의 교회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들은 종파적인 명칭과 신조를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저들은 성서적인 명칭만을 사용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에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린덴(Linden), 브래드필드(Bradford), 벨몬트(Vermont) 및 핸드오버(Handover), 펄몬트(Piermont) 및 폴스마우스(Poersmouth), 뉴햄프셔(New Hampshire) 등등의 각 곳에서 신약성서의 모범을 좇는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1804년 미국 켄터키주(Kentucky)의 접경에서 또 환원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803년 루지아나(Louisiana)를 미국이 매수(買收)함으로써 미 합중국 의 경계는 미시시피주(Mississippi)까지 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804년의 켄터키주는 아직 개척시대의 미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운동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발톤 스톤(Barton Stone)이란 분은 전자의 운동들과 같은 환원운동의 발판을 디뎠습니다. 스톤형제를 비롯한 장노교회의 목사들, 라벌트 마셜(Robert Marshall), 존 둔레위(John Dunlavy), 리찰드 맥나벌(Richard McNamar), 존 톰슨(J. Thompson) 및 데이비드 퍼비안스(David Purviance) 제씨들은 자기들의 교단에서 서약하고 가르치는 교리들에 대하여 의문점들을 품기 시작 했습니다. 점점 저들은 시간이 흐르며 따라서 신약성서의 교훈을 따르는 이외에 더 긴급한 일이 교회 안에서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00년 저들은 스프링필드(North Carolina) 장노교 대회에서 “성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로써 책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것만으로 만족히 여겼습니다.

신약성서의 형태 교회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이 새로운 호소에 호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번져서 늘어만 갔습니다. 스톤씨의 16년간의 업적을 통해보면 그는 일년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의 사상은 성서 이외에는 신조가 없으며,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교회 안에 조직이 없다는 것인데 이같은 느낌은 당시 군중들의 마음 속에서 힘있게 융솟음쳐 나왔습니다. 환원운동이 시작된지 50년이 되는 때 신약시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형태로 환원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5만명 이상

이 미국안에 있었습니다.

1890년에 또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캠볼(Thomas Campell)씨와 밋 그의 아들, 알렉산더 캠볼(Alexander Campell)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캠볼은 그 당시에 합중국의 국회에 초빙 받아 설교한 극소수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16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저들에게 설교 했습니다. 그가 와싱턴으로 설교를 하기 위하여 갔을 때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종종 참석 했습니다. 여하튼 알렉산더 캠볼은 환원운동을 처음 그곳에서 새로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옥클리, 아부넬 존스, 엘리야스 스밀 발톤 스톤 그 밖에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수년 전부터 전개해 오던 그와 같은 운동에 캠볼씨도 찬성하여 가담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캠볼씨는 저들을 친히 대면하여 알고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같은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오직 성서라는 교리만을 취하여야 한다는 느낌의 터전 위에서 저들은 각기 공통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보다더 토마스 캠볼씨는 선언서와 강연집(Declaration and Address)이라는 글을 통하여 “교회의 전직과 행정관리에 있어서 성서의 권위에 의하지 않은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신약성서의 교회에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로 말마암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던 전례 예의한 시인에 의하여 무엇이던 향유할 수 있다. 교회의 예배나 신앙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통용되는 명칭들에 있어서 신약성서 이외의 것을 박아 들여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환원운동의 터전에 심어진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몇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을 뿐입니다(선서를 하여). 하나님 말씀 밖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이상과 같은 환원운동은 마음속에서 솟아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미국 대륙을 횡단했고, 영국, 스코트랜드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상호간의 차이점들을 말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환원운동등의 중심에 하나입니다. 한 발케 심어진 씨앗들이 함께 같이 자라남과 같이 한 길 위에 서서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걸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운동입니다. 우리들은 발톤 스톤(Barton Stone)이나 알렉산더 캠볼(Alexander Campbell)이나 제임스 옥클리(James Okelly)씨들이 신약교회로의 환원 운동을 제창한자라고 해서 저들에게로 돌아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같은 일은 마치 우리가 존 웨슬레(John Wesley)나 말틴 루터(Martin Luther) 또는 존 칼빈(John Calvin)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태도와 꼭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우리가 옛 성도의 길을 그대로 쫓아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로마로 돌아가지도 않으며,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로도 돌아가지 않으며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도 아니요, 독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까닭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교파에도 속할수 없는 비종파적(非宗派的)인 신앙과 신념들을 갖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계의 종교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자들이 옛 성도들이 걸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며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 가는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면 우리 서로가 다같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일은 각자 각자의 개인적 신념에서부터 기초되어야 합니다. 신약교회로의 환원운동은 어데서든지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부터 부탁 받은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십니까? 즉 지금부터!

(B·B 백스터, M. 노벨영 共著.) 박선홍 역 「그리스도의 교화란 무엇인가?」 전권 참조.

3. 환 원 운 동 정 신

환원 운동이란 글자 그대로 어떤 원리원칙대로 돌아가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환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가 각자의 주장과 교리를 버리고 성경의 교훈과 교육 원리대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운동인 것이다. 오늘 교계에서 왜 환원 운동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성경의 교훈에 입각해서 세워져야 할 오늘의 교회들이 그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교육 원리로부터 너무나도 엄청나게 탈선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탈선해 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들로 하여금 본래의 궤도를 바로 찾아서 그 본래의 궤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교회의 환원 운동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16:18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니이다”하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한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자들을 모아서 자기의 교회로 삼겠다 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대로 예수님이 승천한 후 10일째 되는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날에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로 삼는 교회가 이땅 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행 2:28-47). 이런 교회를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골 1:18) 그의 몸이 된(엡 1:22) 교회라고 하였다. 이상의 성구들은 모두 본래 교회의 건립자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교회의 소유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 건립자가 되고 있고 주인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의 몸된 교회를 누가 여러갈래로 나누어 한국내만 하더라도 80여 교파로, 세계적으로는 300여 교파로, 사상을 달리한 지도자들의 수 만큼 갈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미 갈라졌으며 앞으로 현 교파들의 의견과 달리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므로 얼마든지 더 많은 교파로 나뉘어질 현 교회를 어떻게 하던 본래의 하나의 교회에로 되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해결 지을 문제이다.

4. 환 원 운 동 의 성 격

서 론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데로 장막의 식량과 그 기구의 식량을 따라 지을찌니라”(출 25:9)

장막은 옛 이스라엘인 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나의 성소를 짓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살리라” 장막, 성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시대에 와서는 신령한 성전인 교회이다.

모세는 산위에서 40주야를 여호와와 더불어 지내는 동안 장막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 받았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형태를 따라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교육 받았다. (출 24:18, 행 1:3) 이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장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은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후에 교회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사도들은 원시 기독교시대에 일반적으로 변절하는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거짓 선생들을 반대하는 엄한 경고로 되었다. (벧후 2:1, 요일 4:1, 딤후 4:1-3, 딤후 4:3-4). 바울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미리 경고하여 두었고 자기 생존시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그 정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였다(살후 2:3-4).

이러한 이단들이 일세기 말엽부터 어느덧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함 징조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속에서 나타났다. (계 2:6-9, 14-15, 20-23, 3:9)

사도들이 세운 조직과 예배의 순전한 신약 형태로서의 진정한 교회에서 부패와 변절된 이탈의 교회로 서서히 진행되어 오면서 5,6세기에는 본격적으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Newton이란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 교황의 기초는 사도시대에 이미 놓여 졌으나 그 상부구조는 서서히 형성되었으며 완전한 면모를 갖추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다. 그래서 쾰의 사람은 그 경제

를 들어 내교야 말았다. 이러한 이탈의 경우는 여러면에서 발생 하였으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로마제국의 정치 권력 구조의 모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군주제체가 서서히 형성되어 간 점.

(2) 회랍 스콜라철학 사상의 영향을 입어서 기독교 교리면에서 수정(변경)이 생겨난 점.

(3) 유대교와 이방 교리들과 풍습 및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안으로 스며 들어 온 점.

(4) 인위적인 신조들과 영감없이 조작된 신앙 고백서들이 형성강화된 점.

(5) 특정인의 제사직분을 권위화 및 특권화시켜 나가서 평신도와 교직자의 계급을 형성한 일

(6) 성직자가 영권과 세속권세를 다 통괄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의 감독을 모든 교회의 주(主)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변자라고 선포하기에 이른 점.

이러한 이탈은 암흑시대의 부패와 범죄 속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였다. 기독교란 이름 밑에서 자행되던 갖가지의 비행과 가증한 행위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종교의 정화운동이 터져 나왔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선구자들의 업적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후스(Huss), 사보나로라(Sa-vonarola)와 위클리프(Wiclif), 교황청의 부패를 고발하면서 종교 개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명들을 바쳐서 순교하였다.

(2) 루터는 교황의 가면에 항거하면서 백성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 주려고 총력을 기울였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얻는 교리를 해설하였다.

(3)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도하였고 그의 동역자 존낙스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영국과 스코트랜드에서 전파했다.

(4) 이후에 요한 웨슬레는 영국교회의 생명을 질식시키던 형식주의를 담대히 배격하면서 개인의 경건과 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생활로 돌이킬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웨슬레개혁 운동은 교회의 전도 열심에 더욱 불붙었으며 그 여파는 양대륙의 종교와 정치 이념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남겼다. 어쨌든 이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궁극적인 이상은 종교개혁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동역자들이나 그 후배들이 초대 교회와 동일한 원시적 신앙과 예배에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완전한 이상에 도달하는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변절했던 교회들의 부패들과 새로 생긴 제도들

이 개혁의 손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서 부식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많은 일본주의 적인 잔재들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비록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당시의 교회 풍토에 새 기운을 불어 넣고 정화운동에 많은 성공을 이룩한 반면에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만것은 처음 이상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데 있었다.

신약적 기독교에 돌아가기는커녕 생각해서 만들어 낸 신조들을 앞세우고 제각기 교파분리 작업에 굳어지고 달았던 것이다. 마침내 19세기 초에는 그 분파성격의 결과로 당시 세상에는 신교 자체 안에서만도 150여개의 투쟁하는 군소 종교 집단이 생겨났다. 이 신흥 단체들은 대다수의 시간과 노력을 상대방을 공격하고 넘어트리는데 사용하느라고 공동의 적인 죄악을 상대해서는 무기력 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한때 교황청의 전통과 칙령 밑에 깔려서 질식상태에 있던 성경이 어느 정도 빛을 보는가 하였더니 어느덧 다시 신조와 신학공론의 거대한 바위 밑에 또 깔리고 달았다. 이리하여 세상은 다시 새로운 신앙적 각성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기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이 때 나타난 것은 개혁운동이 아니라 환원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너무나 강하고 힘있게 해왔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계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다. 이 여파로서 19세기는 오순절적 메세지의 강조가 가는 곳마다 넘쳐나고 있었다. 모든 교파적인 담장들을 허물어 버리고 모든 일본주의적인 요소들도 제거하고 새 신앙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래의 모형대로 예배와 본질적인 교회들의 일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참고 : 교회의 변절사(참빛 3권 11호) 67년 6월

교회의 개혁(참빛 3권12호) 67년 7월

교회의 환원(참빛 4권 1호) 67년 8월

다음부터 이 환원운동에 대하여 분석 검토를 하여 보기로 하겠다.

1. 환원 운동의 원인

인류 생활사에 있어서 큰 변동이나 운동이 생겨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그 사건 자체속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큰 사건이란 어떤 성숙한 조건과 환경들속에서 솟아오른 결과인 것이다. 그것은 또 어떤 원인들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같은 원리가 환원운동에도 적용이된다. 환원운동이 생성하여 발달한 원인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들이 조작한 신조들에 대한 불만

신교 안에서 생긴 대교파들은 대다수가 근 400여년간 내려오면서 자기 자신이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단 특유의 신조나 헌법이나 장정들을 받아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신도의 교제를 허용하여 왔던 것이다. 신조나 장정은 그 교파를 지키는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신조들이 만들어 지고 쓰여진 근본적인 동기는 이단을 막고 사설을 예방하자는데 있었으나 후에는 오히려 분파성을 조장하는 성도들 사이의 '걸림돌'들로 등장하고 말았던 것이다. 백보 양보하고서 말하더라도 이러한 문서들은 소수의 교직자가 만들어서 다수의 신자들에게 강제성을 띠고 요구하는 인간의 의견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옆으로 돌려 놓고 기독교를 여러갈래로 나누어 서로 싸움하는 교파들을 만드는 것이다.

켄터키주 드라이런 이란 곳에서 신조에 대하여 두 사람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 칼빈주의자인 침례교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는데 있어서는 성경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침례교의 신앙고백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반대하여 참여한 반신론자는 그의 입장이 철두하여서 그 토론을 처음부터 다 듣고 있던 청중 중에 후렌쉬맨(Frenchman)이란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 각자가 변론하던 자기의 신조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신약성경을 자기 신조로 쥐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의 신조는 누가 만들었소 하고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신조는 누가 만들었소 라고 물었다.

“이것은 1742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신조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때 질문하던 사람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이 당신의 신조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면 죽은 후에 그 신조가 당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요. 침례인이여 그대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필라델피아로 가게 될것 같소”라고 엄숙히 대답했다. ①

주① Sennings, Origin and Early History of the Disciples of Christ.
P. 230

(2)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

당시의 신학계는 칼빈주의가 휩쓸고 있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인으로서 탄생하여 완전 부패 상태에 들어 갔으니 마치 나사로가 육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고 가르쳤다.

그런고로 죽은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던 사실과 마찬가지로 죄의 무덤 속에서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기적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성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신학자들은 모든 사탄이 원죄아래 있다고 주장하여서 어린 유아도 세례받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는다고 강조하였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자신이 하나님께 나가기에는 전연 불가능하며 단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찾아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할 것이 없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단지 통회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선택에 들지 못한 멸망의 자식이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지나친 교리는 인간을 조물주의 손에 들어 있는 단순한 인형처럼 만들고 말았다. 이 이론 속에는 개인구원의 책임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만 달려있다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여파로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면 만인구원론자 즉 Universalism종의 어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말았다.

(3) 개종에 대한 신비적 개념

개종에 대한 칼빈주의 이론은 각인의 개종은 하나님의 자비의 비상 동작이었다.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선포된 대 사면령으로 보지를 않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한 복음이라고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종은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작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각자는 기적적인 경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한 음성이나 천사의 현현이나 보이지 않는 노래소리 등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감정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과 공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일어났으나 대다수의 정상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험했다는 자들 가운데서 다수가 전날의 생활이나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발톤·W·스톤(Barton W, Stone)이 칼빈주의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내가 이 땅속 무덤에 묻혀서 말할 수 있다면 세상에 기독교위에 누르는 흙덩이 치고 칼빈주의 보다 더 무겁게 누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갈라 놓는 어두운 산봉우리이며 죄인들이 하나님찾아 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실망을 가져다 주는 방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속박과 어두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기독교계를 휩쓸고 횡포를 부리고 있긴한 의심은 가장 적게 받아왔다. 칼빈주의의 첫 사슬인 진적 타락설은 아직도 이 굴레속에 수 많은 성도들을 묶어

놓고 있다②.

② Barton Warren Stone. Biography of Elder PP. 33—34.

(4)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소홀 경향

이 당시에 있어서 성경은 죽은 문서(Dead letter)였다.

사람들은 사회의 증거로서 단순한 문자나 말썬이상의 무엇을 요구하였다. 성경은 요새 와서도 하숙방에 비치된 잠피 정도의 대접도 못 받을 때가 없지 않으며 제단이나 어떤 의식이 거행될 때 장식품인양 잠간 잠간 이용하고 돌려두는 일이 허다하다. 그래서 읽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며 개인의 생활에 그대로 실천되어야 할 생명의 책으로서의 간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기조차 이상한 일이지만 신교 교인들이 성경을 매우 적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그들의 전통과 교권속에 묻어 두었던 것처럼 신학자들도 성경을 그들의 사상 속에 거의 감추어 버렸던 것이다. 백여년전에만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분류하여 계약과 시대 구분도 하지 않고 그대르 지내 왔던 것이다. 사도들이 전수해 준 구원 얻는 길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형편이었다. 당시의 대다수의 교파지도자들은 회개하면서 구원의 길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통회시나 예레미아의 통곡의 글들을 소개해줄 지언정 사도행전을 펼쳐서 사도들의 모범을 증거하는 일이 희소하였다.

오늘날 평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들까지도 당시의 교적자들이 모르고 지내는 일이 흔할 정도이었다.

(5) 편만하던 분파주의

기독교회가 다루는 집단들로 분열되었을 뿐만아니라 이 군소파벌들이 서로 물고 먹는 한심한 치지로 떨어져 갔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일과도 상관이 없다는듯이 서로 위에 올라 가려고 자리 다툼과 경쟁에 비굴한 방법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분열과 투쟁에 대한 사도들의 경고와 가르침에 전연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기들 속에 있는 교파를 변호하고 선전하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특유의 교파들이 생길 필요가 있다고 변론하고 나섰다.

이들이 즐겨쓰던 비유는 나무와 그 가지들 혹은 군대와 그 분대조직을 들어서 분파적 기독교를 두둔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출기이고 교파들은 가지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군대는 보병, 기마병, 포병대로 나

누어져 이 각기 분담한 과업을 효과있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군대도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야 사람들은 자기 특유의 기질과 환경을 따라서 알맞는 교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 가상적 군대가 내분이 있으면 공동의 적을 대
 항하는데 전혀 무기력해지고 발전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것
 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낸 나무와 가지 비유인 신학적 괴
 물 앞의 눈이 어두워 있는 것이다. 한 나무에 백이나 백오십개의 가지들이 있
 어서 각 가지마다 다른 이름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더군다나
 교파들이 가지들이라면 즐기는 이디 있단 말인가? 등치에 붙어 있을 수 있
 는데 왜 일부러 가지들에게 소속할 이유가 있는가? 여하튼 이런 주장을 하
 는 사람들은 교파주의의 죄악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떤 편견에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그들의 많은 시간과 정력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영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보다는 그 교파나 그 집단에 가담 시키려고
 아까운 시간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는 엄연한 경향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
 는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쓰여져야 할 거룩한 헌금과 교인들의 지
 혜가 번져가는 분파투쟁이나 분열 작업에 바빠져야 되겠는가. 의견에 차이
 가 있고 신학교리가 다르다고 하여 신자들끼리 교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집단이나 교파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속에서 지
 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할 때 권징이니 출교니 하면서 괴롭히는 동료 신자들
 은 누구를 위한 충성이나?

(6) 종교 침체 상태와 도덕 생활의 퇴패

불란서 혁명은 테로의 공포시대를 동반해 왔고 그 결과로 유럽 전역은 이
 성주의와 자유사상이 범람하게 되었다. 볼테르(Voltaire)는 불란서 과격파
 의 대표자였다. 그의 타고난 천재성은 위대한 자리로 올라가게 했으나 영
 등하고 비뚤어진 성격은 종교의 적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의 두신론자 및
 반종교가들의 세력은 수세기를 걸쳐서 불란서를 다스려온 카톨릭의 교권주
 의에 대한 반작용과 기독교란 이름밑에서 그 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들
 에 대한 혐오에서 생겨난 것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생겨난 두신론자들의 군
 상이 혁명기에 처해 있던 미국에까지 손길이 뻗쳐서 그 기세를 탄발시킬 수
 있는 신천지를 이룩하였다.

혁명기에 가장 선두에 섰던 애국자들 중의 한 분인 토마스. 파인(Tho-
 mas Paine)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공격한 사람으로
 넓게 알려지고 있다. 이 시기에 있던 대학에서는 회의주의가 편만했으며 교

인들 사이에서 분쟁과 비 관용적 태도가 확대되자 지성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무신론적 사상이 더욱 넓게 퍼져 갔다.

당시의 공중도덕은 대단히 천박한 수준으로 퇴패하였다. 독음, 도박, 악덕 사기 등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생겨 들었고 부정 부패는 어느 기관이나 예외없이 물들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고위 성직자들도 음주는 예사로 통했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순회전도자가 예배 인도하러 길을 떠날때는 말 안장에 오를때 한쪽 안장에는 성경가방을 달고 다른 한 쪽에는 위스키 병들을 매달고 떠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에서 종종 과음한 전도자가 정신이 혼미해서 예배시간을 늦게 가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지적한 1798년 장로교 총회가 발간한 일반 서신 중에는 이런 말이있다.

“서구에서 생기는 가공할 혁신과 격동이 도덕과 종교를 파괴하려고 위협한다. 현대 국가에서 유래가 없는 황폐와 유혈 사태가 세상을 요동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정이 생기고 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 가운데서 법률과 종교기강 까지 격멸하면서 불결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주시한다. 이런 행동은 무신론자들의 태도와 별차이가 없다. 공중도덕의 타락은 우리 종교 속으로 침투하여 왔다. 신성모독, 교만, 사치불의, 폭음, 음탕, 방탕, 게으름등이 속속들이 파고 든다.

이 당시 영국의 과격정치파의 침단이던 로버트·오웬(Robert Owen)은 최초로 주목할만한 공산주의자의 스타일이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바로 이 사람과 공개 변론을 하여서 완전히 이겼다.

이 시대 정신을 다시 요약하면 무신론 사상은 가는 곳마다 있었고 윤리 이념들은 엄청나게 알아졌고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적으로 영적으로 쇠약해졌다. 교회나 국가나 최악의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강력한 종교 각성이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참고도서 : M. M. Davis, How the Disciples Began and Jew.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mpany, 1915). pp 11-28.

Ⅱ. 환원 운동의 유래

환원운동은 18세기 말엽과 19세기 초엽에 방향이 잡혔다. 1806년에 이르러 까지는 거의 동시대에 서로 독립적으로 인도하던 네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예비 운동이 잘 마쳐진 산물로 등장한 것이 복귀운동 혹은 환원운동이

였다. 이 초창기 지도자들은 상호간에 연락이나 친교를 모르고 각자가 독자적으로 그 곳의 경향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1) 버지니아주와 북 캐로라이나주에서 제임스 오. 켈리 <James O. Kelly>는 이 운동들 중에서 첫손에 꼽힐만하다. 그는 감독 감리교회의 교직자였으나 그 교회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가 설교하던 그 교단 안에서 교권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반대하자 그 여파는 1793년 발티모어회의를 열어 완전히 이탈을 결정지었다. 1795년에 오켈리와 더불어 탈퇴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절정에 이르러서 감리교에서는 7천여명의 신자를 잃게 되었다. 오켈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급하게 공화 감리교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러나 곧 잘못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쳤다.

(2) 예비운동 중에서 또 하나는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다. 1802년 9월에 애브넬 조언스 (Abner Jones)라는 침례교인이 분파적인 명칭과 신조들 때문에 몹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버몬트린돈에서 25명과 같이 교회를 조직하였다. 같은해 후반기에는 부래드 필드(Bradford)에서 둘째 교회가 출발되었다. 이후로 1802년에 핸노버(Hanover) 뉴 햄쉬어(New Hampshire)에서 1803년 같은주 펠몬트(Piermont)에서 교회들을 시작하였다. 뉴 햄스 포트스미스(Portsmouth)에서 엘리자 스미스(Elsal Smith)의 지도를 받던 교회는 존스의 운동에 합의하고 대열을 같이 하였다. 스미스는 전 침례교인으로서 곧 복음자유주의 전령(The Herald of Gospel Liberty)라는 출판물을 시작하여 널리 알려졌다. 이 잡지가 오늘날 까지 계속되기는하나 명칭은 변경되었다.

(3) 세번째로 장로교 목사였던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켄터키 지방의 환원운동이다. 언제나 철두 철미한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해 오던 그는 당시에 가는 곳마다 인기를 얻고 있던 칼빈주의 교리와는 자신이 멀리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의 설교방법은 장로교의 노여움을 사서 책벌이 내려졌다. 스톤과 그의 동역자들은 신앙고백에 상충되는 교리를 진파했다는 구실로 정죄 당하였다. 이러한 처사에 반발한 교직자들은 문적서 항거하고 스프링필드 장로교의 최후 증언과 유언(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이란 문서를 만들어 1804년 6월 28일에 공개하였다.

이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로버트 마셜(Robert Marshall) 존 둔레비(John Dunlavy) 리처드 맥나마리(Richard McNemar)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존 톰슨(John Thomson) 데이비드 퍼비안스(David Purviance)

역사를 창조한 이 위대한 문서에서 스톤과 그의 동역자들은 장로교는 사망하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안으로 스며들어 간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명칭은 포기하고 오직 성경만이 하늘가는 길을 안내하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사용한다고 공언 하였다. 이 발톤 스톤은 이 운동의 핵심인물로 등장하여 켄터키 전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

(4) 네번째로 가장 넓게 전파된 힘있는 운동이 있었다. 이것은 스코트랜드 장로교 교역자들이었던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과 알렉산더 캠벨(Alexsander Campbell) 및 월트 스코트(Walter Scott)들의 지도를 받아서 펜실바니아와 오하이오주에서 출발한 환원운동이 었다.

1890년에 토마스 캠벨이 만든 선언문(Declaration and Address)은 신약을 근거로 한 기독교계의 재연합을 호소하는 역사적 주장을 하였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은 오직 하나님의 교훈에만 따를 것이지 다른 것은 어떤 것이든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의 사도들이 신약교회에 대하여 밝히 가르치신 교훈이든지 모범으로 먼저 보여준 사실은 기꺼이 받아 드린다.” “신약성경 만큼 역사가 되지 못한 것은 교회의 예배와 신앙안으로 어떤 것이든 허용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찬의 조건 즉 교재의 척도(Term of Communion)를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이념들은 1810년 5월 4일 수명의 열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워싱턴지구의 그리스도인 협회의 제일교회”(The First Church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라고 알려진 곳에서 모였을 때 결심한 내용들이다.

독자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토마스, 알렉산더 두 캠벨씨는 유아세례를 받은 신자였지만 그들은 성경계 합당한 세례를 아직까지 받은 일이 없었음을 결론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1812년 6월 12일에 침례교 전도자인 마티아 루시장노(Elder, Matthias Luce)의 집례로 부화로 그릭(Buffalo Greek) 호수에서 그들의 부인들과같이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단순한 신앙고백을 따라서 신약적 세례를 베푸는 첫 모범이었다. 모든 인조적인 명칭들과 모든 인위적인 신조들을 모조리 공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면서 일어난 캠벨과 그의 동역자들은 장로교와는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다음으로 침례교와도 단절하였다. 이후부터는 비교파적 강령을 내걸고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전도에 힘썼다.

이 결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신약질서를 따라서만 조직 되었다.

1832년 1월 1일 켄터키 렉싱턴(Lexington)에서 큰 집회가 모였다. 여기서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을 중심한 환원운동가들과 알렉산더

캠벨을 따라서 환원운동에 참가한 동역자들이 합동하게 되었다. 이 때 침례만이 이상적인 신약 세례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 모임은 환원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참고 : Eale Irvin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Vol. I & II. Re, 'Book Service 722N. Payton Rd. Indianspolis 19, 1950
M.M. Davis, How the Disciples Began and Grew the Standard Cincinnati Publishing Company. 1915

W. E. Ganison, Whence and Whither Dicle of Christ St, Louis
Chrstran Boord of Publication. 1948

Ⅲ. 환원 운동의 원리

기독교계를 재 일치 시켜서 분파주의를 지양하려고 노력하던 환원운동의 개척자들은 범세계적인 기초에 굳게 서려고 추구하였다.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옳다는 인정을 세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한하였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환원운동의 원리개요는 B. A. 아보트(B. A. Abbott)라는 The Christion Foangelist 편집인의 저술에서 발췌한 것이다.

1. 세계적인 교회, 환원운동의 개척자들과 그 후계자들은 선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래부터 하나로 구성된다. 이 하나의 일치를 파괴하는 모든 분열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고 하였다.

2. 그들은 신행의 유일한 표준으로서 우주적인 책을 주장하였다.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나 신행과 소망에 필요한 모든 완전한 권위와 유일한 저장고는 오직 성경 뿐이다. 이 책만이 우리에게 범세계성과 특별계시를 정당하게 줄 수 있다.

3. 세계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마 16 : 15—16)

4. 성경적이고 세계성을 띤 이름은 신자, 그리스도인, 제자, 성도, 형제 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온당한 표현등이다.

5. 세계적으로 받아 드려지는 상례는 세례와 성찬이고 그 형식과 진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이 실천해 보인 그대로다.

6. 세상에서 생활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신약에서 보여준 그대로 따라 간다.

7. 세계적인 목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위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있다③.

주③ Abott, The Disciples, PP. 17—18.

켄터키 루이스 빌 사람 W. N. 브리니(W. N. Briney)의 “환원운동 은무엇을 위한 것인가? ④ 라는 설교 제목속에서 다음과 같은 환원운동의 원리들을 개요할 수 있다.

1. 그리스도인의 제일 표준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설조도 없다.
3.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행의 유일한 표준이다.
4. 우리의 멧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이다.
5. “주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니라”는 신앙의 중심이다.
6. 개인 의견에 있어서는 자유다.
7. 일치는 신약성경에 기초하여야 한다.
8. 성경에 관계되는 사물은 성경적인 명칭으로 부른다.
9. 인위적인 명칭들과 신조들을 거부한다.
10. 성례는 신약시대에 기록해 남아 있는 것들로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치는 그중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신약 교회에로의 환원의 일치의 바탕은 교회의 명칭, 신조, 성례, 조직, 생활이 성경에서 보여준대로 따른다. 이것이 환원운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표들이다”⑤.

④ The Watchword of the Restoration Vindi Catede PP. 19—42.

⑤ Ibid., p. 38.

참고 : F. W. Mattox, The Eternal Kingdom. Ielight Arkansas : Gospe Light Publishing Company, 1961.

Ⅳ. 환원 운동의 호소

환원운동의 멧세지는 호소(Plea)로서 보통 알려진다. 호소 혹은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서는 신약의 터진 위에서 통일하자는 호소다. 이러한 일치의 실행은 원시 기독교에로 환원하는데 달려있다. 즉, 교회의 법이나 성례나 사업에 있어서 환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표는 기독교 일치

바탕은 신약성경

방법은 환원

2. 신약 기독교에로의 환원을 위한 호소다. 본래의 그리스도교회 일치

오늘에도 성취할 수 있다. 즉 명칭, 신조, 권징, 성례 및 행사에 있어 초대 교회와 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환원운동의 호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호소인데 다음과 같은 호소의 내용을 들 수 있다.

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인위적인 명칭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② 교회의 유일한 신조는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도고하시는 그리스도 자신뿐이다.

③ 교회의 권징표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즉 신약 성경이다.

④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는 시인되고 환원되어야 한다.

⑤ 어떤 기관들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귀를 받아야 하며 파벌로 형성된 기관들을 일소시켜야 한다

⑥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⑦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상들이 실천 생활화되어야 한다.

⑧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는 신앙, 회개, 고백, 세례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서 증국에 가서는 한 몸으로 형성된다. 이 몸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며 반석(기초)이 되신다.

환원운동의 호소는 신행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을 주장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뛰어난 메시지는 예수님의 주 되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원운동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V. 환원운동의 뛰어난 지도자들

위에서 이미 상고한 환원운동의 유래를 취급할때 그 시초에서 성장기에 들어가기 까지 곧 공적을 보여준 몇명의 지도자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들의 인격과 사업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켄터키주에서 장로교로 부터 환원하였는데 천성이 신비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도와 경건의 선지자”란 별명을 가지고 살았다. Stone은 특히 환원 메시지에 대한 열심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2. 토마스 캠벨(Thomas Cambell) 부열의 죄악을 누구보다 먼저통감 하고 처음으로 재 통합의 선지자(The first prophet of reunion)가 되었다.

환원운동의 표어라고 알려진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잠잠하는 곳에서 우리도 잠잠한다”는 말을 만들어 냈다.

3.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토마스 캠벨의 아들로써 환원운동의 신학적 지도자로 알려졌다. 캠벨은 The Christian Baptist(기독교인의 세례)란 잡지를 오랜동안 편집했는데 이 책이 나중에는 The millennial Harbinger라고 개명되었다. 그는 또 베다니대학의 설립자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그의 필체는 놀라운 매력을 가졌다. 교리논쟁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필승을 거두었고 그의 공개 변론은 교파의 아성을 쌓고 있던 워커(Walker), 모카라(Mocalla), 오웬(Owen), 푸셀(Purcell), 라이스(Rice), 들의 체면과 위신을 무너뜨려 주었다. 그래서 당시 신학 사상에 일대 혁명을 불러왔다.

4. 월터스코트(Walter Scott) 1827년경 오하이오주 리스본에서 초대교회를 위한 노력을 집중했던 웅변가이며 피로할줄 모르는 일꾼이었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세례”(행 2:38)를 재발견해서 강조한 첫 개척자였다. 복음의 명령과 약속의 결과에 주의를 모으면서 성경공부를 한 끝에 신앙, 회개, 세례, 죄씻음, 성령의 선물이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터득하였다.

이 외에도 초창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환원지도자들이 많았다. 몇 사람의 이름을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존 스미스 장로(Elder John Smith, 1784—1868) 켄터키지방에서 대담한 개척 전도인으로 생애를 빛냈다.

② 로버트 리차드슨 박사(Dr Robert Richardson) 환원운동의 역사가로 유명하다. Memories of A. Campbell이란 책을 두권으로 나누어 1248페이지나 쓴 저자이다.

③ 벤자민 후랭크린(Benjamin Franklin 1783—1833) The American Christian Review지의 창설자이며 위대한 개척전도자였다.

④ 이삭 엘레트(Isaac Errett. 1820—1888) The Christian Standard 설립자요 당시에 호평을 받은 여러책의 저자였다. 환원운동 역사 연구에 대한 가장 힘있고 박식을 겸한 저작자로 알려져 있다. 엘레트씨는 “제2세대의 첫째가는 선지자”로 별명이 주어졌다.

⑤ J. W. 마가비(McGavey) 켄터키 렉싱턴에 있던 성경 대학의 총장으로서 넓게 알려진 학자요, 저술가요, 설교가였다. 사도행전주석, 신명기의 저자론, 기독교 협증학등을 집필하였다.

⑥ 조셉 비안트 로디함(Joseph Bryant Rotherham) 영국인으로 The Emphasized Bible (성경 강조)란 책을 썼고 성경전서 사역을 완성해서 호평을

받았다.

Ⅶ. 환원 운동의 특성

환원운동의 주요 특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환원운동이다. 루터, 츠빙글리, 칼빈, 나스 등 여러지도자들은 로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출발한 사람들이었다. 웨슬레는 영국교회를 혁신하기 위하여 일어난 선구자였다. 이 외에도 오테베인(Oterbein), 죠오지 폭슨(George Fox), 로지 윌리엄(Roger Williams) 등도 종교 개혁을 위한 일꾼들이었다. 그러나 스톤(Stone), 스코트(Scott), 캠벨(Campbells)등과 동역자들이 추구한 것은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신약 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New Testament Church>”였다.

환원하면 우리는 웨슬레의 뒤, 나스의 뒤 정신, 칼빈 루터의 뒤받침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서 로마나 콘스탄티노블이나 회람정교회의 전통에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신약 교회를 향하여 돌아가자는 것이다. 신약에 바탕을 둔 신앙, 예배, 생활, 봉사에 의해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는 환원 운동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2. 비교파 운동이다. 교권주의적인 어떤 기구도 없고 누가 엮어 놓은 조직 신학도 없다. 각 개체 지역교회는 비교파적인 이름과 비종파적인 신조와 비분파적인 권징과 편견이 없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한다. 예수의 부활이 있는 후에 첫오순절날 많은 무리는 복음의 멍새지를 듣고 믿고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더 해졌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오늘의 지역회중들은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로서 구성되며 이들은 사도들의 교훈과 교제나 기도나 떡을 계속하면서 주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바로 그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에도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일은 지금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교파에도 소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교파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일도 없고 사망을 승리한 일도 없다.

3. 신약운동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교사상과 유대교를 섞어서 만든 혼합적 기독교이다. 형태에 있어서 각양 각색인 신교들도 신학적으로 부패하고 변질된 교리에서 그 싹이 터서 자란 것들이다. 그 후에는 불행하게 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와 세속인본주의 사상을 받아 들여서 교회는 더욱 혼

란에 떨어지고 말았다. 순전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기독교는 신약 성경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독교의 본질과 형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보여주고 있다. 환원운동은 신약적 기독교를 제생산해 내자는 운동이므로 신약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신약으로 돌아가자는 호소가 이 운동의 중심을 이룬다.

4. 교리운동이다. 교리는 교훈(가르침)이고 가르침은 곧 교리이다. 환원운동은 적극적인 신약성경 교훈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운동이다. 이 운동의 생명은 교리교육에 달려 있다. 궁극적인 성공은 신약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치는데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등한히 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열심이나 봉사의 충성에 있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회 보다 전적으로 잘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들의 교파적이고 분열적인 입장은 신약교리에서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교파란 장벽을 무너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신하여 뭉쳐서 일치하자고 호소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완전하고 안전한 신앙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이다.

환원운동은 그 회원들의 생활속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확고한 신약교리 대신에 어떠한 철학이나 세상이론들로 대신할 수는 없다.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신행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을 굳게 잡고 실천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는 일이다.

제 2 장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선 선교

1.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조선 선교



천주 교의 교원 세력은 18세기 초엽에 들어서면서부터 선교의 선교활동으로 점차 그 교세가 사라지고 영국, 독일, 이태리, 미국등 제국을 중심으로 영원히 존속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밝은 빛을 보게 되어 전세계를 무대 삼아 바람과 물결 따라 퍼지고 또 퍼져 우리의 금수강산에도 주님의 교회가 들어 오게 되어 눈물과 낙담과 절망과 흠암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가 삼천리 강산에 들어오게 된 (강 문 석) 것은 하나님의 강물이요 섭리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확신하고 영원히 찬양 드려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운행하며 기적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 내시되 특히 의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시는 것으로 조선땅에도 처음 몇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것을 생각해 볼때 이미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나 현재 생존하신 여러 선배 교역자님 들의 눈물어린 노고에 감사할 마음 표할길 없다.

특히 대부분의 전세계 각국의 선교는 타국언 이나 소위 선교사들에 의해 반포되고 선교가 되었으나 이땅에 들어온 그리스도의교회는 한국인 으로서 선달-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교회를 우리들께 전한분들을 지면에 지적 하라고 하면 동석기 전도자와 강명석 전도자 이다.

이 두 전도자는 그전에 서로 알던이나 아는 처지가 아니었고 전연 모르는분들로 동석기 전도자는 함경도 분이 었고 강명석 전도자는 경상도 분이 었는데 우연히도 같은해 1930년 강에 대평양의 거센물결은 해쳐 비대륙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각자 공부와 생활에 분망하시다 고국으로 돌아와 선교를 하게된 것도 거의 같은해 동석기 전도자는 함경도 복정을 중심으로 전도론 하면서 서울로 차츰 오시게 되었고 강명석 전도자도 경상도 울산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서울로 전도의 반전을 옮기게되어 결국 환회의 상봉을 하게되어 전리와 환원운동의 봉치를 남산 꼭대기 높이 치들이 할 반도에 길이 길이 비취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못박고 후대에 수많은 그의 제자를 학살시킨 마귀들의 칼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머리와 같이 붙어 다니며 순교자들의 피와 생명을 앗아간 역사는 결코 이웃나라의 수난이나 먼 옛날 로마성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 36년간의 민족의 비운은 누구의 잘못이나 원망만은 결코 아니다. 나와 너 어느 누구나 무지에서 온 선물(?)비 협조와 비 단결에서 온 것으로 일본 군경들의 쇠 고랑은 우리를 묶어놓아 속국으로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당시 조선땅에 있는 어느 단체라도 총독부에 등록 하게되어 우리 그리스도의교회도 하나의 단체라는 명목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등록된 때는 소화 12년 12월 30일 조선 총독부 관보 제3188호에 “조선 기독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대표 동석기 전도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때에 교회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교회내에 있게 되자 강명석 전도자 보다는 연령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 선배되는 동석기 전도자가 의리적이라고 하여 그분으로 추대 결정하게 되었다.

2. 동석기씨의 초기 활동



동석기 형제는 1881년 4월 6일 함경도 북청에서 4남 1녀의 형제중에 장남으로 출생하여 이미 엄격한 가정에서 훈당 교육을 받아 가면서 17세때 보지도 못한 어린 소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신부될 분을 한번도 만난적이 없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결혼하는그시간 까지 나는 그 부인이 예쁜지 미운지 몰랐다 왜냐하면 한국은 남여 칠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교리에서 자랐음으

(동 석 기) 로서로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고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미국 그리스찬 신문에 실린 한문전)

그러나 동석기 전도자는 좁은 함경도 산골에만 뜻이 있는 곳은 아니고 좀더 넓은 세계가 그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어 10대 소년의 어린 몸으로 높은 산맥을 타고 강을 건너 한양으로와서 많은 고생과 역경속에서 생활하다가 우연히 하와이로 떠나는 노동자 일행과 같이 갈 기회를 얻어 낯선 이국을 향해 고국을 처음 떠나게 되었다.

첫번째 미국여행

1904년에 동전도자는 첫번째로 미국을 여행하였다. 미국에서 그는 감리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는 이리노이주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게라트 성서 학원에서 학사 학위를 얻고 1913년 한국으로 돌아와 14년 동안 일천 한적은 감리교회에서 목사로 사무 하였다.

신약 성서 진리애로의 개종

동 전도자는 1927년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나티 대학원에서 수업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그때를 회고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이 주의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가 가르치듯이 진리를 성경말씀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배시에 악기를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는 이때 신약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발견하고 그는 침수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전도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귀국하기 위해 여비를 모금하기 위해 남루를 여행 했는데 그 기간에 알라바마주에 있는 몬트고메리에서 T. B. Thompson 형제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 했는데 여기서 예배시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톰프슨의 격려를 받고 동 전도자는 태니시주에있는 네쉬빌로가서 Hall Calhaun과 Sam Pettman 형제와 같이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여기서 예배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심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진리를 한국으로 옮기다.

웨이볼리 벨몬트 교회는 동 전도자의 귀국여비를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매월 보조해 주기로 결정 하였다. 이러한 격려로서 그는 1930년 11월에 그는 고국으로 돌아 왔다.

11월 초순 함경도 북청을 찾아온 그는 먼저 복음의 진주를 부인 가슴에 안기여 주었고 이웃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불길을 점화시켜 주워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져 약 20명에게 구원의 세례를 주게 되었다. 그 때에 함경도 에는 추위가 어느듯 휘몰아쳐 11월경에 세례 받은 교인들은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단 몇 주일만에 북청을 중심으로 하여 북청군 이곡면 조리합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롯 덕성면 서흥리 교회, 수동리 교회, 수서리교회, 하거서면 임자동 교회, 맹경시 교회, 증산리 교회등, 7개 교회가 1930년 말경까지 하나님의 은총가운데 그리스도의교회로 시작되었다.

현재 그리스도의 교회에 노련한 전도자로 모든 사람으로 부터 존경을 받으며 한국에 수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홍식 전도자가 당시 수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으로 일하다가, 27세때 교회의 원 기동인 집사가 되었다.

현재 이홍식 전도자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 계신분이며 나이가 많으신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신다.

이후 동 전도자는 북청에 그리스도의교회 복음 사업을 시작한후 기적인 부흥 일로에 선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1935년 미국 형제들에게 곧 정신적 물질적 협조와 조선 그리스도의교회를 소개키 위해 미국으로 일단 건너가 미 합중국 그 큰 대륙을 단숨에 순회 하면서 성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그곳 형제들과 각교회의 적극적인 성원을 얻어 더욱더 주님의 사업에 힘을 내게 되었다.

그는 다시 발길을 고국으로 옮기게 되었다. 돌아오는길에 이스타엘땅과 주님이 세상에 오시여 생활하시던 성지를 일일이 찾아가 보고 깊은 감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 왔다.

그후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의 숙원이며 갈급히 원했던 민족 해방직전 다시 동 전도자는 발길을 서울로 옮기여 현재 종로구 내수동 106번지 작은

적산 가옥을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된것이 오늘의 내수동 그리스도의교회의 첫 출발이다. 동 전도자는 미국인 선교사 들을 한국으로 초청 했으며 이 땅에 참교회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증거 하셨다.

그는 지금 팔순에 접어드셨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충성심은 젊은이 못지 않다. 노구를 이끄시고 지금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일선에서 지도 하시며 먼 캘리포니아 조용한 그리스도의교회 양노원에서 조용히 조국을위해 기도 하고 계신다.



(80대에 제혼하시고 다복한 여생을 즐기시는 동석기 부부)

3. 강명석씨의 초기 활동

경상도 민양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적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높은 뜻이 있어 일본 관서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감리교회에 투신하여 일하던중 목사로 소명을 받게 되어 고향인 민양에서 교회를 시무하시다가 당시 감리사로 계신 양주삼 목사의 추천을 받아 도미의 길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1931년 3월 2일 부산에서 열락선을 타고 일본을 거쳐 주야간 15일간을 항행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하여 낯선 길을 찾아 밴데루 베루린, 석쿠주 대학을 찾아가 수업을 받게되었다. 그때 재미있는 것은 강명석 형제의 이름을 미국인들이 “명”자의 발음을 하기가 힘들니까 “문”으로 발음을하여 “강문석”으로 부르게되었다.

어느누구 보다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시간을 쪼개고 또 절박하여 공부와 학비를 버는데 열심을 다하여 결국 1935년 6월 3일 동 대학에서 신학 학위를 얻고 교회를 순방하며 고국으로 오는길에 우연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 인연이 되어 자기자신의 신앙 정도와 성경연구를 다시해야 되겠다는 충격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 들어가서 1년을 공부하고 마차 밭에 금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예전에 미처 몰랐던 성경의 말씀들과 주의 교회를 발견하고 곧 고국으로 달려오게 되었다.

강문석 형제가 미국에서 돌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장로교회 교우들이 환영을 하게 되었고 오는 첫주일 장로교회 목사로 계신 심취명 목사가 대집회에 설교를 부탁하게 되었다.

강문석 형제는 차근차근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서에 입각해야 하며 배주 성찬식과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진리의 말을 받로 하였다.

예배후에 심취명목사 가 광고시간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무티실교 할자가 없더라도 강문석목사는 설교를 시키지 말라고 절교선언을하여 결국 교세를 잃고 그날 저녁 예배부터 처가집에서 처가 식구와 부인과 성만찬을 가운데 놓고 예배를 보기 시작한 것이 강문석형제의 처음 그리스도의교회를 이땅위에 건파한 발걸음이 된것이다.

전통과 습관적 교리에 매여있는 교파들은 새로운 환원운동적인 신약교회 운동에 냉대를 보였으나 우리주님은 12명의 제자로 세계를 정복하시고 그의

후세의 제자인 강문석 형제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임하시어 울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되어 다시 경주로 올라가 경주교회를 세우고 경북 월성군에 있는 동방교회를 울산군 수동면 반천에 있는 진양반성 교회를 세우는데 역사적인 성공을 보게 되었다.

1937년 강문석 형제는 좀더 활발한 복음선교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내수동 106번지 그리스도의교회 옆에있는 양옥집을 얻어 살림을 하면서 그리스도교회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교회로서 발족을 보게된것은 1937년3월6일 신당정에서 시작하였으며 다시 동교정에 5월1일에 교회를 세웠으며 동년 10월30일에 감리교파에 속해있는 원익상목사가 맡고있던 대현정 예배당을 구입하여 그리스도의교회를 세우고 곧 발걸음을 인천으로 향해 인천 송림동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이르렀다. 그가 가는곳 마다 진리가 퍼졌으며 교회가 세워져 그야말로 초대사도행전에 나타난것과 같은 교회가 두루 밝은 빛이 되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과로에서온 쇠약으로 그는 건강에 허점을 디디게 되었을 때였다. 어느 감리교회 목사가 강문석 전도사에게 모략을 가해 교회사업보다 학교사업을 하자고 원하는것을 거절하고 미국 교회에서는 교회세우는데만 보조 한다는 것을 설명 하였으나 이것을 이해 못한 일부 몇명의 지도자 들은 강문석목사가 미국에서 오는 학교의 돈을 다룬데 쓴다고 소문을 퍼트리게 되자 이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으로 그소문을 퍼트린 목사와 심한 언쟁을 하고 집에 돌아와 목이메여 음성이 변하면서 알아 늙기 시작 하였다.

며칠 안되어 47세의 일기로 1944년 5월 28일 첫번복음을 전하던 울산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의 장모 전란 자매님품에 안기며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저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물론 저 먼 미국 교회에서 까지 그의 죽음을 적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의 유족을 위로하는 수많은 편지가 날아 왔으나 다 전달되지 못하고 위로 하려고 왔던 미국형제들도 환경과 중간 몇 사람의 잘못으로 유족을 위로치 못한점도 교회 역사 후대에 많은 논란이 되었다.

그가 별세후에 위에서 말한대로 편지 연락이 미국에 도와주는 교회와 연락이 잘안되고 각 교회를 맡은 전도사들의 깊이 못한 소명감으로 거의 스스로가 해산하여 교파로 넘어가게 된것을 우리들은 통탄해 마지않은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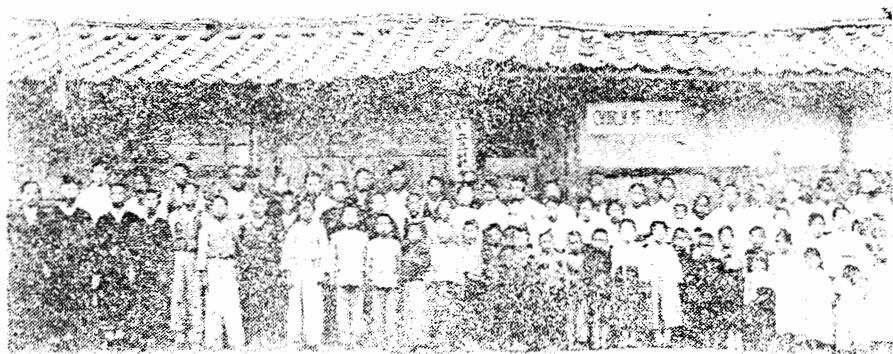
그러나 오직 울산그리스도의 교회만은 강문석 형제의 모친과 부인과 친척들의 인내력으로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다 한다.



(대현 기독교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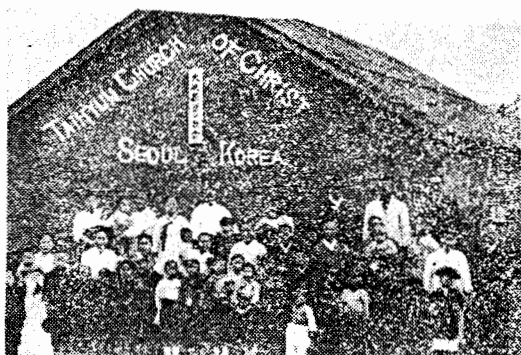
(기독교회 신당징 예배당)



(동교장 그리스도의 교회)



(1936년 11월22일 일본 등경에 도착하여 그곳 그리스도교 인들과 같이 기념촬영) (왼쪽 앞줄에 서있는 분이 강문식 부부)



(대 현 교 회)

Moonsuck Kang P.O.Box 22 Sutamoon Seoul , Korea

This is the Picture of the church building of which I have to have 350,00 as soon as possible and of these people who attended worship is on Kong Duck Chung in Seoul Korea and is Church of Christ

1937년 11월 7일 미국의 교회에 모금을 위해 보낸 사진. 이때 이 사진과 보고서를 통해 350불의 모금을 얻어 대현정 예배당을 구입했다.

(사진 뒷면에 강문석씨의 보고서가 기재되어 있음)

환원 운동의 지침

책은 성경만 No book but the Bible

신조는 그리스도만 No creed but the Christ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No name but the Divine

주장은 복음만 No idea but the Gospel

일치의 근거는 성경적으로만 No basis of unity but the Scriptural

기본 교리에는 통일을 In essential Unity

의견에는 자유를 In opinions Liberty

매사에는 사랑으로 한다 In all things Charity

4. 초대 미 선교사 파송

동석기씨가 1949년에 제3차 도미하여 한국에 선교사 파송을 미국 각 주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며 호소하였으나 한국 실정을 알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실패 그외 선교와 호소에 응하여 자원하는 교회나 선교사는 없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긴 세계의 이륙이 한국으로 집중될때 부터 한국에 선교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였다. 선교사가 오게된 동기는 우연으로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던 몇명의 교인이 산지사방으로 헤어지게 될때 내수동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강애주양이 대구로 피난가서 육군대위로 근무하던 민형제형제와 결혼하여 생활 하던중 대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당시 부산에 있던 동석기씨의 장남 동충모씨에게 와서 교회를 설립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동충모씨와 이흥식씨가 서로 협조하여 민형제대에서 12명이 1952년 3월경 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때에 한국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던 미군 3명중 한명이 미군대령 엘레베이가 있었는데 이군인은 한국에 오기전에 워싱턴 D.C.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집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3명의 미군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민형제의 헌신적인 봉사와 동충모 이흥식씨의 열렬한 전도 생활과 당시 전쟁으로 인한 심적으로 상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목격하고 워싱턴에 있는 그분들의 모교회에 “한국을 전도할 시기요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워싱턴의 장노들은 자기들이 선교사를 보낼 능력이없다는 이유로 그서신을 그냥 휴지통에 넣어 버렸다. 그러나 엘레베이 대령은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한 편지를 매일같이 했으나 워싱턴 교회 장노들은 편지가 오는대로 묵살해 버렸다. 그런데 너무나도 매일같이 간곡한 편지가 오니만 장노들이 생각해 보자고 하여 미국에와 있는 유일한 한국 전도자인 동석기씨를 부르게 되었을 그때 동석기씨는 미 육군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한국군 장교들에게 견도하고 있었을 때이다. 동석기씨는 워싱턴에 있는 장노들의 상의 요청을 받고 즉시 워싱턴으로 갔다.

워싱턴 장노들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으나 선교비가 없다고 할때에 동석기씨는 선교사 파송비로 자신이 한국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저축해둔 돈이 약 4천불이 있다고 하니만 장노들은 두가족을 파송하려면 약 2만

불이 필요한대 만약 파송해 놓고 뒤에 선교 사업비를 후원해주지 못하면 곤란해 질것이라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노력해 보는데 동석기씨가 약 2만불을 모금해 보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할것을 승낙하고 동석기씨는 미국 남방 각 주를 다니면서 모금운동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역경과 고초를 무릅쓰고 남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면서 간곡히 모금에 참여 할것을 호소하게 되었다. 형제의 깊은 우애로 피와 뼈에 사무친 돈 약 2만불을 모금하여 워싱턴 교회에 송금하니 이에 감격한 워싱턴 그리스도의 교회 장노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인들인 두가족을 선정하였다. 미국 교회에서는 본격적인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한국전쟁 휴전 직후에 조지「가가나스, 콜스캠빌, 프랭크 테일러, 조이케논, 버틴커프먼, 씨를 파송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돌아가서 깊은 고려와 상의 끝에 일단에 정식으로 1954년 5월 10일에 리처슨 Dale Richeson에」최설씨 가족이 초대 선교사로 들어 왔으며 그후 그해 10월에 L. Haskell Chesshir씨 가족이 서울에 들어 오으로써 두가족이 들어오게 되었다.

얼마후에 서울 용산구 효창동 6번지에 일본식 작은 가옥을 구입해 일단가족과 같이 이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연히 정한 선교사 주택이 현재 용산구 효창동 6번지 효창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이 건립되었고 의료교육 선교사업을 이곳에서 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리처슨씨는 본시 신문기자로 종사했던 사업적 영향과 그의 세밀한 성격은 그가 체류하는 동안 껍이나 많은 성공을 낳게 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전에 본국과 일본에서 한국에 관한 역사, 문화, 습관 및 언어를 습득하고 왔던 것이다. 그는 보수적 입장에서 완고한 교리적 단독성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고 각 교파들과 대화를 즐기었으며 특히 교파 선배 선교사들과 선교정책 사업등에 대해 알리고 찾아다니면서 의논을 깊이하고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고수하며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먼저 그는 선교사업을 위해 효창동 6번지에 매지 1779평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명의로 사놓고 다원적인 선교의요 교육사업에 높은 뜻을 품게 되었다. 한가지 한국 전쟁후에 큰문제가 되었던 혼혈아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미국 어느 신문에 이문제를 기사화해서 혼혈아 구제를 호소하게 될때 헤리 홀트씨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사재를 들여 한국으로 와서 리처슨씨를 만나 우선 리처슨씨집 옆에 약 25평짜리 건물을 지어 홀트 혼혈아 고아원을 설립하게 된것이 지금의 경기도 일산에 있는 홀트시 양자회가 된 것이다.

한편 그는 불탄서 어 에 능해서 이화여자대학 불어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한국 교역자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와도 접근하면서 설교 초청에 응하여 여러번 설교하게 되었다. 이때 동석기씨를 중심으로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최윤권씨를 중심으로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와 인적 교리적 이견으로 반목이 있었을 때였다. 동석기씨의 아들 동춘보씨 이흥식씨등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 전도자들이 부산 동태에서 회의를 가지고 리치슨씨를 불러 타교파는 물론 그리스도인 교회와 타협하거나 설교초청에 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회만 위해 전력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그틴일이 있은후 얼마 안되어 미공군으로 한국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빌 램지씨가 리치슨씨에게 그리스도인 교회에 있는 장성난씨를 찾아 달라는 청탁으로 그리스도인 교회 교역자들중 성낙소씨를 찾아 중로 필운동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경희전씨를 찾아 서대문 교회를 왕래하게 되니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들은 이에 분개하여 공동명의로 미국에 있는 동석기씨와 워싱턴 교회 장노들에게 편지하기를 (1)리치슨은 1년 이가도 뚜렷한 일을하지 않았다. (2) 타교파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타협하려 한다. (3) 한국 교역자들과 비협조적이다. 라는 편지를 전했다. 이러한중 1954년 10월에 최수열씨가 (L. H. Chessir 한국명) 한국에 오게되어 리치슨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두 가족이 한집에서 생활하는데는 불편한 점이있고 또 선교비를 자기 이름으로 보내 달라고 최수열씨가 워싱턴 교회에 전의를 했다. 워싱턴 교회장노들은 리치슨씨에게 첫째 한국 교역자들과 같이 일할수 있느냐? 모든 재정을 최수열씨의 명의로 보내도 되느냐? 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런 질문에 리치슨씨는 본국으로 들어 갈것을 결심하였다. 결국 리치슨씨는 한국에서 강기적 선교사업을 포기하고 2년만에 본국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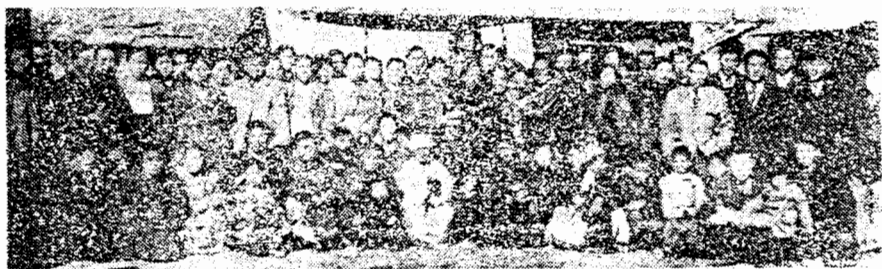
그가 가기전 한국 교역자들과의 오해를 풀고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기쁨으로 작별을 하게될때 한국 교역자들은 더유하던지 다시 방문해달라고 간청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고 첫 선교사로 선교지를 쓸쓸히떠나게 되었다.

1954년 11월 내수동교회에서
Richardson과 Chessir 초대
선교사가족 환영식을 가졌다





(1954년 11월 배수동교회에서 두 선교사 가족과 같이 한국 교역자들에 환연식을 가진 후 식사를 나누고 있다.)



(1952년 부산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분에 선교사로 계시던 캐논(Canon) 선교사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교역자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를 가르쳐 많은 자살적 일들을 줄기에 주었다.)



(홀튼과 최수열 선교사가 한국 교역자들을 초청해 선교사택에서 친교 나누었다.)



한국 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라는 집관 밑에 두개의 근사한 교리의 교회들이 있다. 소위 예배시에 악기를쓰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악기불쓰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늘 하나가 돼서 서로 복음을 선교하자는 만과 뜻은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섭섭한 일이다. 여기 그당시 찍어본 사진



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여러차례 합침 것을 의논한 흔적을 증명 해주었다. 1954년 6월 17일 대전 신화동 교회에서 모임을 가진 바있었고 서울 원효로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서 양보와 용서를 구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제3 장 선교 사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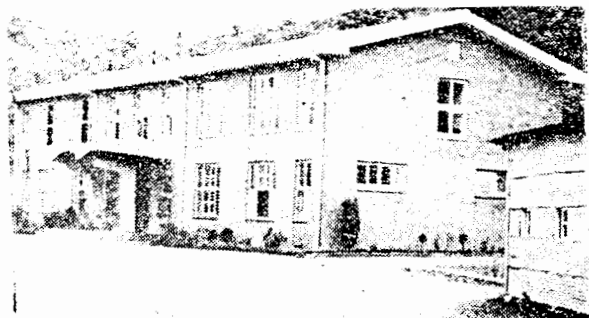
I. 교 육 사 업

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서울시 한 중심 지대인 종로구 내수동 그리스도의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중심이 되었다. 왜냐 하면 국 내외 모든 문제가 거의 내수동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특히 8.15 해방이후 함경남도의 그리스도의교회 교인들이 월남하여 내수동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

(최 수 열)

1956년 여름 부터 시작의 원인은 알수 없으나 내수동 예배당에서 주한 미군 그리스도인 들이 매주 몇 차례씩 차례로 중, 고등학생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들은 복무하는 동안 충실히 와서 가르쳤으며 년한 이 돼서 귀국하게 되면 꼭 그 후임으로 미군들을 소개 해 주게 되었다. 그들 가르침에 못지않게 한국 학생들도 영어를 통해 성경을 배우게 될때 그곳 교회의 전도자로 봉사하고 계시던 박선흠 주선으로 이흥식, 동충모, 최수열 씨등 여러분이 차츰 차츰 자리를 잡아 야간으로 성경학교를 마련하여 몇몇의 청년들에게 성서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 때 학생수는 5, 6명으로 김재환, 이용, 조희순, 공삼열, 김세복, 등이 배우고 있을때 좀더 본격적인



(K.C.C. 본관)

교육을 실시하자는 뜻이 일치되어 1958년 4월 1일 효창동 선교사 주택으로 학교를 옮기고 1958년 4월 19일“한국 신학원”을 창설하였다.

이에 앞서 홀튼 선교사와 그의 부인과 멜바자매는 1957년 4월 11일에 워싱턴 교회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순회 하면서 각 교역자 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으며 효창동 사택과 예배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쳐 수많은 청년들이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때 홀튼 선교사는 한번 설교에 약 30명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이야말로 선교에 알맞는 곳으로 매우 발전 할수 있는 가능성과 신약교회로 이룩될 곳이다.”라고 격찬했다.

(“The mission has a wonderful place of propsesty in the very heast of Seoul. This can be developed in to a very aeaccitful and useful place for the New Testament church”) 홀튼 선교사 부부와 멜바양이 워싱턴 교회에 보고차 본국에 1958년 7월 18일에 들어가게 되니 자연적으로 신학원의 운영은 최수열 선교사가 원장을 대행했으며 내수동 성경학교가 효창동으로 옮겨지고 효창동 성경반이 합치된 것이 바로 앞에 말한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신학교의 발전에 첫 발걸음이 되었다.

초대원장으로 홀튼 선교사가 되었고 부원장으로 최수열 선교사와 동충모



[1960년 9월 10일 홀튼부처와 멜바 몇 버턴(간호부) 내한환영(김포공항)] 학생과장에는 박선흥, 일반사무관리 박규현 교무담당케 전환 선생등이 업무를 맡고 학생수 약 25명으로 동년 4월 21일 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 교직원 회의에서 신학원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도중에 굳게 의결했다. “한국이 필요로하는 사회사업가와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전도자를 양성할 것이다”라고 결단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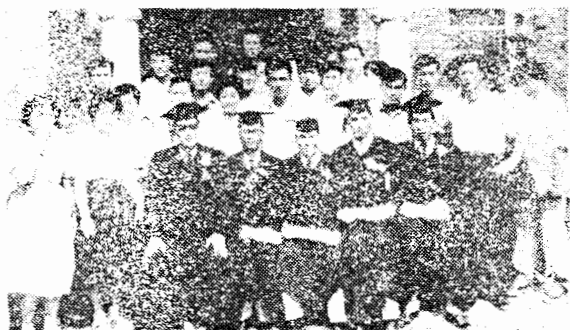
그후 미국 테네시주 데이빗 립스킵 대학을 졸업하고 곧 결혼해 1958년 7월에 나온 다니엘 씨. 하딘 (Daniel C. Hardin) 선교사가 학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부인은 교육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1958. 4. 19. 한국 신학원 창립일)

최수열 선교사는 원래 성격도 활동적인데 원장직에 임하면서 다각적인 선교사업 및 사회사업에 치중해 열렬히 일을 하게 될 때 그의 능력있는 지도력에 학교와 교회가 급진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의 웅변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워 한 번 외침에 한국 군인 교회에서 군인 약 백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다. (황복연씨와 일할 때 그분의 말)

그뿐 아니라 최수열 선교사는 의정부 근처 미군 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좋은 친구 이철선 (William A. Richardson) 중위를 만나게 되어 복음을 같이 전하자고 권면하여 이철선 형제가 1958년 8월 31일부로 이곳에서 현지 제대하고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고 이철선 형제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다.



(제 1 회 졸업생 1961년 8월)

이런 형태로 차츰 신학교가 발전을 보게 될 때 홀튼 부부와 멜바양이 한국을 재차 방문했으나 최수열 선교사와 의견 충돌과 사업분야에 성과



(김 기 순)

를 위해 서로 분리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홀튼 선교사는 교회와 교역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주장했으며 최수열 선교사는 사회사업을 통한 주님 사업을 주장해서 농업과 목장업을 하여 교회일군을 양성하되 영육으로 일하여 경제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했다.

두 선교사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겨 결국 신학교를 중심으로 최수열, 하등, 이철선 선교사 가족들이 효창동에서 나와 영등포구 상도동에 한국식 집을 얻어 이사하고 학교는 상도 1동 45번지 “직업 소년학교” 건물을

전세로 얻어 1961년 3월 3일 옮기게 되었다. 최수열 선교사는 본국의 여러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과 경제적 자금원조를 호소하여 1960년 11월에 파스티 선교사(Malcom E. Parsley)가 미국 텍사스주 에빌린 대학(Abilene Christian College, Texas)을 졸업하고 부인과 어린 딸과 같이 나와 상도동에 머무르면서 신학을 가르치게 되었으며 연이어서 빌 램지(William R. Ramsey) 선교사가 1961년 3월 하순경에 가족과 미국 텍사스 오토크릭 그리스도의 교회 휘스톤 이젤(Ezells) 장노와 같이 오게 되었는데 이젤장노는 건축업자로서 신학교 건물을 짓기위해 잠깐 부인과 같이 방문코 귀국 했다.



(하 등)

한편 재정전인 문제도 최수열 선교사와 주한 선교사들의 호소와 이젤장노의 노력으로 상당한 금액이 모금이 되어 경기도 길포군 양동면 등촌(현주소 영등포구 등촌동 산 61번지)에 일야 6만 4천평을 김기순, 박규현, 김은초등 여러분의 협력으로 당시 시세로 평당 50만원 주고 1960년 3월경에 구입하여 일단 일야를 주택지로 깎아 선교사집 4동을 각집을 천만원쯤 들여 현대식 건물 이층으로 짓고 뒷층에는 선교사가 살고 밑에 층에는 지하실에서 신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들어 1961년 11월 3일 현지로 학교를 옮기었다.

그후 꾸준한 노력으로 1963년 2월 28일에 신학교 건물 약 200평으로 이층벽돌로 강당, 도서관, 사무실, 교실등을 아담하게 짓고 따라서 여자 기숙사를 口자형으로 지어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으로 짓고 학교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1963년 8월 28일에 인가를 얻게 되었으며 자연히 이사진이 구성이 되었다.

이사장에 김기순씨 이사로 김득환, 이채화, 신상만, 이지호, 조연배, 최



(Frark Hsu 형제의 송별식)

수열, 하등, 이철선씨 가되었고 감사에는 파스리, 빌 램지와 최수열 선교사의 사위로 목장 경영자인 알렌(Sidney N. Allen) 선교사로 구성 되었다. 그러나 1967-8년사이에 재단 이사들과 학교에 선교사들 사이에 재산문제로 소송이 걸리어 법정에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본책에 기록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문세도 이사전이 재구성되어 감태권씨가 이사장이 되었다. (1966년 3월10일 발행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안내 p.35참조)에 의하면



(동 중 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학교

제1장 목적과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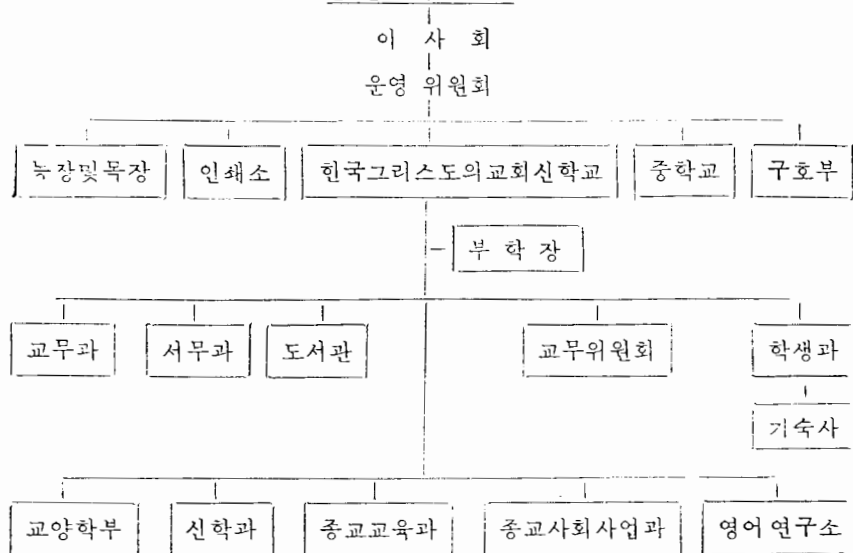
“제 1 조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의 계명에 임작하여 국가 사회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학술에 관하여 심오한 이론과 광범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전진한 사상을 함양하여 유위한 동량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8년 8월 제 4 회 국제 청소년 하기 수양회(강원 강촌)

이에 준하여 신학교 행정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행 정 기 구 표



행 정 부

학 장 : 하등 Danil C. Hardin

부 학 장 : 이 채 화

교무과장 : 신 상 만

학생과장 : 이 재 만

서무과장 : 김 득 환

신학과 주임 : Malcolm E. Parsley

종교 교육학과주임 : Joycex F. Hardin

종교 사회사업학과주임 :

교양 학부 부장 : William A. Richardson (이철선)

비 서 : 박 춘 자

경리계 제원 : 송 동 수

능강및 목장장 : Sidney N. Allen

부속 중학교 교장 : 이 채 화

대학인쇄소 고문 : William A. Richardson (이철선)



(박 규 현)

부속 구호부장 : Sidney N. Allen

Case Worker : 이 조 자

여학생 기숙사 사감 : 이 현 남

남학생 기숙사 사감 :

<위 기구프는 1966년 3월 10일 발행 K.C.C. 안내 참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운영 위원장 : L. Haskell Chesshir <최수열>

위 원 : Sidney N Allen

이 채 화

Daniel C. Hardin

김 득 환

Malcolm E Parsley, William R. Ramsay

William A. Richardson

신 상 단

이상이 학교 운영 위원들이었다.

한편 해마다 전국적으로 모여든 학생 수는 매학기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
의 결실로 제 1회 졸업생 5명을 1961년 7월 17일에 배출케 되었다.

종교학과 백태현은 상도등 그리스도의 교회로 첫발을 복음 사업에 종사
하게 되었다가 다시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양벌리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병찬 전도자 후임으로 가족과 같이 내려가게 되었고, 사회사업과를 공부
한 김득환은 박규현 선생이 도미유학을 하게 됨으로 그 후임으로 신학교 재
무를 맡아 보게 되었고, 신상단은 교무과 사회 사업학과에서 일하게 되었고
임준섭은 알렌 선교사와 같이 농장과 목축 사업을 같이 돕게 되었으며 교육
학을 공부한 이지호는 효창동에 세신 홀톤 선교사와 그곳 고등공민학교에서
일을 보다가 현재도미 유학중에 있다.

이런 형태로 1962년 7월 25일에 제 2회 졸업생으로 민경애, 김신자, 들
배출하게 되었고 1963년 7월에 다시 제 3회로 2명을, 1964년 2월 23일에
제 4회로 6명을 1965년 2월 23일에 제 5회로 6명을, 1966년 2월 13일에
제 6회에 9명을 1967년 2월 9일에 제 7회로 9명을 배출하고 68년도 제
8회 졸업생 12명을 졸업시키고 1969년 2월 1일에 졸업식을 갖게 되었다.

차츰 발전을 보게된 신학교는 매년 매학기 수많은 남녀 청년들이 높은 사
명의 뜻을 품고 모여 들기 시작했으므로 외국에서 까지 유학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대만에서 후랭쉬(Frank Hsu)가 와서 공부를 마치고 같이 공부
하던 송효실양과 결혼하고 고향인 대만으로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태국

의 석빈첸본(Subin Panbcon)도 공부를 마치고 같이 공부하던 김인규와 결혼하고 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그의 싱가포르에서온 에디 이(Eddy Ee)는 졸업후 본국에 가서 성경과목을 대학에 가서 가르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온 데이빗은 미국으로 더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다. 신학교 설립후 10년만에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각 사회단체 및 교계와 외국 유학의 길을 마련해 보다 광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 이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50명의 동문들은 보다 나은 모교 발전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포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일치 단결해서 일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1965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불광동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에서 제 1회 캠프를 당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부학장으로 계시던 이재화 선생을 단장으로 교사 20명 청소년 50명의 단락한 식구



(김 태 권)의 모임을 가졌으며 제 2회는 1966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본에게신 임명남 <Akio Lim> 전도자를 모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의 말씀으로 즐거운 캠프를 전회와 같은 장소에서 했다.

제 3회는 1967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제 1회 졸업생이며 모교 서무과장이신 김득환 선생을 단장으로 교사 15명 청소년 49명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거행 하였다.

특히 1968년 8월 5일 부터 10일까지 강원도 강촌 강변에서 제 4회를 김세복 전도자를 단장으로 중국 태창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이며 모교 동문인 취랭크슈(Frank Hsu) 전도자를 주재 강사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청소년 약 160여명이 모여 화려한 국제 캠프를 하게 되었다. 이 모임을 위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사진 교수 동문 전체 학생들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들 및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지호, 김창순, 김병수, 이현남 등의 동문들이 불철 집적 도움으로 빛나는 말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한편 동문회 사업중에서 신학과를 전공하고 일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문들이 얼마의 장학금을 꾸준히 모아 후배 양성에 보탬과 용기는 복돋아 주고 있다.

오래전 부터 이 문제를 계획중이다가 박병수, 최일용, 임창호 동문의 결단적인 용기의 추진으로 1967년 제 1회 장학금을 이순훈 신학과 4년군에게 전달 했으며 68년도엔 신학과 3년이며 인천 주안교회 교역자인 신상수 군에게 전달 하였고 1969년도 학기에도 제 3회 장학금을 전달계획으로 꾸준

히 모금 중에 있다.

다시 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8년 4월 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6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선교사와 교
역자 등이 그리스도의교회 전도자 양성계획

1958년 4월 19일 : 학생 15명을 모집 한국 기독교 학원을 설립 개교와 함께
A R 홀튼 선교사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 1958년 5월 3일 : 본 학원에 신학
과 종교 사회사업과, 종교 교육과를 둘 A.R 홀튼 원장의 귀국으로 원리암
에이 이철선 선교사가 2대 원장으로 취임

1959년 2월 23일 : 한국 기독교 학원을 한국 기독교 대학으로 개칭

1959년 5월 : 3대 학장에 해스켈 최수열 선교사가 취임

1960년 3월 :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현 등촌동 산 61>에 교지 64,000여
평을 매수

1960년 4월 : 한국 기독교 대학 농장을 설립

1960년 9월 :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임시 교사로 이전

1961년 7월 15일 : 제 1회 졸업생 5명을 냄

1961년 11월 3일 : 현 교지 등촌동 산 61번지 교사로 옮김

1962년 7월 15일 : 제 2회 졸업생 2명을 냄

1963년 8월 23일 : 학교법인 김포그리스도의교회를 설립 학교명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개칭

1964년 2월 23일 : 제 3회 졸업생 2명을 냄

1964년 6월 18일 : 제단직당 농장및 목장설립

1965년 2월 5일 : 학교법인 김포 그리스도의교회 설립인가를 문교부로
부터 취득 초대 이사장에 김기순 씨가 취임

1965년 2월 23일 : 제 4회 졸업생 6명을 냄

1966년 2월 : 문교부 각종학교령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명칭
하에 인가를 얻고 초대교장에 하동 선교사가 취임

1966년 2월 23일 : 제 5회 졸업생 6명을 냄

1967년 2월 13일 : 제 6회 졸업생 9명을 냄

1967년 11월 4일 : 제 2대 교장에 이철선 선교사 취임

1968년 2월 9일 : 제 7회 졸업생 8명을 냄

1998년 12월 : 제 2대 이사장에 김태권형제 취임

1969년 2월 1일 : 제 8회 졸업생 12명을 냄으로써
총 50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게 됨

1969년 4월 19일 제11주년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게 됨 <참조 : 69년4.
개교기념행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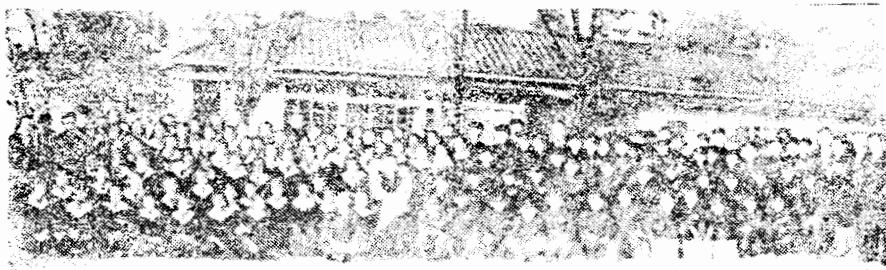
2. 효창 고등 공민학교

<서울 용산구 효창동 6>



1960년도에 이르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느 정도 활발한 발전과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부흥일로에 있을때 효창동 6번지에서 각 가지의 사회봉사 활동을 중점으로 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교인들의 가정의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과 학비 조달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는 어린학생들을 가르쳐 올바른 사회인으로 단들어 보자는 뜻에서 초대교장을 A. R 홀튼 선교사를 모(배 어 드) 시고 박규현, 유근수, 박인규, 이지호, 김광철, 임학순, 손경래, 신성종 등 여러 선생님들이 1961년 4월 17일에 “효창 성경학교”로 1학년 야간 1학급 43명으로 개강 하게 되었다.

1962년 3월 2일에 다시 1학년 50여명과 1963년 3월 3일에 1학년 60명을 모아 가르치게 될때 홀튼씨의 귀국으로 그의 후임으로 1967년 9월 24일 제 2대 교장으로 오. 피 베이득 선교사가 취임되었다.



(효창 고등 공민학교 학생과 교직원)

다시 1964년 1월 31일에 서울 특별시 교육 위원회로 부터 “효창 고등 공민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고 주야간 각 1학급씩 증설 하게 되었다.

1964년 2월 24일 “효창 성경 학교” 제 1회 졸업생 55명을 배출하게 되었다.

1966년 7월 13일에 다시 제 3대 교장으로 단 디트릭 선교사가 취임하게 되었다가 1969년 2월 273명의 졸업생 수만 남긴채 그만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도 헛되이 폐교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이유는 돌연한 이사회의 의결로 학교법인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계속해 학교교육을 전담하고, 종교 법인체인 효창동의 재단 법인은 교회및 사회복지사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 분감으로 결국 폐교하게 되었다.

3. 등촌 고등 공민학교

등촌그리스도의교회 중등부 학생중에서 국민학교는 졸업은 하였지만 가정형편이 빈곤한 학생이 많은 것을 최수열선교사가 보고 김형찬, 유재원, 김득환, 신상만, 선생님들에게 지시하여 무료로 70명을 모집하여 1962년 1월 22일 개교하게 되었다.



1963년 3월 4일 60명을 다시 추가 모집 하였으나 교실이 없어 신학교에서 경영하는 의료실에서 공부를 시키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단결의 노력으로 64년 1월 현재교사 2, 3년 교실을 신축하게 되었고 64년

(유 재 원) 3월 8일에 다시 62명을 모집하여 1, 2, 3학년에 정상적인 3학급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1965년 2월 12일에 30명을 배출하게 되어 현재까지 113명을 진학 또는 사회인으로 내 보내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155명의 남더 학생들이 유재원 교장을 비롯하여 10여명 선생님들의 피나는 수고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등촌 고등 공민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등촌동 산 37-6번지에 위치 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부설 등촌 고등 공민학교로 남녀 공학의 인문 학교로서 재학생 159명과 20명의 교사가 종사하고 있다.

그후 1963년 9월 초대교장에 신학교 부학장이신 이재화 선생님이 교장으로 취임하시었고 1965년 2월 12일 명예스러운 졸업생 남녀 24명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어 1966년 2월 제 2회 졸업식을 갖은 바 해마다 50여명의 일꾼들이 배출되고 있다.

등촌 고등공민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등촌 고등공민학교는 주로 가정 형편상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앞날의 희망과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박애 정신을 주로하여 정직하고 모든 일에 협동하며 근면한 학생을 양성 하므로서 이웃을 돕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현명한 생산인이 될 수 있는 학생으로 지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본교는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신학교 교육과 학생들에게 교생 실습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므로 명실공히 이론과 실천을 겸한 교육을 함에 손색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내 걸고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K. C. C 부속등촌 고등공민학교 졸업식)

“정직하자” “협동하자” “근면하자”

앞의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며 실천하는 학생을 만드는데 선생님의 노력을 한빈더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참조 : 1966년 3월 10 K.C.C안내 p.58>

이 학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것은 유재원 선생의 노고가 숨어 있으며 유선생님의 노력의 결과가 곧 나타난 것이다.

4. 금성 고등 공민 학교

(인천시 북구 청천동 105번지)

인천시 북구 청천동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고 있던 김명주 전도자는 어느 누구보다 애국적 정신으로 봉사하는 중 늘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방황하는 불우한 소년 소녀들의 앞날을 염려하다가 그들에게 광명한 내일을 보여 주워야 했다고 생각하고 간곡한 호소와 설교를 청천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에게 하게 될때 성령의 감동으로 온 교인들이 호응 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장기상, 명태진, 임춘자, 안부화, 구명섭, 김명진 등 여러분들은 자기들의 사재를 털어 바치게 되었으며 산옥동 동회장 장천수씨는 동리 공회당을 사용토록 허락해 주워 1965년 3월 5일 학생 35명을 모아 7명의 선생님들로 고등공민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교육 사업이 될 이 학교는 돈 재정적 뒷바침으로 애로에 닥치게 되었다. 그래서 “가발”이나 “조화” 등을 봉사해서 교육비(운영비)를 충당 해보았으나 실패하는 모습을 미군 노무처 교육과제 계신 최원철씨께서 보시고 65년 1월 부터 매달 6천원씩 “부지장학회장” 명의로 보조를 받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주선으로 미군과 학생과 자매 형식으로 맺어 고정된 운영비를 얻어 정상수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학생들은 등교시에 돌과 패품을 수집케 하여 차근차근 건물확보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힘쓴 결과로 대지 2500평에 교실 5개로서 120여명의 학생들이 12명의 선생님의 밑에서 과거의 배고픔과 고달픔의 생활을 청산하고 앞으로 광명을 찾자 열심으로 공부할 하여 이미 25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다

지나온 쓰라린 경험을 어머니의 교훈 삼아 앞으로 도서관, 체육관, 실습장을 건립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교장 김명주 전도자와 선생님들은 단결 노력 할것을 다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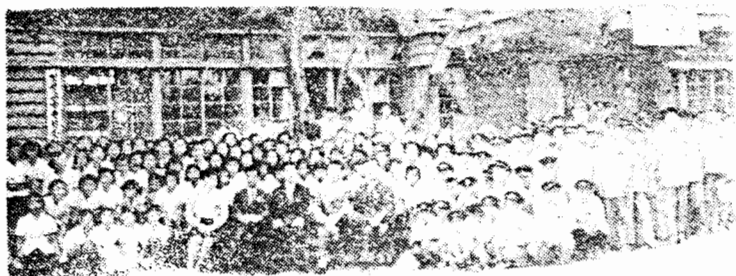
5. 명성 고등 공민 학교

(경북 칠곡군 왜관읍)

명성 고등 공민학교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4회> 고길상 전도자가 깊은 뜻이 있어 낯설은 경북 칠곡군 왜관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불우한 학생들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해 호롱불을 켜 놓고 저녁마다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 강직함과 열정적인 고길상 전도자의 모습을 서울에 있는 최수열 선교사가 보고 물적 심적으로 돕게 되어 1966년 4월 15일에 활발한 교육을 개시 하게 되었다.

1969년도 2월 졸업을 포함 55명의 졸업생을 배양시켰으며 현재도 3학급에서 180여명의 향학 열에 불타는 마음으로 성경을 비롯 일반교육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예배시간이 그들에게 많은 영양을 주워 앞으로 좋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과랑새 합창단”을 만들어 이웃교회 및 미군교회에 나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 교육 사업과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사업에 너무 무거운 애로가 고길상



교장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곳은 오랜 전통적인 천주교회 교장이며 그곳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너무 빈곤하여 교육비 협조에 애로를 주고 있으며, 학교 대지와 건물을 전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새로운 교사 정착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학교의 “내일은 내가 스스로 하자”는 교훈과 같이 근면과 노력과 성실한 고길상 교장 및 몇명의 선생님들의 수고의 결과도 길이 번창할 것을 확신한다.

6. 성광 성경 구락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번지)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현 위치에 건립된후 주위의 빈곤의 환경을 피부로 느끼면서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산재하여 있는 주위의 가정들이 그 생활 환경이 불우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치 못하는 청소년 들이 가정에 머물다 보니 자연 악순환의 사회조류에 휩쓸려 불량아로 변하는 것을 보아 왔으며 이들도 정상적인 교육 나아가서 참다운 종교 교육을 받아 능히 옳은 길에 서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오면서 부더 학교 설립의 꿈을 몇몇 뜻있는 분들이 품어 왔지만 교회의 형편상 뜻을 실현에 옮기지 못하여 안타가운 마음으로 날들을 보냈다.

그러던중 1967년 12월경 부터 일이 급박함을 절감하게 되여 당시의 청량리 교회 제직이시던 허관, 이춘원, 김학등의 여러분 들의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김상수, 전용찬, 이용, 형제등이 실무진을 통하여 구성하여 학생 20명으로 1968년 3월 5일 부터 개교를 하였으나 여러가지 운영문제로 고통을 당하였으나 몇분의 후원자 들과 김상수 교장 전용찬 교감과 교무에 이용 서무에 동석기 선생님들의 지도력으로 부단히 이끌고 나가게 되었으며 현재 주야간 4개 학급에 100여명의 학생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일반 교육을 받고 있다.

7. 화곡 유치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영등포구 등촌동으로 약 6만 4천여평의 임야를 매입해서 이사를 하고 교육 사업을 활발히 할때 정부시책에 의해 신학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화곡동 단지를 설정하고 수많은 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서 삼시간에 큰 도시로 발전을 보게되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사업에는 들도 없는 기회였다.

그래서 복음전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치원교육을 통해 신교책을 구상하고 시드니 알렌 선교사가 그의 장인 최수열 선교사와 같이 신학교 법인 김포 그리스도의교회 토지중 화곡동 24의 260 대지 915평을 대어 받고 이곳에 현대식 건물 120평을 짓고 화곡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겸 유치원을 1967년 1월 1일 교회부설 기관으로 설립하고 당 교회 신성종 전도자를 원장으로 5명의 교사로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 함으로 제 1회 졸업생 61명을

배출하게 되니 그 근방에 수 많은 높은 지식층의 자녀들이 모여 들어 뜻대로 유치원 사업이 발전을 보게 되니 자연히 교회에도 덕이되며 복음전도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화북 유치원 원아의 자모들)

신성종 지도사가 학문에 전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 알칸소주 허딩 대학원으로 유학의 길을 걷게 되어 그 후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기준서 형제께서 교회 담임 전도자로 부임해 유치원 원장직도 맡게 되었다.

현재 50명의 아동들이 헌신선로로 완전히 구비된 유치원에서 마음껏 배우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다.

II. 문 서 사 업

1. 참 빛

처음에는 소규모적으로 동석기 전도자가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각 교회에 직접 연락하여 각면을 지도하던 것을 차츰 교회수와 전도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행동의 일원화와 교육자 교양 및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제와 교회소식을 원활히 보급 전달 시키기 위해 처음 1956년 동충모씨가 중심으로 박규현, 박선흠, 김윤식등과 같이 처음 “산돌”이라는 일면으로된 종교지를 발간하여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비매품으로 배부하게 된것이 시작이 되어 주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발간된 교리문서를 번역하여 급진적으로 각 교회에 보급시켜 각교인은 물론 교역자들로 하여금 읽게 하였다.

이때 대표적인 책으로는 “산돌” “예수여왕” “바른길” 등이었다.

이철선(William A. Richardson)과 박선흠씨가 더욱 힘을가해 실제적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인쇄기술에는 정홍구씨가 맡아 시작되었는데 이때에 뒤에서 적극 협조한 분들이 홀튼씨와 최수열씨였다.

1960년 6월에 실무자 회의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논하던중 다음에 세가지 문제를 생각했다.

1. 지방교회 교인들에게 이문서를 보편적으로 애독시킬 수 있게 할것과
2. 애독자들의 편리를 위해 제문서의 가격을 절반으로 할인시켜 줄것과
3. 좀더 좋은 인쇄기술로 출판하여 판매인들의 수를 증가하여 활발히 보급로를 개척하자는 데에 결의를 보았다.

그리고 이 문서활동의 목적을 다음 몇가지로 결정하여 그런 방향으로 질주 할것을 서로 다짐했다.

(1) 우리가 봉사하여 발간되는 이 문서들은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신자들의 영적성장을 위한것이며 그리스도인은 디모데후서 1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자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주입 격려 시킬 것이다.

(2) 그십자가의 군병으로 앞으로 도전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가치 있는 삶과 순교할 수 있는자가 될 수 있게 만들고 교회가 목격하는 바 독프를 향해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3) 신앙의 목적하는바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영적인 발전과 신앙 생활의 지속을 계속시켜 줄 것이다.



(이 철 선)

(4). 교리에 대한 옳은 평가로서 성서에 가르침을 연구하여 비진리에 대해 배격할줄 알고 진리를 타인에게 가르칠 수 있게 단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해 다른 어떤 인간의 지혜와 학문이나 교리를 만들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인 성서만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가르쳐 그를 마을속에 항상 굳은 신앙심으로 나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내에서 생활할 것을 시작시켜

줄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때부터 주한 미군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이 제정의 뒷받침과 효창동 그리스도의 교회 박규현 전도자와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 박선희 전도자와 북아현동 그리스도의 교회 이영진 전도자등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발전을 보게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월간지를 내게 되었다가 1954년 8월부터 제 1913, 4-1 6097호 (1964년 11월 24일 등록) “참빛”으로 변경하여 월간지를 내게되었다.

실무 담당에는 이철선씨의 고문으로 인쇄기술에는 정홍구, 편집에는 이영진, 지홍구가 일하게 되었다. 1967년 8월 부터는 KCC 제 6 회 졸업생인 최일용씨가 인쇄소 대표로 문서사업의 중책을 맡아 왔다.

지홍구씨가 이철선씨의 개인비서로서 일을 돌보고 그일을 이호열씨가 다시 맡았다가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로 가게 되어 그 편집 관계와 의무사무 관계를 기준서씨가 다시 맡아보게 되었다.

참빛은 매달 각 교회 소식으로 각 지방교회 소식으로 유일한 신문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교리적인 면도 깊이 기술되어 많은 영향으로 교계에 참빛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한편 참빛지는 성경통신 교육원 졸업생 명단집과 최일용씨의 「이 시련을 내가」라는 시집을 내는등 많은 획적인 사업도 관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참빛사」라는 출판사를 정식으로 문공부에 등록하여 많은 책을 출판하여 명실공히 문서사업에 손색이 없이 일해보고 있다. 여기서 출판된 책으로는 「성격적 교리」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반석위에서」등이며 그 외에도 주일공과를 비롯 많은 교재도 출판하였다.

2. 성경 통신 교육원



(빌·램지)

1961년 3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한국땅에 들어온 빌 램지(Bill Ramsey) 선교사는 한국인의 생활 실태나 국민성을 누구보다도 잘 터득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동란에 종군해 우리와 같이 격은 경험이 있었다. 그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심어서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문서 전도 기관으로 명칭은 성경통신강좌라 칭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복음의 달음을 듣기 원하는 수백만의 젊은 영들을 위해 1964년 7월 문서전도를 시작하였다.

초대에 김진규 형제를 총무로 교과 과정은 보통과로, 신, 구약을 통털어 알기쉽게 엮은 교재 30과와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을 아는길” 주일 학교 교재 등을 회원 추천서를 통하여 전국에 무료로 배부 하였다. 효과는 100%였다.

갈급했던 영혼들은 지체없이 이 달음을 받아드리 불과 5개월 간인 1964년 말까지 총 회원수가 10,000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1965년 5월 16일 빌·램지 선교사는 4년 마다 한번씩 본국에 들어가 1년 동안은 선교 보고차 순회를 갖는다.

이때 부터 오·피·베어드(O. P. Baird) 선교사가 빌·램지 선교사가 들어갈때 되므로 그 뒤를 이어 시작하게 되었다.

7월 22일~8월 20일 제 1차 전국 하기 순회 전도반을 조직하여 각 도별로 파송 하였다.

그동안 원 거리에서 서신으로만 접하던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신앙 상담 성경질문 특히 세례 문제에 있어서 직접 찾아가 손수 물로 인도 하여 침수 세례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도 교과 관념에 젖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세례는 약식 세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침수 세례를 받자고 권할때 주저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보다 지방에 심하고 성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지방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의존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것은 지방이 도시보다 성서적 지식이 희박하고 개례적 교과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하신 명령을 따라 예수의 제자들은 감자 바위에서부터 삼다도 지방까지 끌고루 순회하고 돌아왔다. 12월말 총 학생수는 27,591명 수료자 119명 세례자 96명이었다.

1936년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2차 전국순회 전도반을 조직하여 떠났다. 여름과는 달리 겨울에는 동상이 걸리면서 몇 십리를 걸어서 찾아갔다.

얼음을 깨고 세례를 주어야 한다. 눈속에서 방향을 잃고 몇 시간이고 헤매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개신장군처럼 돌아 올때는 참으로 주의 역군들이요 십자가 군병들이다.

8월 7일 드디어 빌·램지 선교사는 1년의 기한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 오며 환영객들로 김포 공항을 배웠다.

사무실을 K.C.C에서 램지 선교사택으로 이전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무료로 전국 학생들에게 허용하던 것을 입회금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을 통제했다. 12월말 총 학생수 38,822명 수료자 2562명 세례자 171명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1966년을 넘기게 되었다.

1957년 1월 16일 제3차 전국 전도 여행을 파송, 많은 성과를 거두고 2월 29일 돌아왔다. 6월 9일 연구과 <사도행전>부가 전13과 중 5과까지 인쇄 완료되어 발송시작 하며 7월 15일 보통과 30과를 15과로 합본하여 편찬함과 동시에 카드 제도로 변경했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강릉경포대 해수욕장에서 그곳에 있는 교육원 학생들을 위해 수양회를 개최하고 조출한 모임을 갖게 되었다.

아침 성경반 저녁집회 한낮의 오락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주간에서 한형제 자매들이 즐길 수 있었다.

8일까지 카드 씨스템에서 대단위 까지 편휘 할수 있었던 것을 동리까지 카드를 재정리, 전국의 행정 구역을 가나다 순으로 일별 했다.

8월 28일 사무실을 김포공항 입구로 이전 9월 1일 “성경 통신 교육원”으로 이름을 개칭하고 해를 거듭 하면서 확고한 두각을 나타내고 전국의 학생들로 부터 열렬한 지지와 편달 밑에서 본격적인 성경 통신 교육원을 담당하게 되므로 그 명칭도 성경연구 통신 강좌에서 성경 통신 교육원으로 개칭하고 임무 수행도 대폭 확장되어 한편 보통과 연구과, 신학과, 세 과정으로 나누고 한편으로는 직접 방문 또는 초청 하여 성경 교육 신앙 상담을 위한 전

도부의 역할도 활발하여 졌다.

전도 여행은 각 지역별 전도와 교도소 전도, 특수 지역 중심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한 교도소는 전국을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 교도소는 매주 목요일 마다 성경공부 시간을 설정하여 직접 파견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12월 5일 연구과 <사도행전> 전13과가 드디어 완성되고 신학과 과정이 편찬, 진행 중 12월 말 총 누계에 의하면 보통과 42,878명 연구과 1,278명 수료자 5,416명 세례자 290명 이었다.

1968년 1월 13일—23일 “제 1회 동계 대학”을 개최 10일 동안에 무려 100여시간의 강의와 훈련으로 실력이 완성될까 만은 그래도 신학교 교과 과정의 핵심을 전부 밟게 되었다.

18세의 홍안의 소년 학생으로 부터 60세의 전도자 학생들로 22명중 21명이 수료의 영광을 찾아 하고 각각 본 고장으로 내려가 순수한 비교파적인 운동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동계 대학 수료생인 함영도 형제는 20여년의 장로교회의 전통을 갓인 전북 무안군에 있는 우동교회를 신약교회로 환원하여 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성공하여 현재 담임 교역자로 시무하고 있고, 오봉식 형제는 강원도 홍천 서면에서 서면 교회당을 짓느라고 수고 하고 있다. 최재철 형제는 강원도 근처인 서검도에서 또한 현재길 형제는 수원 상두리에서 오직 신약교회로 환원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오래동안 학생들이 염원했던 뱃지가 나왔다. 2월 1일 오랜동안의 전통 끝에 성경 교육이란 신문 제1호가 탄생 하였다. 당분간 격 월간으로 서서히 출발, 당년 부터는 월간에서 주간으로 까지 꿈꾸고 있다. “조출한 자축회”를 갖는다. 계속 15일 계속 제 2호가 발간 6월 20일 3호 발간 되었으며,

6월 연구교재로서 “예수의 생애” 출간, 그리스도의 일생 출간, 금년에는 단단위 학생수 확장하는 해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 고루 고루 학생들을 확장하고 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 2회 하기 수양회 개최를 번산 해수욕장에서 바다와 모래와 하늘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 교육원에서는 작년 8월 경포대에서 제 1회 수양회를 가진 이래 연례 행사로 또다시 제 2회 수양회를 가진 것이다. 각각 떨어져 있는 학생들 간의 친목과 심신 단련을 목적으로한 이모임은 전도부에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전라도 일원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들고 환원의 가치를 올렸다.

즉 8월 12일 전국으로 부터 모여든 학생 36명과 우동교인 30명 본 교육

원 직원 강사들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을 즐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다.

본 교육원에서 원장 빌·랜지, 전도부장 정희전, 총무부장 임창호, 전도 부원이 참석하고 강사로 부산 중앙 교회 김재환 전도자를 비롯 춘천교회 이호열 서울 안산교회 박병후, 내수동 교회 함명철 전도자가 강사진으로 팀웍이 되어 봉사 하게 되었고 효창동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부 진료소에서는 의로 봉사를 맡았다.

12일 하오 6시 개회식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정희전 전도부장의 대회 취지문 낭독 임창호 총무의 성경 통신 교육원 연혁 소개로 개회식을 마친 다음 곧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 갔다. 각자 위치에 지정된 짐을 푼 다음 자유 시간을 갖고 8시 부터 저녁 집회가 있었다.

매일 일과표를 보면 오전 6시 기상 기도회 6시 30~8시 식사시간 8-8시 30분 일과 준비 8시 30-10시 성경공부 시간 10시 30분 11시 30분 12시 까지 음악 교양 상담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 1시-1시 30분 수영 오락 1시 30분부터 3시 30분 특기 운동회 백일장 웅변대회 3시 30분-4시 자유시간 5시-6시 저녁식사 7시 8시 자유활동 및 상담 8시-9시 저녁 집회 신앙 간증 등으로 하루의 일과를 배정 하였다.

이리하여 하루 하루를 즐겁고 다채로운 시간으로 보내고 저녁 집회에는 많은 인근 휴양객이 물려와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었다. 금번 하기 수양회에서는 4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앞으로 나와 새 자녀가 되었다.

또한 이번 수양회의 특별프로로 웅변 대회에서 정기복 학생, 백일장에서 성호영 학생이 1위를 각각 차지 하였다.

본 교육원에서 전도부장 정희전 형제와 김송형제가 68년 6월 19일 마산 교도소 이창도 소장의 초대로 당소내 기독교 통신교육 종합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 종합 수료식은 마산 교도소 이창도 소장이하 이상춘 교무과장을 비롯해 전직원과 200명의 재소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 되었다.

이 식장에서 정희전 전도부장은 여러분은 출소(출감) 일자단을 기대하며 그날이 오면 재생의 지름길에 들어 서리라는 부풀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출소의 영광에 앞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변화 시키려는 간절한 마음의 깃점이 금선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 드리는 그 순간이 영광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새생명의 전환점에 이르는 뜻깊은 날임을 일어야 할 것 이라는 이설교사 끝난후 16명이 세례 받기로 결심했고 수료증 수여후 이창도 소장님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에서 이곳까지 특별히 찾아와 주신 성경 통신 교육원의 두분과 시내 교회에서 당소를 방문해 주신 교

우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분이 받은 수료증이 무가치한 종이 쪽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성어린 노력의 댓가임을 알아 소내에서 뿐만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다시금 법을 어기고 그늘진 곳을 찾아 들지 않는 새 생활의 증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아래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각오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라고 강조했다. 감회 길은 격려사가 끝난후 시내 중앙 감리교회 박용하 목사와 이창우 장로를 비롯해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정성껏 준비 해온 다과회가 있었고 이날 수료식은 성대히 거행되었다.

수료식을 마친후 16명의 세례 결심자는 준비된 세례장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 획기적인 전환점에서 내일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는 참심한 다짐이 마음속에서 익어감을 볼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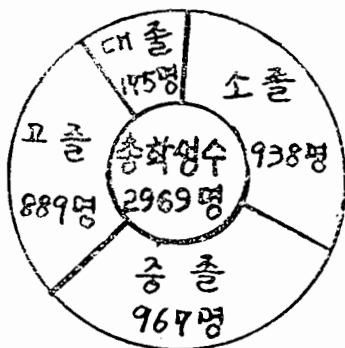
마산 교도소는 전국에서 모범이 될만한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수원 교도소에서는 월례 교회기간을 설정하여 재소자들의 신앙 교양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교육원에서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여 밀접한 유대를 갖고 본 통신 교제를 발송 지원해 오던중 7월초 재소자중 11명이 세례받기를 원한다는 서신을 받고 즉시 본 교육원 정희진 전도 부장과 적도부원 김송 형제가 1968년 7월 4일 수원 교도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11명의 세례 희망자중 6명만이 희망 한다는 교도소 측의 말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계속된 예배 시간에 정희진 전도 부장은 “어떤 웃을 입을 것인가?” (마 22:1-14)라는 설교가 끝나고 곧이어 초청 찬송을 부른후 주앞으로 초청한 결과 6명 이던 것이 45명의 새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후 세례 받기를 결심한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좋은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날 예배후 세례식이 베풀어 졌다. 한편 성경 통신 교육원의 학생들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968년 11월 13일 현재 연구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조사 하기 위한 편리한 I. B. M. 시스템은 미국에서 도입하여 바늘 하나로 전 학생들의 도별 직업별 학력 남녀 번호등 무엇이든지 학생들의 인피메이션을 알고 싶은 때는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카드는 카드의 특징이 “해당 사항에 매라 잘 찢리워진 부분을 바늘 하나로 쪽 끼여내면 해당되는 사항을 손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보통 과를 걸쳐 연구과에 들거간 학생들의 수는 얼마나 되며 “그들

의 지적 수준 직업 도별을 그림표로 알아 보기로 하자. 현재 연구과를 공부하고 있는 총수는 2,969명 그중 남학생이 2355명에 반해 여학생이 614명으로 그중 4분의 1 밖에 안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 학력을 보면 그림.1에서 나타난 대로 가장 최위가 중학교 졸업자로 967명 33.3%를 차지하고 국민학교 졸업자가 938명으로 두 번째며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자가 889명으로 비슷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그림 1)

에 최고의 학업인 대학출신자가 175명으로 전체적인 한국의 지적 수준이 높아 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3년 전만 해도 가장 높은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자에 비해 중학교가 상위를 차지함은 다같이 경하 해야할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이것은 보통과와 달라서 보다 높은 수준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또한 직업을 보면 한국인의 직업에는 다양성이 적다. 고로 그림 2에서와 같이 11개 종목의 직업으로 집약하여 학생들의 직업을 개괄하여 보면 농업이 906명으로 1위를 달리고 2위가 학생 3위가 교도소 수감자 들이다.

이것은 전 인구에 비하여서는 소수에 불과한 수인들이라 하지만 우리의 안목으로 볼때는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장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본 교육원 정 전도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 위치로 가장 마음의 안식을 찾기 원하는 자도 그들이요 또 우리가 집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이점, 주기적인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반

직업	학생	직업	학생
1. 농업	906	7. 기술자	73
2. 학생	649	8. 공무원	32
3. 교도소	301	9. 교역자	31
4. 상인	149	10. 교사	29
5. 군인	121	11. 전문가	10
6. 노동	83	12. 무	535
			2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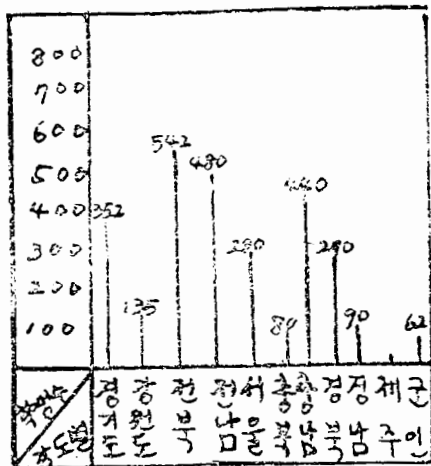
(그림 2)

던 전국에 산재 해 있는 개인 학생들에게는 일일이 개인 지도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연히 교도소에 치중하게 된다고 말씀 하신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역자가 31명으로 이 학생들은 여러 교파의 교역자들이다.

이들을 진밀히 교육하여 환원운동의 기수로 만들 수 도 있고 현지역에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큰 비중을 군인들로서 꽤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도별을 일별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전북 지방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가장 인구가 많은 경북 지방이 316명으로 5위이며 3위인 충남지방에 비해 충북지방이 9위로 단 80명 밖에 있는 것이 이삼차 익이다 전국 순회 전도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아도 충북지방이 가장 복음을 받아 드리려 하지 않고 아직도 옛 교유 사상이 남아서 인지 마 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복음을 받아 드리려 하지 않은 경향이 단 10명으로 매우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다같이 제주지방에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하며 한편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멀리 파월 장병들이 이와 못지 않게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림 3)

반하여 제주지방은 학생들이 적은 것이 유감이며 앞으로 동단위 까지 성경 교육을 시킬 각오를 갖고 일하련 수고 하시는 원장 빌렘지의 말씀을 들어 보면 “성경 통신 교육원을 투철한 이념으로 성공 시킨다”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우리와 희로 애락을 같이 하시는 분! 인정 많은 분 그러면서도 호남이시다.

“모든 한국 사람 다 예수 믿기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 잘 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연구 공부 하련 좋은 교인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하시는 원장님을 한국말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

또한 가장 기쁜것은 “성경 연구 공부하여 성경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기쁩니다”라고 답변 하시며 만민에 웃음을 지으신다. 한국 풍토에 자기를 심고 가꾸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썩은 한알의 밀알이 되려고 노력 하시는 분, 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약속 한다고 몸소 행하시므로 가르치시는 원장님은 한국의 성경교육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 주신 분이다. 매일 학생이 없는 면에 학생이 어떻게 늘어가고 있는가를 일일이 알아 보시며 한국말을 아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아가 될렐케 라고 계획과 실천을 다듬고 계신다. 한 학생이 공부하여 세례를 받기

까지는 많은 상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직접 만나기 위하여 불원 천리를 찾아 다니기가 힘들고 보니 아쉬움이 많다. 특히 세례식을 가질려던 자리를 마련해야 하므로 순회 집회 및 하기 수양회 같은 것을 가지신다고 자세히 설명도 해주신다.

또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동계 대학도 마련하고 신로 성경통설교육원 원장님을 많은 계획과 설계를 앞에 놓으시고도 태연하게 직원들에게 안건을 주신다. 누가 답을 수 없는 인자한 인정의 미소는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털어 놓고 신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인간의 사랑을 혼자 갖고 계신듯 1967년 8월에는 가난한 시골에서 세 쌍둥이를 낳고 산모가 죽었다는 딱한 사정을 일간지를 통해들은 원장님은 친히 차를 몰고 강원도 걸숙한 두메 산골까지 찾아가서 산후 5일된 세 쌍둥이를 안고 오셨으니 초인적인 미담의 주인공 이시기도 하다.



현재도 원장님은 우리를 닮은 피부의 한국 애가 자라고 있다.

가정에서는 8 식구의 가장이신데 위엄과 인자 함을 병용해서 생활화 한다고 기시 본 모든 사람들이 사모님을 부러워 한다. 또한 사모님을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 학생들을 놀랍게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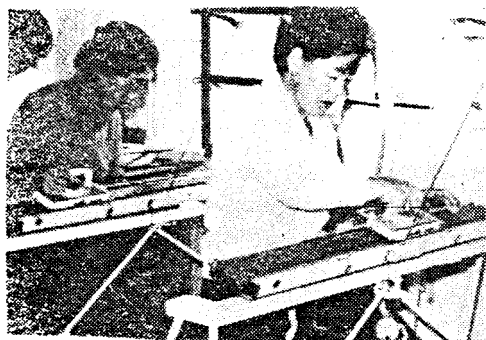
십여년 동안을 복음전파 하기도 힘든 데다 어느덧 (임 창 호) 경제가 균형을 잃으면 난처 할때도 있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이 없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원장님은 직원들에게 고무 적이시다.

한편 빌·렘지 원장의 사모님도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에 어린이 교육인 화국 유치원에서 영어공부도 가르치시며 어린이들을 좋아 하시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도 회화를 맡아 어려운 영어엔 한국말로 쉽게 가르치는 봉사자 이시다.

인자 하신 빌·렘지 선교사는 미국 하딘대학을 졸업 하신후 하딘 대학원에 제직을 둔바 있으시며 본국에서 교육자로 생활 하시다가 1960년에 한국에 나오신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감사 겸 학생과장으로 계시며 또한 효창동 그리스도의 교회 신교부 이사로 겸임 하시면서 하는 일에 두엇이든지 순신 수업을 잘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일꾼 이시다.

Ⅲ. 사회 사업

1. 성지 모자원



(편물 작업 광경)

1950년 6월 25일 황산군의 남침은 우리 민족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행의 날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고 남편과 형제를 전쟁터로 보내고 홀로 남아 어린 자녀들을 기르며 남편의 생사조차 모르고 고향산천을 떠나 방황하는 전쟁의 미망인들의 눈물과 한숨은 삼천리 강산을 배우고 있었으며 그들의 원망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실 뿐이었다.

수많은 피난민들의 물결이 북에서 남으로 밀려 내려 닦친 곳은 대구나 부산이었다. 세찬 부산 부두의 파도 물결과 바람만이 그들을 마지 할뿐 서로 생존 경쟁의 열에 사람 들들사이 없던때 그래도 사랑과 안식처를, 배고프고 추운 그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해 준 곳은 교회뿐이었다 당시 초당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과부나 고아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고향을 등진 초라하고 영양 실조로 파리해진 얼굴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끝치지 않은 그 모습을 이홍식, 김광수, 동충도, 임관평 박 경동 임프작님들과 제자들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굶주림과 너희가 먹을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미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 보았고 육에 간졌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너희가 어기 내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것이니라”(마태복음 25 : 35-40)는 성경 구절을 기억 하면서 1954년 7월 7일초당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이 헌금으로 산 천막 3개를 얻어 감천동에 가설하고 승리모자원(Victory Widous & Childrens Home)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미망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정부는 물론 먼 미국 형제들로부터 많은 물기의 도움을 받게 되어 어느 정도 운영에는 자장이 없게 될때 기독교 세계 사회에서 구호미로 일타미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냥 소비 하는 것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일부는 분배하고 일부는 팔아 예배당 미루물 전것을 수전동 그들 교회인의 교회 목사 김봉섭이 문제를 삼아 교회내 뿐만아니라 모자원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결국 모자원을 돕는 뜻에서 처음 시작한 보람없이 박경동 전도자는 모자원 사업을 그만두고 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1957년 3월 10일 전입하였고 그 모자원 미당인으로 보호를 받으며 심신의 고달픔을 모르고 모자원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던 김춘희 지매가 1956년 1월 15일부터 원장직 맡고 있었던 것이다.

1959년 10월 26일 A. R. 홀톤(Holton) 선교사의 소개로 미국 워싱턴 D. C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5,000불을 기증 받게 됨으로 현재의 위치인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301번지에 대지 1,501평을 매입하고 선교부의 재정과 각 구호 단체의 도움으로 1958년 11월 5일부터 1960년 3월 26일에 단층 아파트 형식으로 수용케 할 건물을 완성해서 60년 5월 5일 미당인다 그의 적체가죽 21세대(87명)를 입주시켰다. 그때부터 명칭을 “성지 모자원”으로 고쳤다

1961년 2월 18일 재단법인을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부에 병합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의 아동 복리법 규정에 의해 최종 2년을 수용하여 도움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복음전도에 크나큰 역할과 자립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21세대가 모자원을 통해 나왔는데 그들중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남들 못지 않게 충실히 하고 있다.

1965년대 개단 사경으로 김춘희 원장이 사임하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는 이기영 지매가 원장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 재단법인이사이며 선교사로 나오셨던 O. P. 베어드(Baird) 선교사의 추천으로 일을 보게 되었다.

이기영 자매는 전적인 교육사업의 체험과 재질로 시설확장과 원아들에게 철저한 복음전도를 실천함으로 많은 결실을 얻고 있다.

한편 수용 아동들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 선명회를 통해 외국인 양친이 정해져서 그들의 학비를 도움 받고 있으며 1966년 6월 31일에 선명회 주최로 열린 성경 암송대회서 본원의 수용아가 원종호 전자도님의 지도로 3등의 영광도 얻게 되었다.

현재의 운영은 국가의 약간의 보조와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부의 시선보조

와 신명회의 교육비로 충당하며 각 미망인들은 직장이나 행상을 하고 주일이면 모두 쉬고 성지동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듣고 고달픈 영육을 달래며 매일의 광명을 찾아 참고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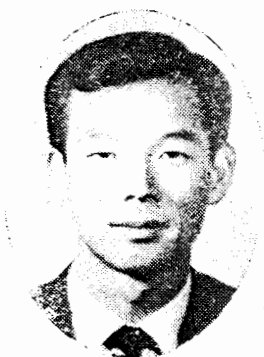


(1956년 12월 30일 승리 모자일 초창기)

김 춘희 원장 취임식(앞자리 안경쓰고 앉은 할머니 뒤에 서 계신 분이 김 춘희)



(O. P. 베이트씨와 이기형 원장)



2. 구 호 부

지난 1961년 상도동에서 김포로 옮긴후, 당시 김세복 형제와 김동성 형제가 같이 이 구호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이일을 한강 밑에 사는 빈한자를 대상으로하는 것으로 첫 일을 시작하게 된것이다.

그후 1961년 김포로 이사와 인쇄소가 건축된후 이철(김 효 기) 선 형제와 파쓰리씨는 공동으로 재정적 책임을 지고 그 건물에 들어갔으며 후문 쪽 빈방을 구호부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1965년 하딩 대학 학생들이 캠페인을 왔을때, 알던 학생이 모금 한것과 K.C.C 학생들과 Harding 대학생이 힘을 합해 흙벽돌을 만들어 오늘의 구호부 건물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 계획은 기능한한 구호 의류품과 쌀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후 1956년 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동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각리 하므로써 결국 신도가 되도록 하는데 힘쓰기 시작 했다.

1969년 현재 까지 구호부 총책임을 맡고 있는 김 효기 형제의 공로가 지대 하다고 본다. 좀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효기 형제는 외부진도에 힘쓰게 하고 다른 직원은 후방 건물 및 구호품 관리를 분담하게 되었다.

처음 7년건은 한사람의 영혼도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므로 인도 되지 않았으며 1965년이 되기까지는 이 방법에 아무런 노력도 시도 되지 않았다.

1967년 7월 부터 1969년 까지 134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계획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

지난해 통계란 보면, 77명의 수제지와 18658점의 의류 지출 882건의 구호 처리를 했다.

구호부의 설립 취지와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결과에서 여실히 수행 되었다.

- ① 구령사업 ③ 빈한자 돕기. ⑤ 그리스도의 교리 위에 영광을 짓어 온것.
- ② 경제적으로 도운것. ④ 종교적 및 사회적으로 봉사활동 할수 있는 일군을 기른것 등 이다.

3. 신학교 농장 및 목장



(다 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농장과 목장이 발족하는 1962년 최수열씨와 당시 예비역 장군인 강원도지사 박경원씨 간에 한국 낙농인을 위해 200두의 젖소를 기증 도입하기로 합의한데서 부터이다 이 합의아래 1963년 6월에 시드니 알랜 선교사, 고든틸 형제와 벤델컬터 형제에 의해 92두의 소가 한국에 도입 되었으며 알랜선교사는 계속 한국에 머물며 선교사업과 등 농장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이 사업을 도와 육성에 힘썼고 현재 김기호형제와 다른 여러 전임 농장 일꾼들과 함께 동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금 한국은 다른 자유세계 제국과 함께 자결및 자립을 위한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을 위해 한국 국민에게는 여러가지 형태의 도움이 주어졌다고 보지만 그중 가장 중차대한 것은 역시 한국 국민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독교적인 것이고 성경상으로는 구호적인 것이며 노동의 효험은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바 즉 성경말씀의 원리이다. 가축으로 이루어진 이 살아있는 선물은 요구자에게 단지 고기와 우유를 제공하는 것 뿐만아니고 이들의 책임감과 근면성을 배양시키게 하는 것이다.

본 농목장은 현재 학교 근처의 땅과 서울 동북방면 일산에 있는 홀트양자회의 경작지를 조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10명의 인원이 취업하고 있으며 기본두수 20마리의 성우를 가지고 있다. <1966년 3월 10일발행 K. C. C. 안내 p.55참조>

농목장 현황과 장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 C. C. 농장 입구에는 단순한 “우리의 목표”라는 간판이 서 있다. 이 문구 밑에 3개의 대 강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K. C. C. 농장활동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나 함을 낱알이 기억케하여 준다. 그 간판의 구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우리는 ①일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를 섬긴다.

② 이것을 자립하는 농장으로 만든다. ③ 힘을 다하여 이웃을 돕는다"라고

이 목표들이 오늘의 K.C.C. 농장의 초석이 되어있는 것이라 하겠다. 비록 그 목표를 최대한도로 달성할 수는 없다손 치드래도 이것은 이상적인 두개의 목표를 제시하여 준다. 다시 말하면 첫째 목표와 셋째 목표는 항상 개선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우리구주를 섬기느냐" 또는 "내 이웃을 돕느냐"하는 것은 제 2차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이 두가지 분야에 있어서 끊임없이 개선하여 나갈수 있으며 또 그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을진댄 그 최대한의 완수란 있을 수가 없다하겠다. 그러나 K.C.C. 농목장이 비록 그 구조에 완전하지 못하다손치드라도 어떤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번째로 적힌 목표에 대하여선 털어놓고 말하여 K.C.C. 농목장은 1968년에 이미 이 경제적 과제를 완수한 바이다. 그위에 자국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값으로 따져 60만원 이상되는 물질적 봉사를 하여 오고 있다. 이 두번째 목표는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변경하거나 확장하므로써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K.C.C. 농목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오늘의 목표를 명일에 적합한 목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오늘까지 K.C.C. 농장과 목장이 수행하여 오는 사업이라하면 앓은 자 및 가난한 자에 우유를 무상 배급하는 일 많은 것소 사육자들에게 혜택을 끼친 압소 공여사업, 봉사 원조사업 및 한국의 전체적 농업경제에 대한 기여, 그리고 또 거액의 현금을 학교와 교회건물을 세우는데 살포한 일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선하고 가치있는 사업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았을때도 많다. 그 과오는 공급한 물질적 봉사에 수반할 정신적 교훈을 적절히 공여하지 않았다는 곳에 있다. 그 당면의 결과로 사람들은 농장을 하나의 외국인 기관으로만 간주하고 소와 우유, 토지 및 땅 같은 재산은 존중하기보다는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므로 장애에는 K.C.C. 농장 목에서 일하는 우리는 정신적 가치를 더욱 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데 그와같은 정신적 혜택이라면 우리가 남을 섬기는데서 나타나는 동시에 또 실물교훈으로 공급될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하므로써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전히 영광 받고 또 정당한 존경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K.C.C. 농목장이 오늘까지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정당히

하고 있다.

농목장이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최선의 길은 농목장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의 운영을 뒷받침하게 하고 진실로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농목장으로 만드는 곳에 있다함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 재료는 그리스도인 교육에 이바지 하는데 사용되며 영적인 동시에 백성의 사회도덕적 규율과 성격을 이룩하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최종의 결실로 한국의 진정한 교육인을 만들어 내자는 것인데 그러한 교육인은 한국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장내를 개척하여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도 자립하는 한국민에 적합한 복음전파의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복음전파의 교회는 동일한 성격을 구비한 학교가 섬기게 되는 것이다 1968년에 K. C. C. 농장은 신령미와 외인의 관리라는 점만 잠시 도외시하던 여러 점에 있어 거의 “이상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신령미를 확고하고 유능한 한국인 경영진이 이룩된다면 그만큼 미소한 과거의 성공은 중대하여 영속적 혜택을 지닌 진정한 것으로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히브13:20-21)

이에 앞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효창동에 제단과 등촌동을 중심으로 하는재단이 그 산업분야에서 분리되면서 부터 효창동에는 A. R. 홀튼, O. P. 베어드, 단디트릭 등 선교사들의 뜻으로 직접적으로 교회와 교육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으나 일단 그곳에서 분리돼서 영등포 등촌동으로 이사하게된 최수열, 알렌, 하등, 램지, 파스리, 이철선 등의 선교사들은 기독교 교육사업과 한편 최수열 선교사의 사위인 알렌씨는 넓은 대지위에서 농장과 목장을 경영하여 한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며 전도를 해 보자는 의도에서 처음 목장사업을 1963년 92마리의 젖소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데스토 목장(Heifer project inc. of Modesto, California)으로 부터 인양받고 K. C. C. 본관 남서쪽 1천메타 지점에 목장을 짓고 한국인 임준섭, 김창순, 김기호 등과 같이 운영의 첫발을 걷게 되었다.

조절하지 못하였다손 치드래도 인제부터는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전력을 다

그들의 확고한 신념의 목표는 먼저 ① 하나님을 섬기시다. ② 자급자립 합시다. ③ 이웃을 도우시다. 이것은 성경 에베소서 6:7절에 있는 말씀에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라는 교훈을 엄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다.

그들이 얻은 이익은 목장운영회에서 결정하여 필요로하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어 많은 교회에 보조의 역할을 하여 간접적으로 주의 사업을 돕고 있는 유일하고 희망적인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1964—65년에 얻은 우유 20,000킬로그램(5,000 gallons)을 고아원과 결핵환자들에게 분배해 주었는데 값어치로 따지면 800,000원(\$2,057)의 상당금액을 봉사했다.

1964년에 다시 캘리포니아 목장에서 홀슈타인(Holstein) 젖소 20마리를 인수받게 되었는데 그 운임비 즉 캘리포니아에서 한국까지 운반비는 캘리포니아주 프리시노 담 앤렌누 그리스도의 교회(Dalm Avenue Church of Christ in Fresno, California)와 한국 정부가 부담하여 무사히 젖소들이 국내로 들어 오게 되었다.

확장되고 성장하는 이 목장 사업은 학교 근처에 적은 땅으로는 할 수 없어 1965년 경기도 일산에 있는 홀트 해외양자회 대지를 10년의 임대차계약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어 그곳에 우양간을 짓고 일부를 옮기게 되었다.

이때에 1965년 미군중위로 한국에 나왔던 벨선(Ronold. U. Nelson)형제가 본국가서 제대와 동시에 한국의 농사와 농장을 통한 선교사업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고 1965년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신학생 약 30여명이 나왓다가 다분한 한국겐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학생중에 데이빗 굴스비(David Goolsby)형제가 1966년 6월 28일 다시 한국에 나와 알렌 선교사를 중심으로 벨선 선교사 등이 같이 협동으로 일하게 되었다.



(작업광경)

그러나 확장되 가는 이목장 사업을 본국 교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계획과 모금을 위해서 1968년 5월 2일 알렌 선교사와 가족이 귀국하였다.

그보다 앞서 최수열 선교사 가족도 본국으로 가게 되었다.

1967년도에 이르러서는 보다 많은 재정적 뒷바침이 캘리포니아주 캠

캠벨·그리스도의 교회(Campbell Church of Christ California)의 도움으로 경기도 파주군에 농사와 목장을 위한 5만평의 대지를 사게 되어 그곳으로 일단 옮기게 되었고 미국 교회에 연보로 모금된 금액으로 4개의 중장비와 트랙터를 사게 되었다.

1968년에는 처음으로 들여온 젖소로부터 7,000kg(15,400 lbs) 우유를 얻으며 280kg(900 lbs)의 질이 아주 좋은 버터를 생산해 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내로 소규모의 목적과 발전일로에 들어선 이목장 사업은 앞으로 측면에서 교회를 돕고 많은 불우한 자들에게 양식과 일터를 주게 된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1. 실증적인 행동과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을 위한 봉사를 할 것이다.

2. 여기서 얻은 이익과 그 재산을 한국 그리스도 교회 신학교가 “내제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하는 귀한 목적에 사용 할 것이다.

3. 전진이고 과학적인 현대의 농경방법으로 기근과 질병과 빈곤의 한국을 복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Purpose of K.C.C. Farms

① To be of service to Korea and her people in such a manner that demonstrates christian teaching and principle in action.

② To be or beneficial and profitable asset of Korea Christian College in such a manner that helps “teach faithful man to teach other.”

③ To be a demonstration farm in the advanced and scientific techniques of modern agriculture in such a manner that helps conqueror, hunger, disease, and poverty in rural Korea.

(By. K.C.C. Farms Report. 1968 pp. 1—4)

4. 김포 진료소

김포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 진료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효창동 교회에 한 사업으로 진료소가 있었다.

1963년 알렌 선교사가 수의사 자격으로 한국에 나와 등촌동에 거주하며 목장을 중심으로 복음 사업을 하고 있을때 주위에 사람들이 알렌씨를 주로 “의사”라고 통칭 부르게 된것이 발단이 되었다. 비록 그가 배운것은 동물을 고치는 수위사지만 이때쯤 차차오는 극빈환자들을 위해 간단헌약을 주위 낮게 해주게 되니 차츰 소문이 퍼져 결국 진료소를 설립 하게되었다.

1965년에 약 2천불에 해당하는 진평약 14평자리 건물을 지어 진료소와 파설터 (Malcolm E. Parsley)씨가 하고있는 구호소와 같이 쓰기로 결정을 보았을때 미국에서 데빗(Darid Goolsby)의 35여명의 미국대학생들이 1965년 8월 11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봉사하러 한국에 나온 기회를 이용하여 3주에 걸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학생들과 같이 건물 기초를 만들게 되었다



(알렌씨 가족)

1966년 8월 6일에 현재 영등포구 등촌동 산 43번지 건물이 완성 되었다.

처음 단계로 한국인 의사에게 부탁하여 매주 2번 와서 진료소에 봉사 하기로 하고 매월 1만원의 봉급을 주웠다 그리고 간호부 강 정자에게 1만 6천원의 봉급을 지불하고 진문적으로 봉사 해줄것

을 부탁했다.

이렇게 차츰 발전을 보게되니 매일 약 15명의 환자가 이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2년이 지난 현재 약 14,000명의 환자가 나음을 받아 건강이 회복을 받게 되었다.

이곳에서 소요 되는 필요로 하는 약과 장비는 알렌 선교사와 김기호씨의 주선과 협력으로 미국 교인들의 아낌이 보내 주웠다.

그러나 차츰 지역사회 개발과 한국인의 경제 및 보건 생활의 향상됨과 많은 대소 병원이 영등포구에 생기게 됨으로 필요성이 없게 되어 1966년 진료 사업을 끝 내었다.

제 4 장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

1. 경남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경남 울산시 교동 306번지)



(동 주 급)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래는 강문석씨의 처가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방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강문석 형제가 별세하자 그의 장모되는 전란자매와 부인되시는 이 명신 자매의 가족과 같이 근근이 예배를 보아 오다가 해방후에는 박기도, 정인섭, 안우암, 함승규등 여러분들이 합세해 태화동에서 예배를 1·4후퇴까지 보다가 부산지구에 무악기와 성찬식으로 예배를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듣고 찾가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서울 종로구 필운동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수교하다 피난 내려 가신 성락소 목사님을 만나서 울산 태동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개하고 오셔서 집회를 부탁한 즉 이에 성목사님은 쾌히 승락 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셨으며 그 후 몇분의 협조로 태화동계 예배당 헌당식과 한형택 목사 취임식계 의외로 많은 목사님이 참석하게 되었고 부산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흥식 전도자와 신옥녀 자매가 착석하게 되었다 헌당식이 끝나고 걸란 자매를 알게되었으며 이 세분은 조속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다 못하게 되니 전란자매는 하루밤 댁에서 우스게 하면서까지 의논하던 끝에 성락소 목사 및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신약의 노선이 맞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고 자기 집에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보자고 간구 하면서 자기 사위 강 문석 형제는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말로 서로 은혜스럽게 기도와 찬미를 같이 하였다.

그 다음날 두분은 부산 영주동 교회에 급하게 내려와 급히 상의한 끝에 그때 영주동 교회 집사로 있으며 당신 재판소 서기로 계셨던 동주급 형제를 매주일 예배당 인도하기로 하고 파송하였다.

동주급 형제와 몇명의 신앙인들과 같이 전란 자매 댁 마루청에서 예배를 보다가 부산 영주동 교회에 상의하여 그 교회 재정 중에서 800만원을 연보로 받아 울산 예배당을 짓을려고 했으나 가 건물 판자집을 짓는 것보다 원주민의 전도를 위해서도 완전한 건물을 짓기로 하고 동충모 전도자와 상의



(최 수열 선교사와 등석기 전도자를 모신 부흥회 광경)

하여 등석기 전도자의 협조로 28평에 예배당 건물을 짓기로주신 되었다.

이때에 임봉수 전도사가 제대하고 곧 울산 교회로 전임 교역자로 부임되어 많은 애로 속에서 예배당을 완성 해 놓고 대구 교회로 가시게 되었다.

(참조 : 대구교회) 그 후임으로 동주급 형제가 재판소 서기 근무를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증으로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울산으로 1952년 10월 25일에 부임하여 약 18년간 필알의 역할을 하였다.

동주급 전도자는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으로 8·15후 전 가족과 같이 월남하시어 서울에 머물러 계시다가 고향 친지들이 모인 현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연히 나가게 되어 등석기 전도자로 부터 1948년 3월 21일에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해 오다가 1·4 후퇴로 부산에 가서도 영주동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기와 같이 교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조창기 울산교회 교인들)

2.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06번지)

현재 남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 대들보와 산모의 역할을 한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8·15해방전 1936년 동석기 전도자가 북청해서 서울에 선교의 뜻을 두고 현 예배당인 가옥 한채를 사두었다. 그러나 동석기 전도자는 북청에 교회를 돌보기 위해 떠나면서 성락소 목사께 예배당 관리와 집회를 인도해 줄 것을 부탁 하였으나 성락소 목사는 예배시에 악기

(함 명 철)

와 목사의 칭호를 써도 좋다는 교리관을 가진 분으로 동석기씨와 교리적으로 대립되자 그는 내수동 건너편 필운동 도로변 적은 집을 얻어 이사하게 되었고 내수동 교회에는 한국신학 대학을 졸업한 이교신 씨가 맡아 보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 예배당 문을 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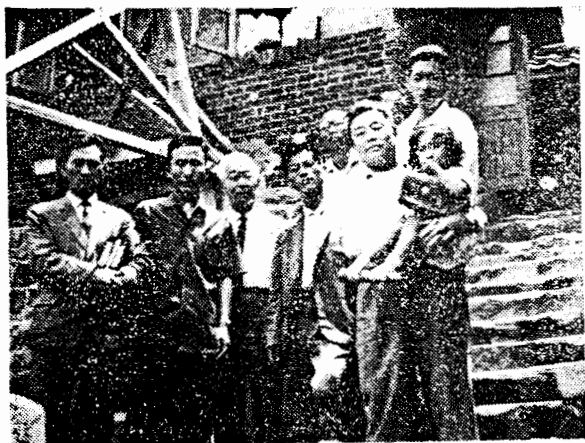
수복후에 동충모 전도자가 부산 피난길에서 올라와 예배당 문을 열고 몇 명이 예배를 들였고 예배당 관리와 미국에서 오는 구제품 보관을 대구 교회에 있던 안정수 형제께 맡기고 활발한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

동충모 전도사의 사임으로 박선흠 전도자가 54년 7월 부터 돌보다가 청량리 교회로 부임되자 장로교 신학교 동창인 강병천 전도자께 교회를 부탁하여 약 7 년간 봉사하시다가 “한국 기독교 신학교”에 교수가 되고 그 교회 집사로 시무하며 중앙신학교를 졸업한 함명철 형제가 64년 2월 1일 부터 봉사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비록 적은 예배당과 교인수는 적지마는 끈기와 깊은 신앙의 교인들이 모여 수많은 교역자를 배출했다. 즉 이홍식, 임봉수, 공삼열, 부산 중앙교회의 김재환, 인천 중앙교회의 박길재, 상도동교회의 김세복 등이 이곳에서 자라 신앙의 연단으로 교역자가 되었으며 이 역할은 박선흠, 강병천, 전도자들과 전순화, 전웅길, 동희준, 배송학, 신영태 등의 주안애 어머니 들이 하시였으며 그들의 기도는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햇불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부인회 회장인 전웅길 자매님의 지도력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적지않게 기여 하고 있다.

현재 함명철 전도자의 지성적이고 조직적인 교회사무와 설교로 약 50명의

교인들과 장정협, 이내영, 김윤식, 윤기병, 이민행, 김병서 집사, 윤홍수들의 봉사의 정신으로 역사 깊은 교회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있다.



(1964년 6월 내수동 예배당에서 기념 촬영한 동석기 씨)(왼쪽에서 셋째)

3.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동 산1)

이 홍식 형제는 함남 북청군 덕성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가고 계시다가 1947년에 월남하였다. 그는 내수동 교회에 적을 두고 집사로 충실하게 교회를 돌보았다. 그러면서도 스테반과 같이 항상 전도열에 불타고 한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회가 생기는 대로 전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청량리 교회는 당시 내수동 교회의 집사로 일하시던 장정협씨가

(이 홍식) 동대문구 용두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내수동 교회 예배는 아침에만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홍식 형제의 권고로 용두동 자택에서 밤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1948년 5월경이다. 미미하게 가정집회를 시작한 것이 차차 교인이 늘어가면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보게 되어 교회의 출발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49년 가을경 장정협씨가 청량리로 이사함에 따라 지역적 교회 발전을 고려하여 청량리로 교회를 이전하고 청량리 1동에 초가집

한 채를 당시 금액 10만환을 주고 샀다. 이 금액은 전부 동석기씨의 사재에서 지불됐다. 이렇게 집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교인의 수도 약 80명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이 집이 좁고 하여 마루와 마당에 사람이 서서 예배 보는 편이었다. 이러던중 1950년 6월 25일의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교회 건물은 파괴되고 교인들은 남한 각지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 이홍식 전도자도 부여를 거쳐 서부산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는 피난의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설움을 물랐다. 앞으로 그가 설립한 교회의 역사가 계속 나오겠지만 1951년 2월경 첫주일에 그는 부산 영주동에서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 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서울에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피난 나오지 못한 교우들과 교회 건물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서울이 수복이 되자 아직 내왕이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차 서울을 내왕하면서 파괴된 교회 건물을 벽돌로 쌓 올리는 일을 시작했다. 1954년 10월 그는 영주동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30명이 되는 벽돌 건물의 완성을 보았고 또 전도의 보람으로 150명이나 되는 회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당은 좁아서 더 큰 건물이 필요하게 됐다. 교우들은 합심해서 연보하여 현재에 있는 청량리 산 1번지의 372평의 땅을 임대했다.

교우들은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약 150만환의 연보를 거출했고 동석기씨가 2000불 당시 금액 100만환을 사재에서 기부하여 그럭저럭 61평이나 되는 건물은 1955년 11월 27일에 완공되었다. 이 건물의 완성과 더불어 특히, 예배당 건축에 신옥녀 자매는 145일간, 김순녀 자매는 127일간, 조종순 자매는 75일간을 봉사 했으며 평균 45일간씩 피와 땀으로 흘려 성전을 지었다. 새 건물에서 예배의 출발을 보게 됐다.

청량리 교회 탄생은 실로 초대교회와 같이 교우의 방 한구석에서 시작하여 천막으로 또한 벽돌 집으로 그 면모가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큰 교회들 이루고 있고 건물도 적지 않은 것이다. 1957년 12월 박선흠 전도자가 내수동을 사임하면서 곧 청량리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홍식 전도사님은 홍제동 교회 개척에 착수했던 것이다. 1958년 4월 7·8명의 교우를 얻어 천막 교회를 세우고 동년 8월경에 홍제동 교회 담임 전도자로 전임했다. 당시 청량리 교회는 박선흠 전도자의 담임으로 약 150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200명 주일학교 학생과 약 40명의 중고등학생이 적을 두고 있었다. 이제바라기는 불타던 처음의 신앙과 처음 사랑을 잃지말고 배전의 부흥이 있을 것이 기대 된다.

4. 부여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함송 2리)



네수동 교회 교인으로 열심을 다하던 김학실 자매가 교육사업에 뜻이 있어 이홍식 전도자와 같이 부여에 가게 된것이 교회에 시작의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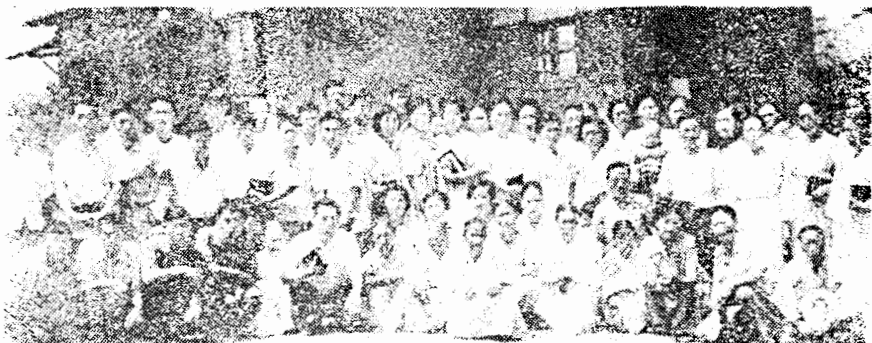
1950년 3월 6일에 김학실 자매와 이홍식 전도자는 조남철 형제와 같이 규암면 노화리에 작은 방 한칸을 빌려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그후 부여 교회는 옛날의 유구한 역사와 같이 한국

(이 현 재)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도 긴 역사를 가지고 묵연히 성장 해왔다. 비록 많은 교역자들이 왔다 가고 했으나 단합된 집사 8명은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충성을 다해 모범적인 교회로 올바르게 걷고 있다.

유규준, 정석기, 윤풍용, 정이창, 한학동, 임중삼, 김사복, 박용순 등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기록 되었을 것이다.

그 교회를 시무한 교역자들은 다음과 같다. 정창선, 이신, 김광수, 한도석, 김재환, 박진환, 박병후, 전도자들 다음으로 함명철 전도자의 추천을 얻어 1968년 2월 1일에 이현재 씨가 부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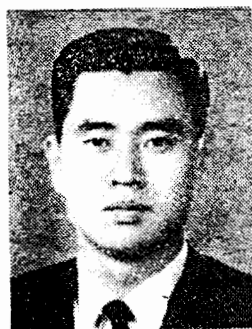


(부여 그리스도인들)

예배당 대지 461평 위에 넓은 곡창지대를 한눈으로 보며 삼밭에 그윽한 밭새가 가득한 언덕 위에 22평의 예배당 건물이 아담하게 서 있다.

부여 교회는 그의 역사와 같이 앞으로도 67명의 교우들이 허약해진 한국 민족에 삶의 역할을 해 튼튼한 영의 백성으로 만들게 될것을 불기이다.

5.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부산시 중구 영주동 620번지)

(김재환) 게 되었다.

현재 중앙 교회가 시작 되기전 즉 6·25 사변전에 부산에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1948년경에 부산 대교리에 있는 미공보원 -자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 해 있었다. 그러나 6·25 사변의 혼란한 틈에 미공보원이 불에 타게 되면서 예배당도 타게 되어 교인이 흩어지게 되었다.

6·25 동란으로 인해 부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피난했던 이홍식 전도자는 부여에도 공산군이 침범하게 되자 다시 피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산에는 이미 앞에 말한 대로 대교리 장성만씨 집에서 가정 집회로 모이는 정도였다. 동란 전에는 동석기 전도자가 여러번 방문한바 있었고 이교신전도자가 인도하였고 김현숙 자매가 초대 전도 부인으로 사무한곳이다. 그후 이교신 전도자를 이어 강순명 전도자가 시무하면서 교회 건물을 용두산 언덕에 짓고 옮겼다. 집회는 점점 상황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자리가 잡혀가고 있던 중 강순명 전도자가 광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 후임으로 김진영 전도자가 왔었다. 이때 박경동씨가 (현재 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 그를 도왔는데 이때에 김진영 전도자와 장성만 형제는 자기집에서 가정 집회로 따로 모이게 되어 교회는 갈라지고 말았다. 그후 용두산 일대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용두산 그리스도의 교회 건물은 모두 타버리고 현재 장성만씨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만이 존속하여 대교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독립 해나갔던 것이었다. 부산으로 피난온 이홍식전도자는 안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홍식 전도자는 그들과 합세 하여 영주동에 교회를 세울것을 결심하고 동충모 형제의 도움을 얻어 영주동에다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51년 2월경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첫예배를 보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당시 남한 일대는 1·4후매의 소식으로 들끓고 있었으며 정부에서는 재빨리 부산 등지에 있는 공무원 및 교회 전도자 들을 제주도 등지에 피난 시키는 일을 서둘르고 있는 때였는데 이 소식에 놀란 교회 교역자들 및 교인들도 속속 교회를 비우고 피난의 길에 떠나갔기 때문에 부산지대의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달다 시의 되었다. 이때에 이홍식 전도자 만은 남은 교회들을 두고 이 이상 더 피난 갈수 없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목자를 잃은 타교파 교인들도 많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보게 되고 긴급한 영혼들이 영의 양식을 구하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교회의 소식이 퍼지게 되고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준바 있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같이 하심의 역사였다. 불행중 다행으로 1·4후퇴의 여파는 부산등지에 크게 미치지 않은채 국군과 연합군의 반격으로 밀미암아 북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난 갔던 사람들도 되 돌아 오게 되었으며 교회는 부흥의 일로를 거듭했다.

1951년 10월경에는 이제 천막을 치고 목조로 약 47평이나 되는 건물을 짓게 되었다.

이때의 초대 집사들 가운데는 김관평, 동주급 등(현재 전도자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란의 틈바구니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우들을 돕기 위하여 일본에서 전도하고 있던 “케논” 형제가 부산을 방문했다.

그는 교우들과 같이 일주간 성경 연구회를 가졌다.

그의 부산 방문은 전쟁에 시달려있던 교우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같은해 8월경에는 일본에서 전도하던 선교사 “부라운” 형제와 “가가린” 형제가 다시 방문하고 성경 연구회를 가진바 있다.

1952년 8월경에는 일본의 “가가나스” 형제의 초청으로 일본 본토에서 열리는 캠프 수양회(3주일간)에 이홍식 전도자가 전너가 강사로서 설교 및 전도를 하는 가운데 21명이나 되는 결심자를 내어 큰 은혜를 끼쳤다.

당시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날 까지 이일을 말하고 있다.

이홍식 전도자는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 더욱 힘써 전도하였으며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일하는 가운데 교회는 부흥의 일로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1953년 10월경 부산 용두동 일대에는 대화제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전기한 용두동 그리스도의 교회도 다 타버리게 되어 그곳 교우들은 영주동에 합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명을 바꾸어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라 칭했다.

또한가지 부가 할것은 수정동 그리스도인 교회에 시무하시던 김광수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종하면서 부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달고 갈때 수정동 그리스도인 교회의 건물을 힘씨에게 반환하고 교인들은 대부분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적 시켰다는 것이다.

하여간 교회는 수적인 증가를 거듭했다. 이러던중 1954년 10월경 이홍식

전도자는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직코 서울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박선홍 전도자가 그 후임으로 일하게 되었고 1954년 3월 15일에는 교회를 영주동에서 초량동 594번지에 52평 대지에 27평의 기와집 적산 가옥을 360만 환에 매수하고 이전했다.

이 금액은 동석기 전도자의 현금이었다. 불하금 50만환은 매년 5만환씩 교회가 불입하여 나갔던 것이다.

1955년 9월경 박선홍 전도자가 서울로 이사함에 따라 박경동 전도자가 후임으로 시무 하였고 1956년 10월에는 그도 사임하고 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전했다.

피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한때 신앙에 불 붙었던 교회도 정부가 환도되고 따라서 서울 교인들도 하나둘 떠나게 되고 전도자들도 자주 변천함에 따라 약세의 일로를 거듭하게 되었으나 1957년 2월 14일 부여에서 시무하던 김광수 전도자가 이곳에 취임함에 따라 다시 전도의 불결을 이르켰다.

1962년 6월에는 교회의 한 기관으로 승리 모자원이 건립되고 초대 원장으로 김춘희 자매가 취임했다.

(“그리스도의 교회” 제 8 호 1963년 7월 1일 발행 pp.11—13 전면 참조)

제 5대 교역자로 김재환 전도자가 1964년 봄에 부임하였다. 김전도자는 부여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서울 안산교회에서 전도하다가 부산으로 부임하였다. 그후 김전도자의 열심히 전도한바 교회는 대단히 은혜스러웠다. 부흥도 많이 되었다. 그러던 중 중앙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지을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중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게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교회 사상 처음 많은 헌금이 나왔다. 더욱 감격한 것은 교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결혼 반지, 목거리 시계 등 실로 놀라운 헌금이 나왔다. 이때 이것을 갖고 김재환 전도자는 서울로 상경 이 사실을 동석기 전도자에게 말하고 교회당을 짓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게 되었던 바 동 전도자는 감격하여 자신이 어떠한 방법이 라도 써서 예배당을 지어 주기로 확약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은 예배당을 짓는 날부터 김전도자의 생활보조금 50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김전도자는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그때부터 건축 설계와 계획서를 작성 박성규 집사와 함께 예산을 세워 서울을 왕복하며 예배당 지을 만반의 준비를 서둘렀다.

이 얼마나 감격한 일이라?

그러나 이러한 은혜속에 감격하며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뜻하지 않게 김전도자는 모 개인의 모략으로 이교회를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김전도자가 있으면 교회를 지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김전도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나머지 온교회의 만류를 뿌리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후에 이홍식전도자의 감독 밑에 동전도자는 교회를 짓게 하여 지금의 건물을 완성하였다.

이 건물을 위해 특히 기억할 것은 이 교회 교인은 물론 최성학, 박성규, 조성섭, 김영수의 네분 집사님들의 노고는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동석기 전도자가 미국에서 차용하여 건축하기로 약속이 되었다. 그러므로 건축 설계와 계획서 예산등 수속하느라고 김재환 전도자와 박성규 집사는 분주하였다. 교회의 숙원이든 예배당 건축이 되었다는 기쁨이 너무나 감격한 일이라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건축을 위하여 동석기 전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미국에 교섭한 결과 돈이 나오게 되었다. 김재환 전도자는 사임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등촌교회에서 전도하게 됨에 따라 부산 중앙교회는 당분간 비어 있었으나 부여교회에서 전도하던 박진한 전도자가 제 6대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고 예배당 건축은 재부한 전도자들이 건축위원이 되고 이홍식 전도자와 박성규 집사가 공사 감독을 맡고 건축은 시작 되었다. 그러던 중 교회는 완성이 안되었는데 또 교역자를 불신입한 결과 건축금을 주지 않겠다는 동 전도자의 강경한 태도에 박진한 전도자는 몇 달도 못되어 사임할 수 밖에 없었다. 1964년 10월 8일 건축은 완성이 되어 헌당식을 드리게 되었다. 그동안 파란곡절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기관인 중앙교회 예배당이 완성이 되었다. 전평 상하 80여평으로 건축되었다. 1965년 4월경에 박진한 전도자를 다시 유임하기로 하고 시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쇠퇴하는 교회 교인들을 부흥시키지 못하고 1966년 봄에 사임하고 교회는 오랫동안 전도자 없이 박성규 집사와 부산 여러 전도자들의 도움으로 여름을 무사히 지내고 1966년 12월경에 제 7대 교역자로 김재환 전도자가 부임하게 되었다. 김전도자는 교인들에 절대 지지를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그동안 교역자 파동으로 교인들은 거의 다 헤어졌던 교회가 지금 차차 부흥되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로 6, 70명씩 집회가 된다고 한다. 앞으로 크게 부흥 되리라는 것은 확실히 되는 일이다. 특히 이 교회는 부산의 중심지대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겠다.

6. 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241의 3)

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산의 번잡한 곳에서 좀 떨어진 영도섬 산 중턱에 아담한 예배당 건물로 영도섬 주민들과 부산시의 아름다움을 한눈으로 볼수 있는 곳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채 조용히 그리스도의 등대를 밝히고 있다.

6·25 직후 부산 영주동 일대에 큰 화재가 일어나 수많은 이재민을 순식간에 내게 되자 부산시 계획에 의

(박 경 동) 해 이재민의 일부를 영도섬으로 이주시키게 될때 영주동 몇 교인 가정이 같이 이재민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들이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에 참석하러 오다 눈것이 마음으로 나 거리적으로 아주 멀어 신앙에 위협이 생기게 되자 영주동 교인들의 노력으로 향만 사령부로 부터 대형 군용 천막 하나를 기증 받아 청학동에 치고 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교역자가 문제 가되어 시내 교역자들이 순번제로 인도 하게 되었다.

특히 이때 박선흠, 김병헌 형제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다가 한도석 형제께 전임으로 교역일을 맡기였으나 충남 부여 교회가 교역자가 필요로 하게 되어 한도석 형제를 부여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로 파송하고 1957년 3월 10일 청학동으로 파송되어 오신 박경동 형제가 청학동 교회를 계속 천막에서 인도해 오시다가 서울 선교사로 있던 최수열(L. Haskell Chesshir) 형제가 미국으로 안식년이 돼서 들어 가면서 60만환의 연보를 해 주워 1959년 11월 8일 주일에 현 위치에 아담한 25평 짜리 예배당을 짓고 완전히 이사 하게 되었다.

약 16년간 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도섬에 있으면서 그의 결실과 수많은 영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비록 '일시 흥분적인 부흥에 불길은 없었으나 박경동 형제가 부임한 후 약 15년 동안 약 300여 명에게 구원의 새를 주워 살길을 부여 해 주웠고 교인들의 사 생활 전체를 박 형제의 것으로 생각하고 끊임 없는 인내와 노력의 결과로 그 등배 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까지 인정 받는 사랑의 교역자로 알려지게되었다. 그가

7. 성지 그리스도의 교회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301)

1955년 11월 영주동 산 비탈에 전쟁으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불우한 여인들을 위해 승리 모자원이 발족되었다(참조. 성지 모자원).

이 모자원이 발전하여 상기 주소로 1957년 9월 1일에 이전하게 되자 모자원에 속해 있던 원생들이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배 보러 가는데 매우 불편하게 되자 김광수 전도자님이 모자원과 같이 성지 교회를 위해 일하시게 되었다.

(원 종 호)

오후 모자원 원생들을 중심으로 외부 사람들도 예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모자원 생활을 그만 두고 자립하려고 나간 교인들도 모이게 되었다.

그후 김광수 전도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자원 및 성지 교회 교역일을 1966년 11월에 그만 두시게 되자 부산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란 원종호 형제가 1966년 12월 1일에 전도자로 부임케 되었다.

원종호 전도자는 장노교 신학교를 갓 졸업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특히 김관평 전도자님으로 부터 오래토록 신앙의 인격을 배운 젊은 교역자이다.

현재 장년이 57명 모이고 학생들이 약 20명과 유년부 70명이 모여 교회를 지키고 있으며 금요일 저녁에는 부인회와 토요일 저녁에는 학생회 모임을 갖고 있다. 예배당 25평의 자체도 모자원의 것이다.

특히 외국인이나 외부 교회에 보조도 없이 담임 전도자를 궁핍함기 없이 모시고 있는 성지교회에는 모자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정신이 넘쳐있기 때문이다.

성 명 : 원 종 호 1941년 7월 19일생

본 적 :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300

현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301

세례받은날 : 1958년 6월 14일

세례준 사람 : 김 관 평

교역자로 부임된 날 : 1966년 12월 1일

부임된 교회 : 성지 그리스도의 교회

8. 전남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654번지)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창립하신 고 강순명 전도자의 숨은 노고를 두루 살펴야 할 것이다.

강순명 형제의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시 방린동 303번지에서 1897년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 하였고 그는 높은 뜻이 있어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곧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여러 곳을 전전 하서며

(강 순 명) 신학을 연구 하시다가 대동아 전쟁 말엽 고국에 돌아 오셔서 기독교육 사업에 전심을 기울이시게 되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1959년 3월 12일에 62세로 그의 부인과 9남매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그가 생전에 하던 주의 사업을 못다 한채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처인 주님 계신 곳으로 가셨다.

강순명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시어 같이 일하게 된 동기는 1947년 어느 가을날 동석기 전도자를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오래도록 성서적 토론 끝에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인정 하시고 동석기 전도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하기를 결심하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남정 국민학교 옆 금강교 적산 가옥 건물을 빌려 예배를 보게 되었다.

강순명 전도자는 그곳에다 영경 신학원이라는 야간학교를 설립하고 남여 약 100여명을 모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노동의 길을 마련해 주었고 용신구 도원동 산 17번지에 공명학교를 설립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 80명에 영적 육적으로 고향을 잃은 아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가르치 주었고 다시 용산구 원효로 2가 용산 경찰서 옆에다가 유치원도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대대적이고 급진적인 사회사업을 통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 격지 않은 모략이 일어 닥쳤고 심지어는 장노 교회 진남 노회에서는 서울노회에 강순명 목사를 지위 박탈하는 통고까지 보내와 간접적인 압력을 가해 왔으나 그것 모두 개의치 않고 먼 목표를 향해 달음 박질하였다.

그러나 그런 내적인 핍박 보다는 더 큰 6·25 사변이 있다. 그는 곧 가족과 같이 고향인 광주로 내려갔다가 수차례 기절하시다 부산 피난을 가서 거

기서 이홍식, 동충모 두 전도자들의 감명을 받고 1951년 7월에 광주에 있는 김호민 형제 등 여러 신앙인들과 같이 미국에 제신 동 석기 전도자에게 3만 원을 얻어 광주시 차동 공원옆 이층집을 사서 예배를 보게 된 것이 전남 지역에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 햇불을 들었으니 이 얼마나 기쁨이 아닌가!

우리가 가는 곳 마다 참 교회는 퍼져 나가고 복음을 세상 밭에 뿌려진다 이곳에서 부흥의 불길을 나날이 하늘에 충천 하게 되니 모이는 인원과 장소가 대폭적으로 협소해서 결국 1955년 10월 29일 현 건물인 학동 1구 654번지로 옮기게 되었다. 옮길 때 역시 동석기 전도자가 13만환을 보조 하고 미국 형제들이 매달 30불을 돕게 되었다.

그후 곧 1956년 8월에 본 예배당인 약 50평 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다.

강 전도자는 교회 사업을 하면서 의지할 곳 없는 방황하는 노인들을 위해 양노원을 1952년 7월 13일 본인 집에서 시작 하였다.

양노원을 시작 하게 된 동기는 7월 초순 어느 할머니가 거지꼴로 강 전도자 댁에 와서 밤을 구걸하는 것을 방안에서 문틈으로 내다 보시고 곧 그 할머니를 들어 오시게 하시고 식사와 의복과 방을 내 드리면서 댁에 유할것을 할머니께 권유 하시게 되었다.

그후 자식과 고향과 가정을 잃은 수많은 노인들이 강 전도자 댁에 모이게 되어 선교부에서 약 반의 경비이 매월 50불과 전라남도 도청에서 약 반의 경비를 도와 발전하게 되었다.



(초창기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

1968년 7월 현재 129명 (남 29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계시며 창설 이후 현재 까지 350명의 영들이 별세 하시 없는데 이때마다 강 전도자부인

게서 손수 시신을 모시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양노원의 내적 분규는 여지 없이 감정 대립으로 만들어 놓았다. 1957년 2월 27일 강 전도자가 범인 설립허가를 얻어 일 하였으나 그분이 별세후 1962년도에 그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가지느냐에 문제가 일어났다.



(양노원에서 세례 받은 새심령들)

즉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및 양노원 측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부에서 가질 것이냐에 문제의 길에서 광주 재단측에서는 재단 이사중 강 전도자 부인 장신에 자매와 김호민 형제가 이사가 될 것과 매달 보조비로 2만원을 요청 하였으나 서울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결국 극한 감정 대립으로 서로 교제를 끊고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의 독자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다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9. 부산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부산시 진구 범전동 337번지)

6·25사변으로 서울 교인들은 영주동에 모여 예배를 보았으나 서면쪽에서 오는 7·8명의 신앙이 깊은 교인들이 거리가 멀어서 집회 참석에 애로를 느끼게 되자 영주동 교인들은 서면쪽에서 오는 교인들을 위해 서면에도 교회를 세우자고 결의를 하고 영주동교회 집사중 과묵하고 실천과 굳은 신앙인인 김관평 형제를 택해 범전동 300번지 전평 12평에 가정주택을 영주동

(김 관 평) 교회의 연보 6백환을 주고 사서 깨끗히 내부 수리를 하고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1952년 11월 2일 15명 정도의 교인이 모여 첫 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예배당 위치로는 불결하고 예배 보는데 좋지 않아 1958년 범전동 337번지에 71평의 대지를 여러분의 협조와 본 교인들의 피나는 연보로 구입하여 25평의 예배당을 지어 1958년 8월 19일 준공을 보고 20일 주일부터 첫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예배당 신축공사에 따르는 자금은 구 예배당의 매각과 당시 금액 19만원과 전국 교역자들께서 1만원 연보와 본 교회 자체 내에 건축 헌금과 당시 미국에 계신 동석기 전도자 동충모 전도자와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인의 형제들의 성금과 홀튼 선교사의 연보로 총 공사비 100만원으로 준공을 보게 되었다.

김관평 전도자의 인내와 노력은 물론 이거니와 숨은 공로자로서 적은 일에 충성을 다 한 구현실, 김윤선 자매님의 눈물어린 노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것이다.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창기 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약 19년간을 수고하고 계신 김관평 전도자는 1946년 봄에 고향인 평안북도 신의주시 미륵동에서 가족과 같이 월남하여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거주하면서 1947년 북아현 장노교회 김현봉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장노교회 교리를 알게 되었고 1948년 김목사님으로부터 약식 세례를 받아 신도의 생활을 하다가 1월 4일 서울 후퇴와 같이 부산 영주동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다. 바로 집 근처에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새벽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으

며 이홍식 전도자 신옥녀 자매를 통해 참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1951년 8월 1일 세례를 받고 천국의 동행자가 되었다.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국 교회 중에서 모범적이고 기도의 원천이라고 까지 평을 받으며 김 관평 전도자를 “작은 예수”라고 까지 호칭을 해 많은 그의 동역자는 물론이고 후배들은 그를 신앙인으로 존경을 하고 있다.

또 굳은 결심으로 지금까지 미국 행재들의 연보로 운영해 오던 것을 1960년 1월 부터 외부 보조도 버리고 독자적 경제 자립을 하고 있으나 김전도자의 숨은 고통과 경제적 타격은 7명의 식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신앙과 기도로 극복 하고 계신다.

현재까지 약 150명에게 세례를 주워 구원케 했으며 특히 젊은 교역자 원종호 형제를 영적으로 키워 부산 성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보내는데 성공하였다.



(서면 그리스도인들)

주일 학생은 남녀 약 40명 정도이며 반사 4명과 집사 3명 (김 영선, 이병연, 박 석진 형제들)이 교회에 주춧 돌이 되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 확고한 영적 경제적 자립교회로 선두에 달리고 있다.

10.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경북 대구시 북구 동인동 4가 416번지)



(임 봉 수)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중에서도 근 2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로 수백명의 영적 지도자를 배양하면서 확고한 성서적 교회로 뿌리를 깊게 박고 있는 자칭의 교회이다.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동기는 너무 단순한 데서 시작 되었으나 그 고목이 자라는 데는 수 많은 역경도 없지 않았다.

6·25 사변이 발발하자 서울 내수동 교회 교인들은 물론 그곳에서 수교하던 주일학교 교사인 강애주 자매도 함께 피난의 발길을 남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그가 닿은 곳은 낯설은 대구 삼덕동에 적은 가옥이 었다. 그는 오빠 친구인 민병구(개명 민성체) 육군 대위와 결혼을 하게 되어 새로운 신흠 살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늘 마음 중심에 대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후 교역자를 찾고 방법을 모색 하던중 마음의 결심을 인고 부산으로 피난간 몇형제들께 도움을 요청하니 이에 기쁨으로 이홍식, 동충모 전도자 두분이 올라와 장 시간 의논과 기도 끝에 우선 민병구(강애주 부군) 형제 댁에서 1952년 7월부터 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두 전도자가 부산교회를 돌보기 위해 떠나자 우선 교역자가 문제였다. 그래서 김진영, 조국현, 김봉섭 형제들이 순번을 짜 예배를 인도했으나 그리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강애주 자매가 우선 부산교회에 제신 몇 전도자를 만나기 위해 갔다가 우연히 서울 내수동 교회에서 같이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해온 임봉수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강애주 자매님은 대구 교회의 사경 이야기를 다했고 임 봉수 형제의 사정도 비슷한 주님 사업의 일로 부산으로 가던 중이었다. 임형제의 사경은 이러했다. 얼마전에 육군 소위로 제대를 하고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전도자로 봉사하는 중 강 문석 형제의 장모인 진란 자매와 예배시에 주기도 외우



(민 성 체)

는 것과 성찬 떡의 자료등으로 전란 자매와 문제가 생기었는데 주기도문은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으므로 외울수 없고 성찬떡은 누룩없는 밀가루 떡이 좋다고 주장 하는 등 문제가 일어나니 6·25전에 교파 교회에서 자랐고 중앙 신학교에서 3학년까지 다닌 그는 남득이 가지 않아 부산에 계신 몇 전도자와 상의차 오던길이 었다. 임형제가 그렇게 된것은 당시 신앙이 어린 분으로 오직 고린도 전서 13장 9절을 읽을때 느끼는 바가 있어 신앙의 물을 찾다가 드디어 1949년 5월 22일에 서울 한강에서 동석기 전도자에게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한편 그는 6·25 사변때 서울 지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과 불행에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 역시 군대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오직 참회에 길에서 제대를 하자 곧 교회를 달고보니 교리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부산 영주동에 계신 이홍식, 동충모 두 전도자와 몇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결정한바 임형제가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교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서게 되었다. 1953년 1월 16일 대구 동인동에 전평 약 40평짜리 적산가옥을 미국에 계신 동석기 전도자가 동충모 전도자에게 보낸 1천 5백환을 주고 사서 공병대 장교로 계시던 강애주 오빠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병체 형제 등의 수고로 내부 수리를 해 예배를 볼 수 있었으며 사택도 그 뒤에 짓어 아주 아담하게 꾸려 놓았다.

어느 정도 시국과 교회가 안정돼 가자 임봉수 형제는 서울로와 중앙 신학



교에서 하던 공부를 하게 되었다. (중앙 신학교 3회 졸업). 임 봉수 전도자가 떠날때 청년 김진식 형제를 전도자로 이승윤 자매를 여전도 부인일을 부탁하고 갔으나 곧 교회 집사인 안정수 형제와 교리적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다.

강경한 신앙논에서 교리적 고집을 가진 안정수 형제는 타협의 길을 피해 자기집인 칠성동에 칠성동 그리스도(강 애 주) 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결국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과 여러 이웃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요청과 권유로 다시 임봉수 전도자가 내려 왔으나 그때에는 많은 교인들이 흩어져 있고 이진자매님, 윤봉기 형제 등 몇분 밖에 없었다.

대구에 와서 이사태를 본 임봉수 전도자는 사택수습의 관 방편으로 이곳

에서는 전도가 안될것으로 보고 자기의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그 건물을 팔고 동인동 4가 333번지 큰 길옆으로 옮기였으나 불행이도 이미 그 곳은 대구 도시계획에 의해 1968년 3월까지 헐리게 되어 서울 재단 이사장 김기순 형제와 선교 책임자인 단 디트릭 선교사와 상의 협의끝에 82만원에 매각하고 동인동 4가 416번지에 독채를 80만원에 얻어 이사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애주 자매등 옛날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은 원래의 아담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

한 적산가옥의 예배당을 판것을 띄 아쉽게 생각했다.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운영은 설립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미국 교회에서 매달 30불—50불의 보조를 받고 있다(보조 하는 미국교회 Hillshore Church of Christ 2206 Hillshore Road Nashville Tennessee). 이미 전자에 말한 바대로 이교회 시무하는 교역자 임봉수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확고한 신앙심과 교리적 확립으로 장장 오랜 세월의 부흥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212명이 죽어가는 것을 구원한 영적 산파 이시며 많은 젊은 지도자를 배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 하시는 존경할 분이다.

11. 효창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용산구 6번지)



(박 선 흡) 용산구 효창동 6에 선교부를 두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의 주택에서 영어 성경반을 설치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오다가 1957년 4월에 선교부 구내에 효창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그해 11월에 배당을 건립하였다.

교회의 운영은 선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초대 전도사로 강예원 씨(현재 장노교 교인)가 취임하여 일하였으며 선교부에서 극빈자를 위한 세계 기독교 봉사회의 보조로 급식소를 운영 300배지 400명분의 급식을 해오다가 모종의 문제로 인하여 강예원 전도자가 사임하고 어느만큼 전도자없이



(O. P. 베어드씨 가족)

A. R. 홀튼 선교사 중심으로 일해오다가 1961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서무과장이던 박규현 전도자가 제 2 대 전도자로 취임과 동시 효창 고등공민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여 일하였다.

1964년 1월 15일 박규현 전도자가 渡美留學 하게 됨에 따라(1969년 11월 현재 Los Angeles 한국인 교민회 회장 및 한국인 교회 전도자) 1964년 1월 15일부로 박 병수 (당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4학년) 전도자가 제 3대 전도자로 취임하였다.

선교사로는 A.R. 홀튼 후임으로 O.P. Baird 형제가 박병수 전도자와 함께 교회를 운영했으며 1965년 1월 3일 (첫주일) 장노릇 세웠는데 황만복씨와 이채화씨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상 최초로 장로를 세웠던 것이다.

장로를 세워야 하겠다는 것은 1963년도 부터 박 규현 전도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오랫동안 논의의 거듭하다가 결국 거의 2년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장로 안수식은 O.P. Baird 선교사와 김기순 집사 (당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부 총무)가 안수하여 교회에 공포함으로 장로가 된 것이다.



(박 병 수)

교회는 날로 발전하여 가는듯 했다. 250명 내지 300명의 교인이 모였다.

교인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선교부의 직접 간접 물질적 영적 지원이 컸던 때문이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청량리교회를 맡았던 박선흠 전도자를 모셔다가 주일날 낮에만 한달에 세번 설교를 한다는 조건으로 박병수 전도자와 박선흠 전도자가 함께 일하게 된 것이 1966년 7월이 었다. 그러다가 1967년 9월 1일부로 박병수 전도자가 효창고등공민학교 교목을 겸하게 되었으며 1967년 12월 31일부로 만 4년동안 일하던 박병수 전도자가 교회 전도자를 사임하고 효창고등공민학교 교목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박 선흠 전도자가 제 4대 전도자인 것이다. 그러나 박 선흠 전도자는 한달에 몇번 설교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심방문제를 비롯 목회를 전담해야 할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1968년 3월에 이마운 전도자가 취임하여 박 전도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68년 4월 첫주 정기 제직회 석상에서 황만복 장로의 박선흠 전도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당자들끼리 사과하도록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년회에서 권고해도 안되고 교회에서 권고해도 안됨으로 교회 공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러기를 6월달까지 약 2개월 동안 교회는 소란했고 장로로서의 권리



(이 마 운)

행사를 하려는 측과 그것을 받아 드릴수 없는 측의 대립이 심하여 공의회에서 장로 불신임 문제가 제기됨으로 두차례나 낮 예배후 이방사회에서도 볼수 없는 추태를 부리게 되었고 공의회에서 절대 다수로 불신임 결의를 함으로 황단복 씨의 일방적인 고소로 경찰이 개입 전도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피소 되는등 어지러운 상태가 몇개월 지나갔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고 1969년 4월 박선흠 전도지가 사정에 의해 渡美함으로 효창교회 전도자를 사임하고 이마운 전도자 혼자 교회를 담당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교회 출석 인원은 주일날 낮에는 80명에서 100명 밤 예배 및 수요일 예배는 30명 내지 40명 정도 모이지만 선교부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 교회로서 자립교회로서의 거처야 할 시련기라고 생각할 때 효창교회의 여러가지 입지조건으로 보아서 크게 발전 부흥할수 있는 교회가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2. 등촌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산42)

- 1961. 7. 선교사 채설씨와 김은초씨가 등촌동 산 58번지에 천막을 세우고 몇 명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처음 예배를 드림.
- 1962. 1. 등촌동 산 57번지에 예배 장소를 올림.
- 1963. 2.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 1963. 4. 76평의 예배당 착공.
- 1963. 11. 8. 헌당식을 갖임.

傳道部

- 1代 최수열 선교사
- 2代 1962. 1 이후 김득환 김형찬 신상만(合同)
- 3代 1963. 5 김계환
- 4代 1964. 2 고길상
- 5代 1964. 8 신상만
- 6代 1968. 2 김광수
- 7代 1968. 8 신상만
- 8代 1968. 12 박재원
- 9代 1969. 3 김송차



(김 송 차)

13. 울산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

(경남 울산시 신흥동)

동주금 전도자와 전란자매가 울산교회에서 정성과 뜻과 신앙을 다하여 봉사하게 되니 나날이 구원 받은 수는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울산교회 교인 중에서 약 20여명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개의치 않고 신흥동에서 읍교회를 찾아 10리나 되는 곳을 주야 김회배 참석하는 것을 보고 교인 모두 의논 끝에 신흥동에도 교회를 설립하고 차라리 전도자가 가서 예배 봐 주기로 했으나 그러나 문제는 예배당이 문제였는데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그곳 교인들 가정애 돌아가면서 예배 보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는 제일교포들이 8·15 해방후에 와서 정착한 곳으로 그들의 경제 및 교육 수준은 꽤 곤란한 형편이고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 길게 지어준 수용소였다.

그런 모든 문제를 개의치 않고 울산교회의 기도의 후원과 동주금 전도자의 결단으로 원리금이자 3천원을 주고 두칸을 얻어 신흥동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예배를 보되 울산읍교회 집회 시간과 날자의 차이를 두었는데 주일이면 오전 9-10 까지 신흥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11-12시부터는 울산읍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 하시고 월요일 저녁에 다시 신흥교회 주일 저녁 예배를 대신 보게 시간표를 짰으며 바람과 눈보라 치는 겨울밤에도 도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없으면 갈수 없는 것을 근 10년이 넘도록 양 교회에 다니시며 인도하셨다.

그러다가 1956년 그곳 유지인 이종하 형제 분이 데지 약



(성경을 뜻으로 쓰신 할머니)

200평을 연보 해주시는 것이 발단이 되어 김학실 자매와 동충모 전도자의 협조와 동석기 전도자로부터 얼마의 연보를 얻고 본 교인들의 연보등으로 14평 짜리 아담한 예배당과 종각을 세우고 강남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활발한 전도사업을 하게되었다.

아주 은혜스러운 것은 70대 된 문맹자 할머니가 국문을 배워 성경 66권 전체를 붓으로 모두 신문같은 곳에 베껴 써놓았다. 글을 알고도 한번도 성경을 다 읽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얼마동안 장노 교회에서 일을 보던 박진환 형제가 강남교회를 돌보다가 대전으로 고아원과 교회를 위해 떠나니 다시 동주급 전도자가 일을 맡아 보게 되었다.



(강남 그리스도 인물)

아직까지 울산읍 교회와 강남 교회는 특별히 환난이나 내분이 없이 여러 집사들의 수고로 울산 지역 발전과 같이 교회도 부흥 발전하였다.

14.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양촌)

양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것은 우연한 일이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창립시 1학년에 입학했던 이 병찬 형제가 처가집인 양촌에 1957년 3월에 놀러 갔다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통해 어린이들이 듣고 배워 달라고 조르는 것을 이 형제가 가르친 것이 교회의 발단의 길이었다. 이 형제는 그곳에 있는 동안 저

(백 태 현) 녀이면 광술불을 켜놓고 찬송가와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니 먼곳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물론 동네 부녀자들도 모여 듣는 것이었다. 이 형제는 복음과 은혜에 단비를 원하는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을 보고 서울에 돌아와 신학교 여러 교우들과 선교사들에게 말을 전하니 이에 모두 자발적으로 도움길을 모색하고 이 철선 선교사는 그의 경제적 뒤를 도와 병아리 300마리를 사주었다.

그러나 1962년 3월 이 형제는 군문에 입대 하게 되자 양촌교회가 운영난에 처해있는 것을 보고 서울에 계신 박선홍, 김기순 형제, 파스리, 이철선 선교사와 상의 끝에 상도동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던 백태현 형제를 1962년 11월 1일에 양촌교회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었으며 O.P. 베어드 선교사와 전 김기순 신학교 이사장의 협조로 매월 40불씩 미국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방 주민들은 이방 종교와 미신에 대부분이 믿고 있어 좀처럼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것에 굴하지 않고 백 전도자는 꾸준한 노력으로 20평의 예배당및 사택의 건물을 433평 까지 있게 했는데 우선 성공을 했다.

이 막대한 내지와 건물을 짓는데는 피눈물 나는 고생과 손수 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여러번 폭풍 때문에 쓸어진 건물을 일으켜 세워 백 형제에게 부여된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았다.

이 내지와 건물을 매입 하는대는 파스리 O.P. 베어드, 선교사들과, E.F 테일러(Talyor) 라는 미국 교인과 미국 랜드팩 교회와, 등촌 교회에서 격극

협조해 주워 사방을 내다 볼수 있는 언덕위에 큰 대지와 건물을 꾸미게 되었다. 현재까지 98명을 구원시켰으며 31명의 교인이 매주 집회에 출석하여 영의 양식을 나누고 있다.

특히 이 교회가 초창기에 있을때 이 병찬 전도사를 도와 서울 지역 기독교 청년에 가입하고 “양우회” 청년들이 여러번 가서 하기, 동기 학교를 실시하게 되어 많은 전도에 이로움과 계몽 운동을 하여 좋은 성과와 기쁨을 주었다.

성 명 : 백 태 현 생년월일 1935년 11월 23일생.

본 적 : 서울시 마포구 신 공덕동 산 5

현주소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양촌.

예배당주소 : 상 동

세례받은날 : 1959년 3월 30일 효창교회

세례준사람 : 박 선 흠

교역자로 부임된 날 : 1961년 7월 15일

분임된 교회 :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



(양촌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

15. 장천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영암군 사호면 장천리)



글을 써서 이웃에 뜻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나 책을 출판해 산간 벽지까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무의미 한것 같았으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

영구적 자료와 평범히 전도될수 있는 것이 바로 문서 전도이다.

이런 장기적 계획과 인내력으로 이철선 선교사는 교회적 책자를 발간하는데 전심을 기울려 결국 그 결과는

(전 하 영) 한교회를 형성 하게 했다.

이 원근 전도자가 어느 격은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의 정통적 교리에 맞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전도자는 이철선 선교사가 발행한 교리시적과 “바른길”(1968년도 발간된 월간지)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환원의 화약이 암석 속에서 폭발한 것이다.

이 원근 전도자는 그곳에서 뛰치나와 전하영 형제 댁에서 1958년 4월 13일 첫 예배를 보게 되었다. 사방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수는 전하영 형제댁에서 다 수용할 수 없게되어 1959년 12월에 이 철선 선교사의 민환의 연보로 현재의 장소로 예배당을 짓고 이사하게 되었다.

그후 이 원근 전도자는 복음의 손가방을 들고 수원으로 떠나게 되자 먹이는 자가 없으니 어린 교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그만 이름만 남고 23명의 부녀자들이 이 원근 전도자와 같이 그저 예배당 지키는 정도로 지나다가 경기도 기흥교회에 와 있던 전하영 형제를 이 원근 전도자가 간곡히 권유해 장천 교회로 1967년 5월 1일 자로 부임시켰다. 그러나 오래동안 교역자가 없던 본 교회는 수습하기 곤란하고 특히 예배당 건물은 다 허물어져 가게 되었다. 전하영 형제는 이런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감영, 김내춘 형제들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1968년 2월 5일—9일 까지 성경 통신 교육원에서 개최한 동기 대학에서 전도자로 추천받고 현재까지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다. 현재까지 13명에게 세례를 주워 그리스도인을 만들었고 청소년 약 50명에게 성경 통신 교육원 학생으로 입학시켜 공부시키고 있다.

16. 공항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공항동36)



(석 태 정)

1962년 봄 선교사 파수리씨와 강신택씨에 의해 시작됐다. 처음은 강신택씨의 친분있는 가족을 통해 가정방에서 집회를 갖었는데 몇몇 교파교회의 세력과 맞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하듯 많은 고충을 느꼈다. 더구나 미국 군인의 주둔지인 관계로 윤리적 타락상태, 이에 따른 주민에게의 영향력은 전도에 많은 방해의 돌이 되곤하였다. 주일학교는 (석 태 정) 최초로 김동성 (사회사업 분야투신)씨와 송효실(자유중국거주)양에 의해 시작됐으며 많이 모일때는 100명 이상이 었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는 파수리형제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졌으며 건물은 공항동교회의 교인들의 헌금과 모자라는 태반을 미국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다. 건물이 세워지기전 최초의 한국인 전도자로서는 안정수씨가 야간근무로 가정을 부양하면서 교회를 돌보는데 불과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더구나 선교사의 건립은 심하여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났고 이 영향은 교회일원에게는 물론 교회밖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곤하여 전도자로서 일함에 좋지 않은 환경조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병행하여 선교사에게 지나친 의뢰심을 갖어 건축은 전부를 선교사에게 미루다시피 되었다. 이리하여 교회건물을 세우기위해 모금을 할 때에는 의견충돌을 빚어냈고 교인들의 사회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 배척심이 일어남과 동시에 떨어져 나가고 말았으니 이것은 공항동교회 발전에 두고두고 섭섭한 일이다.

안정수씨는 교인들을 규합하여 건물을 세우지 못한 채 전도자의 지리물 내어 놓을 뿐 아니라 생활난을 해결키 위해 다른 직장에 투신했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멀었으니 공항동에서 복음전파 일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교회에서 유지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잃었음에도 그러히거니와 전도자로서 일하던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 된 영향에서 아리라. 물론 초대 교회일원들이 신앙상태가 빈약함을 말할 필요 있겠는가. 주민의 이동이 비교적 빈번한 곳에서는 복음화 사업이 더욱 어려움을 말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라 하는 성경을 잘모르고 교

회의 행정과 조직 기타 경험이 없었던 선교사의 비서로 일하는 석태정 전도자가 임명되었다. 석태정 전도자는 자격이라든지 소명감이라든지 따위는 아랑곳 없이 교역자가 필요함과 동시에 자신이 공항동 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일원이 되었으니 일을 해야 하겠다는 단순한 각오에서였다.

교인들에게 약속한 모자진 건축원금은 건평 二十평을 위해 해당한 액수제 1/10도 달하지 못하였다. 파수리 선교사의 미국으로부터 모금이 추진되었고 석전도자는 국내 그리스도교회들의 협조를 호소할 바 지방교회중 두곳과 서울지역에서 한 교회만기 감사하게 몇천원씩 협조해주었을 뿐이다. 석전도자는 그 당시 협조해주신 형제자매님께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한다. 1954년 4월에 착공했으나 모금이 순조롭게 되지아니 해서 계약예산금을 훨씬추일하여 지불했으나 완전한 건물을 만들지 못했으니 완



(공항동교회 교인들)

공이 지체됨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하여 마루를 놓지 못했으나 자유롭게 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가마니를 흙바닥에 깔고 예배를 들인다는 것은 외관상 좋지 못했으며 불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인은 새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주일학교도 활발히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석태정전도자가 성인예배는 물론 주일학교도 돌봐야 했었는데 교인이증가 됨과 동시에 주일학교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생겨서 주일학교는 그들에게

달길 수 있게 되었으며 후원을 필요로 할뿐인 상태에 이르렀다. 이때가 공항동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전환하여 발전을 뚜렷이 나낸때다 언급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교회 신학교 학생을 四, 五명씩 주일학교에 일하게 할 수 있었으며 앞날에 기대가 더욱 큰 청년들이 많이 교회에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1965년 하기방학 성경학교 때에는 참가자들이 거의 200명에 달했으며 성인들도 많아 증가되었다.

이런 관계로 미완성된 건물을 완전히 만들기에는 즉, 바깥벽 칠하기, 마루 놓기 등에는 외부의 협조를 또 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석전도자는 그 당시 교회건축 Loan Fund를 주관하던 최수결 형제로부터 약 80,000원을 차용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바깥벽 바르기와 마루놓는 것은 완공했다. 그러나 누구하나도 경제적 도움 없이는 담임 전도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물론 담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인지 또는 그 자신이 부적당한 사람들에게 청했기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늦은감은 있지만 참석하고 있던 교인들 중에서 교역할 수 있도록 양성하여 세우고져 여러 형제들에게 교역에 임할 수 있도록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니 김순규형제, 이성학형제 등을 들수 있다. 그리하여 석태정전도자는 1967년 봄에는 이성학형제에게 모든 교역자의 교회에서의 할 일을 이임하였으니 석태정이란 무정형 전도자는 3년간의 개척의 역사를 이성학형제에게 미룬 것이다. 이성학 형제는 년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엄죽을 보임은 적었으나 열심히 일을 하여 전임자에게 별로 불만을 주지 않았고 교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도 역시 학생이었기에 또한 다른 곳에 일을 해야 했음으로 충분한 시간여유는 역시 없었다.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전도를 위해 열심히 하였으나 교인을 증가시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님을 경험했을 뿐 낙망하고 사임했다. 전도자의 임명 받으지 六개월에 불과해서이다.

K. C. C.에 재학중이던 백중기씨가 공항동교회에 교역하기를 자위해왔다.

6개월도 못되어 백중기전도자는 교역이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교회 부흥은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어 교역자가 사임을 했다. 그후 등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하던 박재원 전도자가 담임하여 왔으나 그도 많은 문제와 교회 분단만 남기고 말았다. 이렇게 공항 교회는 파란 폭전이 많은 대표적인 교회로 많은 과제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7. 안산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5번지)

홍제동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인덕 지대가 교회를 자택 근처에 세웠으면 하던차에 이홍식 전도자와 만나 의논하여 1958년 4월에 현인덕 자택백에서 예배를 보게 된것이 그의 발족이다.

신교부의 협조를 얻어 현 위치에(홍제동 273의 41) 천막을 치고 한 인덕 자매의 열렬한 전도의 결과로 약 60여명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이홍식 전도자의 사재로

(박 병 후) 교인들과 합심해서 같이 흠뻑돌을 손수 찍고 재목을 구하여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로 여러차례 당국에 제지를 받았으나 끝까지 끌고나가 결국 대지 80여평에 전쟁 22평(예배당)을 짓고 아름다운 정경속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근 10년동안 일질 수리를 못한 낡은 예배당을 1968년 2월 부여 교회에서 이 교회로 전 입된 박병후 전도지의 수고로 흠어진 교인을 포섭하여 20 여명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 헌금 약 5 만원 들어 내부 수리를 일단 마쳤고 열심을 다하여 주일학교학생 약 90여명이 모이고 있다.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보내는 재정으로 매달 약 50불씩 보조를 받고 있다. 머지 않은 날에 그 보조도 줄어져 자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안산교회를 담임한 교역자들은 다음과 같다.

1958년 4월	창설 초대 교역자	이홍식
59년 3월	2 대	황복연, 박선흠
60년 4월	3 대	이홍식
63년 3월	4 대	김제환
63년 9월	5 대	전용진
65년 9월	6 대	신성종
68년 2월	7 대	박병후

현재 시무하고 계신 박병후 전도자는 젊은 교역자로 1965년 10월 15일 내수동 교회 집사로 재직중 동역자 전도자의 후원으로 부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했으며 생활비는 25불의 보조를 받으면서 희생적으로 봉사한바있다.

18. 의정부 그리스도의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54번지)



이념의 대결로 양단된 국토의 최북단에 위치한 교회로서 1958년 미군 불어스(Bowers)와 이철선(William A. Richardson)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언어의문제와 재정면에서 완전한 교회로서의 발족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보잘것 없다고 여겨지겠지만 끝내 소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엔 좋은 결실을

(최 일 용) 맺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Bowers 씨는 믿고 끈기 있게 Bible Class를 계속했다. 9명의 소회중으로 집회를 보아 오다가 1959년 김영화씨를 전도자로 모시게 되었으며 얼마간의 교회 신축부지도 마련하게 되어 착실히 기틀을 잡어 가는듯 했으나 김영화씨의 교역 실패로 인해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 무렵 지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수로 계시는 이철선(W. A Richardson, Jr) 선교사(당시 미군대위)께서 전용 천막을 주선하여 1960년 그가 귀국할 때까지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주민의 물이해등 여러가지 곤경으로 인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뜻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세운 교회를 행케치지는 않으셨다. 1962년 정인칠씨를 중심으로 그의 집에서 다시 Bible Class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후 1963년 이들을 도와 당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재학중인 김영일, 홍민자(K. C. C. 강사)씨씨가 주일학교를 맡아 130여명의 아동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철선 선교사는 지홍구씨의 도움을 받아 30여명의 성인을 상대로 한 알뜰한 교회의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1964년 현 교회의 위치로 이전하여 아담한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참된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항상 한국인 전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으로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강영진 (당시 K.C.C. 학생)씨를 선임했^으나 그는 교리문제로 교파교회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후 1966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출신인 최일용씨가 전임 전도자로 취임하여 1967년 4월까지 착실히 일해 왔다. 그는 지금까지 고질화된 교회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일깨워 주는데 전념했고 자립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정신적 기반을 고취시켜 주는데 교역의 주안점을 두고 소신껏 일하다가 마침내 그는 전도자로서의 자기 스스로의 “소명감”에 회의를 품어 오다가 자기는 소명의식에 철저한 사람이 아님을 자인하고 사표를 내고 말았다.

1967년 4 월 주중회씨가 후임을 맡아 소신껏 한동안 일을 잘하다가 전도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교회를 통해 (미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사기한테 속아 교회는 인근 주민에게 백안시당하게 되고 자신은 어처구니없이 물려 날수 밖에 없었다. 이걸 수습키 위해 1969년 4 월 동주금 전도자가 부임할 때까지 4 개월 동안 최일용씨의 도움을 얻어 이철선 선교사가 직접 교회일에 발 벗고 나섰다.

이철선 선교사가 지적한대로 의정부 교회의 발전에 저해된 요소라고 하면 전도자의 선택에 실패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주민과의 절연상태라고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존함으로써 생긴 부작용은 자립하는 교회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전도 외의 사업을 피할수 없고 아무리 부대(附帶)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의 참된 Image를 흐리게 하는 역효과를 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철선 가족)

19. 미암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넓은 호남 곡창지대에 복음의씨를 뿌린 사람들은 많았으나 실지로 곡식을 거둔 사람은 극히 없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원근 전도자를 통해 섭리 하시게 되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만 들고 이 마을 저 고을을 찾아 다니는 이 전도자의 전도로 이명옥 형제가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이원근전도자를 모시고 이명옥 형제백 허청간에서 1959년 4월 부터 예배를 보았으나 그때 이 원근 전도자는 서호면 장천리에 있는 장천 그리스도의 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춘동리 미암교회에 자주 와서 예배를 인도 할수가 없게 되었다. 그럴 때 마다 예배를 이명옥 형제가 인도하게 되었다.

신앙과 그리스도의 진리 면에서 얘기해 가든 이 형제는 신앙의 갈등속에서 장노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노력 하였으며 특히 세례문제로 약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 참 진리를 사도행전 19:3—5절의 말씀을 읽고 1960년 4월 4일 이원근 전도자·주례로 미암 저수지에서 침수세례로 모든 죄를 씻게 되었다.

그후 1964년 전국 교역자회가 있을때 동석기 전도자, O.P. 베어드 선교사와 여러 교역자들이 이명옥 형제를 미암 그리스도의교회 전도자로 추대하고 1964년 1월 19일 자로 자라리 교회에 정영진 목사로 부터 안수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다.

세정적 후원으로는 1964년 8월부터 동석기 전도자의 후원으로 미국 랜드락 교회로 부터 1967년 3월까지 매월 15불씩 보조를 받다가 그나마 끊어져 1년간 무보수로 교회일을 해 오다가 1968년 1월 부터 단 디트릭 <한국명저동화>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교회로 부터 48불을 매달 받고 있다.

이명옥 전도자는 1952년 4월 6일 새벽 동부전선에서 적탄에 복부를 맞아 죽음에 골짜기를 헤매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생을 얻어 참된 기독인으로 살것을 결심 하였다.

현재 광산 그리스도의 교회 문금칠 형제 외 7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최근 식, 김영길 형제가 본 교회 이명옥 전도자를 받들어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튼튼한 교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교회이다.

20. 북아현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1)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돌아왔을 때 이영진 전도자는 교회를 세우려 장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좋은 환원운동 동지도 찾고 있었다. 1962년 2월 첫 주일에 이영진 전도자의 가족과 공삼열 전도자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본교회의 시초였다. 이들이 처음 예배를 보던 장소는 이영진 전도자가 북아현동 산 1번지에 전세를 얻은 여덟평쯤

(이 영 진) 되는 조그마한 장소였다. 그러나 이 두 가족은 이 일대를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전도를 시작했다.

주위를 살펴보면 비교적 빈민굴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도 어쨌든 이웃들에게 전도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은 날마다 더욱 더 일어나기 시작하여 한 주일에도 수명색은 꼭 세례를 받게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옛방을 비좁게 만들었다. 그래서 동년 12월 경에는 교회당을 다시 옮겨 큰 예배당을 물색하였는데 북아현동 시장옆에 15평되는 방을 다시 전세로 얻어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곳도 사용하기에 편하지는 않았다. 주인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떠든다고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영진 전도자와 공삼열형제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교회는 날로 성장하여 교우들이 약 50-60명이 되었다. 여태까지 본교회의 창립시부터 본교회를 계속 인도해 오던 이영진 선생을 정식 전도자로 맞이하였다. 1963년 첫주에 이렇게 결정하고 여러 모로 분주한 이영진 씨의 격무 때문에 공삼열 형제가 부전도자의 책임을 맡고 이 교회를 육성하기 시작하여 날로 발전하였다. 다시 예배당을 옮기려 하였다. 이번에는 북아현동 시장옆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곳은 전평 20평이 되는 아층집이었다. 1964년에 공삼열 전도자는 새로운 개척지인 서대문구 성산동에서 전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임에 박봉조 전도자가 침례회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영진 전도자는 박봉조 형제를 맞아 그를 부전도자의 직무를 맡기게 되었고 자신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강의와 북아현동 선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선교에 힘을 모으게 되었다.

1965년 11월에는 다시 건물을 현재의 위치인 북아현동 합승 종점 뒷편으로 이전하였다. 이번 이전을 위해서는 이영진 전도자의 노력과 제한 미국인

전도자들의 협력이 매우 컸었다. 이번에 옮긴 건물은 가정집 23평을 사서 개조하였는데 이 내부 개조공사를 위하여 이홍식 전도자는 작업을 중지해 왔었고 온 교우들은 시간을 다 바쳐 개조공사에 협력하므로써 이제는 제법



김대식 (본문과
광경과
관계
없음)

훌륭한 예배당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북아현동 교회는 이제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소유하였는데 1966년 10월에 완전히 이 예배당을 효창동 선교부의 재단법인에 편입시켰다.

1967년 1월 15일 이영진 전도자는 공식증인 청량리 교회 전도자로 취임하였다. 북아현동에는 당시 이영진, 박봉조 양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청량리 교회에서는 그중에 한 전도자가 자기 교회에서 시무하기를 열망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학력이 높고 교역에 경험이 더 많은 이영진 전도자가 청량리 교회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본 교회는 전도자 한분을 잃게 되고 박봉조 전도자가 전임 전도자가 되어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한편 본교회는 지난 1966년 11월까지 이영진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 오다가 1967년 부터는 완전히 자립하게 되어 한국 선교에서 빠른 시일안에 자립하게 된 교회가 되었다.

지금 본교회는 적어도 1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고 출석 교인수는 50—60명이 되는데 일성과 봉사와 사랑과 협조가 잘 이루어진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의 이베지를 그리면서 말짚하고 있다. 현재 본 교회는 집사 5명과 이효열 형제를 합쳐 6명의 운영위원이 본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빠른 시일안에 현재의 위치에서 이층 건물을 지어 일층은 교육관으로 쓰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참빛 67. 4. 참조)

그후 박봉조 전도자는 교인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다른 교파 교회로 옮겨가고 최광식 전도자가 후임으로 와서 교회를 열심히 받들고 계신다.

21.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상도 1 등 753번지)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원이 효창동에서 1960년 상도동 산 47번지 소재 “소년관”이라는 임시 전세 건물로 옮기며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종교학과 교수로 계신 파스터 선교사가 종교학과 4 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김세복 형제에게 교회를 설립하여 신학생과 이웃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1960년 11월 첫 주일 학

(김 세 복) 교 강당에서 약 25명이 모여 예배를 보게 되었다. 차츰 이웃 사람들의 모임이 더 해지고 주일 학생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저녁 집회시간에는 주한 미군 리차드슨 중령 우드 소령등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측면으로 상도동 교회를 도왔다. 그때 좀더 보람 있는 복음 사업을 위해 예배 진행과 설교는 김세복 형제가 하고 교육분야에서 주일학교 학생회 저녁 성경 공부시간은 김 병수형제와 이 용자 자매가 책임을 지고 일을 했으며 구호사업을 위해서는 박송갑, 임준섭 두 형제가 파스터 선교사와 같이 일하여 입체적인 교회 사업을 하였다.

그후 1961년 11월 3일 신학교가 김포 등촌동으로 대지를 확보 옮기게 됨으로 자연히 수고하던 학생 전도자들은 학교와 같이 이사하게 됨으로 상도동 교회는 전환 신학교 교수직으로 옮기고 가정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고 1961년 8월 11일 부터 신학교 신학과 제 1 회 졸업생인 백태현 형제가 무수한 고생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라는 선교정책으로 상도동 교회에 무보수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도일을 오래 계속 못하고 1962년 11월 1일부터 경기도 광주군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임 되게 되어 전환 교수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던 고길상 형제가 임시 교역자로 수고하였으나 사경상 졸업과 동시에 왜관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을 위해 내려가게 되었다. 그후 전환 교수와 하등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해 오다가 1963년 현재 건물인 약 13평의 이중 건물을 6 만원에 전세를 얻어 이사하였다.

1964년 7월 1일부터 김세복 형제가 전임 교역자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김세복 전도사가 부임한 후 활발한 전도작 시작되어 약 50명의 교인들이 정기적인 모임에 출석하고 정신 및 경제적 자립을 자향하여 성



1968년 6월 3일—6일 부흥회를 마치고 (강사 함명철 전도자)

공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내적인 힘으로 하등, 선교사 전환 교수, 박경근 박인효, 나호운, 정창천, 강재홍 등의 형제들과 최분남, 윤돌래, 이을여, 안경자, 김순월, 김병희 자매들의 희생적인 교회 봉사는 곧 모범적인 교회에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알랜 선교사의 진도와 박규현 형제의 세례로 중생된 박경근 형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모범이 되는 신앙 인물로 먼저 주의 사업을 하고 자기 일을 보는 보배스러운 상도동 교회의 청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68년 11월에 만 9년만에 하등씨의 63만원을 빌려 상도 1 등 7번지 104호에 76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앞으로 예배 보는 장소를 위시해서 교육, 도서, 사택 등의 건물을 건축할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 전도자는 1957년 12월에 심한 신병으로 고생하다가 최수연 선교사와 동춘모 형제의 사랑의 도움과 동형제 댁에서 약 4 개월간 동 형제의 치료로 급적으로 살아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재태후 다시 연세대학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연세대학 연합신학 대학원에서 학문의 터전을 닦고 있다.

성 명 : 김 세 복 생년월일 : 1939년 3월 22일생

본 적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20번지

세례받은날 : 1957년 7월 7일

세례준 사람 : 박 선 홀

교역자 부임된 날 : 1964년 7월 1일

22. 자라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무안군 안좌면 자라리)

1962년 2월 13일 정영진 전도자가 자라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였고 복음에 갈급한 자라리 농민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매번 집회때면 모이기 시작하였으되 단 몇개월이 지난 9월 16일 주일까지 16명의 세례 교인들이 생기여 활발한

(김 익 표)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1963년 적은 초가집을 사서 예배를 보다가 그것도 안돼서 179평의 대지위에 전평 40평짜리 건물을 정영진 전도자 외 수십명의 교우들이 오래토록 기도하고 연보로 약 1년후인 1964년 7월 12일에 완공을 보아 이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정영진 전도자가 목포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끔 목포에 가시게 되어서 교회가 그전 같이 자라지 못하게 되자 정전도자가 용문산 신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김익표 형제께 교회를 전임 해 줄것을 부탁하여 김익표 형제가 1965년 2월 28일에 전임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성의 사탄은 교회 내부에까지 침범해 결국 정영진 전도사가 마을 처녀와 불의에 관계를 맺었다는 누명아닌 누명을 쓰고 광주로 가시게 되니 교회는 농촌 사람들로 부터 말할수 없는 조소와 압력속에서 큰 수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김익표 전도자는 누가 무엇이라하든지 교회를 어떻게 평하든지 조용히 자기 할일과 천국의 목표와 방주인 교회를 위해 성심을 다하고 여러차례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모임에 참석하여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하나 김익표 형제의 노고를 알아주며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하나 없다. 오직 신념에서 새벽 기도회와 성경반들의 중심으로 문창준, 문기영. 형제들과 김봉임 자매등이 교회를 도운 결과로 현재 평균 70여명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으며 김전도자가 부임된 후 10명에 세례 교인을 얻었다. 젊은 교역자를 중심으로 발전할수 있는 유망한 교회이다.

성명 : 김 익 표 1937년 5월 9일생

본적 : 전남 무안군 안좌면 자라리 423

현주소 : "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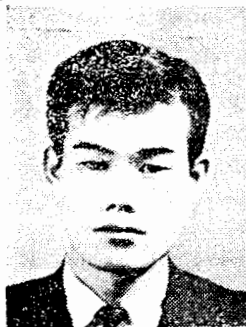
세례받은날 : 1962년 9월 16일

세례준사람 : 정 영 진

교역자로 부임된날 : 1965년 2월 23일

23. 화계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성북구 별동 177)



1962년 5월 셋째주일 그 날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다. 산과들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포근한 숨길을 동면에서 깨어난 대지위에 뿌려 주고 있었다. 특히 흙 냄새와 풀냄새로 범벅이된 봄향기는 서울의 동북교외에 자리잡고 있는 번동 주위에서 더욱 섬세하게 느낄수 있었다.

이 봄 향기와 더불어 화계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전에 소개하던 헐어버린 교파교회의 적은 방에서 안산 교회에서 수고하던 김진전 전도자가 감격어린 첫 예배를 인도했다. 특히 이곳 번동은 안산 교회의 한인덕 권사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한것이 그분의 열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 기도하던 가운데 이 일이 성취되어 처음에는 성경공부식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그때 처음 예배에 참석한 분으로서는 한권사님때 가족과 그리고 지금 화계교회의 기둥같이 쓰는 김태준 형제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었다. 그 다음 예배처소를 김귀순 자매님댁으로 옮겼다. 여기서 여러달 동안 예배를 드렸다. 모든 교인은 예배당 신축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날이 은혜중에 교회는 장성해 가는듯 했다. 이러던중 교회실립 당시부터 물심양면으로 뒷바침을 하시던 이흥식 전도자님께서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 빚을 내어서 조그마한 집을 사서 안을 헐어서 예배를 볼수 있도록 기도처를 마련해 주셨다. 이때의 화계교회인들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비록 흙벽돌에 초가집이지만 그러나 그 집은 예배당 드리도록 마련된 것이 얼마나 교인들의 마음을 흠족하게 했는지 모른다. 이 초가집 예배당 안에서 교회는 본격적으로 자라갔다. 새벽 기도도 할수 있게 되었고 주일학교도 할수 있었다. 이 작은 예배당은 수용할 수 없을만큼 꽉 찼고 믿음의 불길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뜻하였으랴 1964년 여름 극심한 장마는 전국 각지에 많은 이재민은 내게 되었다. 그 심한 장마통에 흠벽돌집인 화계 예배당은 건디지 못하고 보기 흉하게 납작하게 되었다. 처음 믿기 시작하던 교인은 물론 모든 교인이 크게 낙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상과 마귀만 섬기는 이곳 주민

들의 입에서도 좋은 말이 오르내릴리 만무하였다. 그것은 정말 가슴아픈 노릇이요 특히 그곳 교역자의 낙심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하필이면 이 어려운 교회의 예배당이 그렇게 되다니 그러나 우리의 좋은 신앙의 사표인 이홍식 전도자는 오히려 교인들을 격려했다. 「하나님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 시련으로 인해서 처음 나오던 믿을 약한 형제들은 줄어져 버렸다. 그러나 어떤이는 더 굳게 다져졌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할 티이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당장 예배 치소를 잃은 그들은 낮에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집집마다 교대로 가정예배를 보았다. 산에서 예배 볼때는 그 산이 자기네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곳이라고 거절 당하기도 했다. 교인들은 예배당 신축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하면서 기도했다. 기도의 결과로 이홍식 전도자님이 예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역사가 천천히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지금 예배당 자리인 땅은 교회의 헌금과 동석기 전도자님의 도움을 합쳐서 매입할수 있었다. 이제 교인들은 힘을 얻어서 청년 남녀없이 밤에는 남도불을 켜고 해서 밤낮 땅의 정지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홍식 전도자는 이 교회의 건립을 위해서 동분서주 수고와 기도를 애끼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교회들은 화계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기쁘게 협력하여 헌금을 하며 위하여 기도했다. 이홍식 전도자는 직접 자신의 건축 기술을 살려 몸소 고된 육체노동을 교인들과 같이 했다.

가끔 가다가는 교인들이 게으르거나 일을 잘못하면 막 꾸중을 하기 때문에 이 전도자님은 우리를 달달 묶는다고 화계교인들은 불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이 예배드릴 예배당 건축에 보여주시는 적극적인 헌신과 진실된 믿음을 보고 그를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 화계교인들은 건축중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잘 참아 갔다. 지나친 경제적 그리고 노동적인 부담을 그들은 잘 견디었다. 드디어 눈물과 땀과 기도의 보람은 열매를 맺었다. 1964년 12월에는 공사는 거의 끝났다. 그 이듬해 봄 헌당예배를 가졌다. 예배당 준공과 더불어 교회는 차차 자리가 잡히고 은혜 가운데 점점 자라갔다. 그러나 오랫동안 권사님이 계시지 않아 곤란을 받아오던중 1966월 10부터 오랫동안 청량리 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신옥녀권사님을 모심으로 더욱 더 활발한 기반으로 더욱 더 발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제 새해는 화계교회의 비약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나 그러나 이 글을 쓰는 동안 잊지 못하는 것은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한인덕 할머니의 모습이다. 그와같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할때 그의 희생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으며 그의 충성스런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지금

주님의 품속에서 누리시리라 믿으며 삼가고 한인덕 권사님의 명복을 빈다.
그분은 1966년 12월 25일 향년 71세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돌아가 셧다.
지금과 같이 화계 교회가 발전하게 된것은 그분의 힘 입은바 크다.

(참빛 67년 2월 p.36 참조)

그후는 김진전 전도자가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자 그 교회에 진
실히 참석하고 세례까지 받은 송병혁 형제에게 그후임을 맡기었다.

송병혁 전도자는 본적을 경북 안동군 남선면에 두고 1948년 3월 15일 생
으로 1967년 8월에 김진전 전도자의 세례와 추천으로 교역자가 되었다.

24. 미국인 삼각지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5의8)



(한국에 나온 미국 군인 중에 그리스도의 교인들을 위해 1961년부터 용
산구 삼각지에 한국집을 사서 정기적으로 주일 집회를 보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 군인들과 외국인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으나 진임
미국인 전도자가 없이 그냥 서로 모여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25. 방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치현부락)

방화동은 본래에,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였다. 그러던것이 1961년 서울 특별시로 가입 되면서 부터 방화동이라 불렀다.

뒤로는 한강이 흐르면서 역사에 길이 전하여오는 권틀 도원수의 비가 행주 산상에 높이 솟아 있고 앞으로는 길로 국제공항이 있으며 영등포구 화곡동, 공항동

(박 현 집) 개화동이 인접하여 있는 곳이다.

6·25사변으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있으며 그로 인한 우월한 사원들이 전설마냥 내려오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이곳을 교육정도도 비교적 낮은 곳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인지라 그로인한 미방인이 많았고 전쟁이 한겨우는 상처는 빈곤과 질병(특히 분구자)으로 대개의 주민들은 그 두지의 소산으로 미신 숭상을 그들 최고의 위로 방법으로 알고 있을 무렵 하나님께 뜻이 제서서 한 유망한 인물을 세워 주셨다. 그는 권영국이라는 신앙의 인물이 있다. 당시 장노교회에서 집사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교회는 지금도 본교회와 인접한 기독교 장노회 김포 중앙교회) 그분의 특유의 열의를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그렇지음 권 형제가 근무하는 한국전력을 통하여 우연히 전기수리를 하기 위해 등촌동 선교사택을 방문하게 되어 윌리엄 빌렘지세를 만나게 되었다. 항상 권형제는 자기 마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를 더하여 가고 있는 그마음을 위해 그는 꼭 우리 마을에다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야망을 품고 있었으며 당시 장노교회 집사였던 서의준 형제(본교회 집사) 등과같이 늘 권형제의 집 뒷동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이다. 권 형제와 빌렘지 선교사의 태연은 교회가 설수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어 이내 교회를 세울 것을 결심 1962년 2월부터 몇몇이 모여 예배를 보며 유년주일 학교를 세우자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됐고 당시 전도자나 주일 학교교사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지원해 주었고 운영비의 대부분은 빌 렘지 선교사의 피나는 노력과 교회 창설 당시 몇몇 교인들의 꾸준한 인내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수가 있었다.

그해 6월 23일드디어 첫세례자가 생기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발족 교회이름을 지칭 그리스도의 교회라 칭하고 가정에서 셋방을 얻어 이리 저리 다니

며 예배로 모였다. 처음에 부임한 전도자는 고길상 전도자였다. 그리고 고전도자 부임이전에 박길재전도자의 협력이 컸었다.

당시 K.C.C. 에 재학중인 고전도자는 이곳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일과 수요일에 말할수 없는 고생을 다하여 그특유의 신앙을 가지고 젓먹이라 볼수 있는 첫교인들에게는 큰 사명감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드디어 현위치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기초 공사를 시작 한 것이 1963년 10월 그후 고길상 전도자는 퇴임 (11월) 그다음해 1964년 2월에 김송 전도자가 부임했다.

그 공백기간은 교우들이 권 영국형제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내왔다. 김송전도자는 부임된후 계속적인 심방을 통하여 전도에 힘쓰며 전일 전도자가 시작해 놓은 예배당 건립 공사를 이어 받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임한 후로 부터 2개월후인 4월에 현 예배당 증축하기전의 예배당을 건립하였다. 그후 김전도자는 노도와 같이 일어나는 여러가지 시험을 극복하면서 심령의 부흥을 위해 특별집회를 개최하였다.

신성종, 임봉수, 전도자의 역사로 인해 교우들의 수효도 참으로 많아졌고 교회는 열띤 신앙을 얻었던 것이다. 김전도자도 역시 등촌동에 거주했었다. 그러다가 1965년 7월 약 1년 기간을 봉사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자 교회는 다시 닦을 내리게 되었다

그후 교회에 커다란 부분에서의 문제는 교리에서 오는 갈등이었다. 당시 장노교회에서 온 몇몇의교인 (당시교회의 신앙의 주축)이 장노교회에 대한 애뜻한 동경을 갖은 것이 계기가 되어 김송전도자의 퇴임으로 인해오는 교역자 부재 기간 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의 무책임한 처사(당시 빌 램지 형제 귀국)로 인해 지극히 교회의 전망이 위태 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교회의 잔판을 장노교회로 다스냐 아니던 그대로 참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를 권 영국 형제의 튼튼한 주관으로 이끌어 나오던중 1966년 3월 6일 군에서 제대한 즉시 박현섭 전도자 (당시23세)가 임했다.

당시 교회의 딱한 사정을 즉 박 전도자는 권 형제와 합의 교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교회일을 하기로 작정 3월 6일 방화등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지키게 됐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양을 이리로부터 지킬수 없을 것이며 또한 통근거리가 먼데서 교회를 섬길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사였다. 부임후 박 현섭전도자는 우선 교회의 질서와 교인들의 신앙에 집중적인 노고를 하였다. 우선 교회의 운영면에 있어서는 제직들에게 일임하고 고질적인 구태의연한 신앙에서 부터의 탈피를 위해 파감한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하였

다. 당시 그교회는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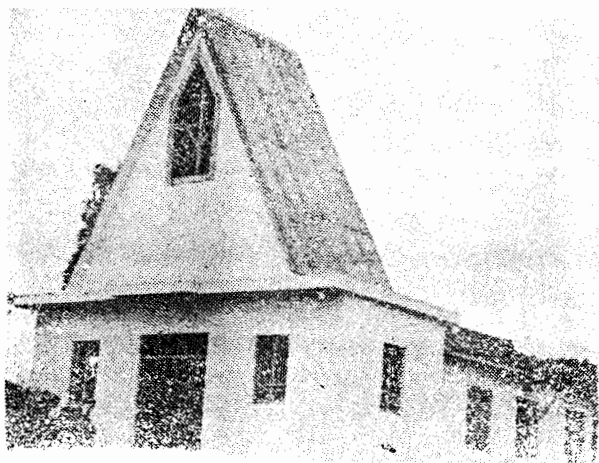
그것은 그 교회 자체 운영력의 전망이 어두웠다는 것이며 또하나의 교인들의 신앙이 교리 가운데 확고히 서지 못하였다는 점과 교회행정 또한 교회 지역사회와의 협조가 순조롭지 못하여 사회와 발을 맞추워 나가지 못하는 첫점을 발견 하였다.

이상의 문제점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권형제와 함께 온 교우들의 동조를 얻어 우선 자기교회의 기틀을 마련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종래의 시간제 전도자의 인식을 교우들에게서 없애기위해 우선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독실한 신앙인 (김명근씨 가정은 방화동 교회의 유일한 신앙가정이며 또한 박진도자의 거처를 꾸준히 제공 불편을 모르게 대접한 가정)의 가정에 하숙을 정하고 밤낮 온교우들의 생활을 관찰 또한 그들로 하여금 교역자의 심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하여 놓았다. 1966년의 전도비는 2,000원이었다 월 2,000원의 도움을 받으며 개교회 자립의 피나는 노력을 가 하였다. 그해 8월 미국에서 빌 램지 선교사가 다시 한국에 오실때는 이미 교회의 기틀이 잡히고 교인도 80명선이나 모여 급격히 비대해지는 교회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지럽게 일어났다. 2,000원 월수 생활비가 부족하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 박진도자는 과외공부를 시작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다. 저녁 12시가 넘어서 잠들면 4시가되면 새벽기도에 나가야 하는 강행군을 부단히 계속되었다.

그렇게 해서 교역자의 고난을 눈으로 본교인들은 신앙이 사람과 함께 교역자를 매우 하게되고 박진도자는 빌 램지 선교사가 다시 한국에 오던날 공항에 치정교회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끊어 버렸던 것이다. 67년도서는 3,000원 68년엔 7000원 69년엔 다른 교회 부럽지 않게 자주할수 있고 오히려 그 여유는 저축하여 그동안 예배당 건축에서 남은 부채를 청산하고 교회 종을 새우는등 경제적인 자립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온 교인들의 열렬한 노력으로 그동안 비좁은 가운데서 예배를 보면서 교회 증축을 위하여 합심기도 해오던중 드디어 착공에 드디어 훌륭한 모습의 증축된 예배당에서 준공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다. 증축을 위한 막대한 건축비가 외부의 도움이 일절 없이 온교우들의 힘만으로(단 여기에서 권 영국형제가 물심 양면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 했으며 회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임을 자랑하고 싶다) 세워졌다는점 온 교우들이 뿔뿔이 기뻐다. 교회가 경제 적으로 자립이 될때를 같이하여 교인들의 신앙이 물라보게 변화했다. 제적 약 15명의 교우들이 합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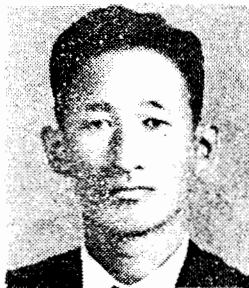
하여 고락을 함께 하였다.



(방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하여 교회의 문을 개방하여 그들과 함께 의논 하였으며 양재, 강습회 등을 통해 그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유치원을 시작하여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하나의 기회를 만드는데 성공 했으며 보건주일같은 것을 설정 보건소 진료반을 초대하여 온 동리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 종래에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에 사랑의 손길을 심었다. 이렇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아래 심은이와 물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지금은 믿음(행16:31) 소망(히 10:23-25)사랑(눅10:27)을 교회훈으로 삼고 교회 공동묘지 구입과 예배당을 더 증축하자는 목표를 70년도로 정하고 온교우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다.

26. 경기 청천 그리스도의 교회



(김 명 수)

(경기도 인천시 북구 청천동 105)

인천당애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 동기는 김 명주 형제가 부평지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것을 알고 무조건 그곳을 향해 발을 옮기었다. 성령께서는 그를 오명순 자매님을 만나게 하시며 1964년 11월 3일 오명순 자매덕에서 첫 예배를 아두런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예배를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님 집에 축복을 더하시어 장소를 크게 만드시며 발전의 길을 터 놓아 주셨다. 1965년 2월 5일 그들은 청천동 공회당을 임시 집회 장소로 잡은 것이 현재에 완전한 장소가 되었다.

매번 예배때는 그곳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배회하는 젊은 소년들이 참석하고 참 따뜻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본 김명주 형제는 교회를 하면서 급성 고등 공민학교를 1965년 3월 5일에 설립을 하고 보다 다양한 면에서 활동을 전개 하였다.

1967년 12월에 전국 교회에 성금과 알뜰, 빌 램지 두선교사와 기아산업 주식회사 사장인 김현숙 자매님은 재정적 뒷 받침으로 건평 20여평의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세례 교인 25명과 주일학교 아동 70여명과 중등부 30여명이 모여 새로 시작이된 개척 교회를 위해 힘써 모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명주 전도자는 성서적 근거 보다는 좀더 본 교회 발전을 위해 1968년 9월 8일 두분의 장노를 세워 그중 한분 최창혁 장노는 전도자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웨치게 하였다.

그러나 개운치 못한 것은 내적으로 의견 차이와 각 그리스도의 교회에 비난을 받게 된것을 매우 섭섭한 일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성격적으로 독사나 장노의 자각문제와 그 선택문제가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명주 교역자는 옳은 신앙심과 인내력과 굳은 신념은 좋은 절심을 기매하여 충성을 다 했을 뿐이다. 김 교역자의 부모는 독립 투사로 북만주 할빈에서 살고 계시다가 1921년 3월 2일 김 전도자를 낳게 되었다. 그는 1952년 6월 7일 부산 수정동에 김 광수 교역자를 만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27. 구로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2동 320)



(임 일)

구로동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인들의 신앙에서 발족을 보게 되었다.

정희전 전도자님이 담임 하고 있던 시대문 병천동산 시대문 교회는 1951년 8월에 시대문 송월동에서 시작했다가 1968년 6월 10일도 사제회에 의하여 예배당이 철거당하게 되자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구로동으로 이사하게 되자 거리 관계로 예배 참석에 매우 곤란하게 되자 구로동으로 이사한 이상순 자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정희전, 이영진, 공삼열 전도자들이 의논한 끝에 이상순, 자매댁에서 김옥자, 김원실, 김원일등 몇분이 모여 1964년 3월에 예배를 보게 된것이 구로동 교회에 첫거름이다.

고칠줄 모르는 신앙의 여인들의 갈구와 이영진 전도자의 재정적 보조와 공삼열 전도자의 봉사는 급기야 교회로서 형틀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공삼열 전도자가 북아천 교회와 두곳을 돌보는데는 너무 힘들어 여호와의 증인에서 돌아온 김우영 형제를 이영진 전도자가 재정을 돕기로 하고 동년 11월 1일에 구로동 교회로 전도자로 파송하였다. 그러나 이영진 전도자와 김우영 전도자에 의진 충돌로 김우영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그뒤를 이어 시대문 그리스도의 교회 열심있는 교인으로 봉사하던 장인식 형제가 1965년 10월에 김전도자의 후임으로 담임교역자가 되었다. 역시 이영진 전도자가 미국에 보조를 얻어 약 1만원의 생활비를 돕게 되었다. 이분 역시 부진한 전도와 개인적으로 몸이 약해 전도일을 오래 계속 못하고 전도자 일을 못하게 되었으나 장인식 전도자의 노력으로 약 25명의 배지위에 15명의 예배당 전물을 이영진 전도자의 개강직 도움으로 짓게 되었다.

그후 이영진 전도자는 새로운 전도자를 찾던중 장리교회에서 봉사하고 배학에서 교편까지 하였던 일일 형제를 만나게 되어 68년 2월에 구로동 교회에 전임을 부탁 하였다.

일일 전도자는 회개적인 인물로 개학과 주체의식을 강력히 주장하는 분으로 사회단체 및 정당에도 참여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 그후“참빛” 잡지사에도 이영진 전도자와 같이 일하게 되었다.

28. 성산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동 237의 8통 7반)

성산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짧은 기간에 아주 빨리 성장한 교회로 현재 제 2 한강교가 가까운 성산동에 위치 하면서 한강 넘어 넓은 평야를 안고 흐르는 강물과 같이 복음이 유유히 흘러 세상 바다로 나가고 있다.

넓은 평야 위에 163평의 대지에 41평에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과 11평의 사택을 갖고 매주 45명의 교인들

(공 삼 열) 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다.

이 교회가 이곳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은 공삼열 전도자의 정성 어린 노고의 땀과 피가 거름이 되었다 즉 공삼열 전도자가 성산동에 오시기까지 북아현동에서 이영진 전도자와 같이 개척교회를 1962년 1월에 시작하여 예배당까지 확보해 놓고 후임 전도자로 침례교회에서 개종한 박봉조 형제에게 맡기고 다시 공 전도자는 1963년 영등포 구로동에 개척 하여 후임 전도사로 여호와의증인에서 개종한 김우영 형제에게 맡기고 세번째로 성산동으로 그의 발걸을 옮겨 성장의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성산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1965년에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대여 위원회”로 부터 68 만원을 매월 2천원씩 갚기로 하고 차관하여 상기 주소에 163평구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역경이 따르고 실망과 낙심의 파도가 여러번 닥쳤으나 공형제와 이남식, 김태수, 이순홍, 이종권, 공정열 형제와 몇분의 교우들은 일치단결하여 자연에서 오는 악조건과 강제에서 오는 시험을 물리쳐 이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대지 위에 자체내에 건축현금 47만원으로 시작했으나 41평의 건물에는 기초와 벽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붕없이 예배를 봐 오다가 한 수 없이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17만원의 이자를 얻어 지붕을 올리며 겨우 장마비를 넘겨 3년만에 완전한 건물을 짓게 되었다. 이런 사정과 막대한 일당을 진국 그리스도의 교회 들에게 호소하여 급속한 기일에 기적적인 성금이 걷히게 되었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교우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으며 부인회 약30명 청년회 15명 학생회 30명 주일학교 70명과 집사 3명과 권사 1명 주교만사 5명 학생지도 교사 1명 등이 공삼열 전도자와 같이 주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공삼열 전도자가 교회 사업에 성공한 것은 그 분이 교역을 잘하신 탓도 있지만 부인의 역할도 무시 할 수 없다. 교역자의 부인으로 충실한 신앙의 자격으로 남편의 사업과 곤경을 한번도 실증이나 권태를 느끼지 않고 신앙적인 협력은 물론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 뒷받침을 남편대신 해가면서 남편과 교회와 자녀에 현모양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한편 감사한 것은 멀리 미국에 제신 한 중국(Mr. and Mrs. Stephen Hahn)의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적인 협력에 있다.

한형제는 각가지 노동을 하면서 까지 공 전도사의 뒤를 도와 매달 40불씩 연보를 보내와 하는 일에 더욱더 용기와 기도로 복돋아 주고 있다.



(성산동 그리스도인들)

나이 18세의 어린소년으로 군문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불행스런 계도 그만 공산군에 의해 전쟁포로가 되어 근 2년 이상을 생지옥과 같은 공산군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돌보심을 직접 체험하고 “만약 실이서 고향에만 잔디던 죽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것”을 마음에 가득 품고 몇번이고 결심하였다.

드디어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의하여 전쟁 포로 교환으로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자유 대한의 찬란한 햇빛을 보게 되었다. 그후 그는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임봉수 전도자의 영적 양식을 마음껏 먹고 부모형제를 거룩으로 상봉하고 진심한 대로 1955년 박선홍 전도자님께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영진 전도자의 주선으로 주의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현재에도 주님의 사업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단숨을 쉬는 데에 여념이 없다.

29. 왜관 그리스도의 교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11번지)



낙동강 물 줄기를 옆에 끼고 있는 산간 벽지에도 강물따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하나의 신약교회로 돌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설을 보았다.

이 왜관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길상 전도자의 숨은 공로로 시작됐다. 이 교회는 1965년 3월 15일 미 8군 캠프케톤에서 근무중이었던 칼·만시즌 대위와 스탠리 피록 병장과 일찍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려고 애써 오던 고길상 전도자와 단합하여

(고 길 상) 처음엔 조그마한 2층 건물을 빌려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인 스탠리 피록 형제는 3개월 후 복국으로 들어 가게 되고 한편 칼·만시즌 대위는 배위로 전역하여 가서 왜관교회는 재정난과 개척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고길상 전도자 혼자서 가정교사를 해 가면서 교회를 인도하여 나갔다.

이 고 전도자는 일찍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주님의 마속에 의해 수많은 인간을 주님 앞으로 인도 하시는데 수고 하시던 분이시다.

교회에 부흥에 애써 온 나머지 1965년 4월 15일 명성 고등 공민 학교가 왜관 제전 국민 운동 위원회 칠곡군 지부에 의해서 세원되었으나 자금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당치 못해 폐교 지경에 직면 있을때 인수하여 교회와 학교를 위해 헌신하게 된것이 결국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고 전도자는 왜관에 세워진 자활원을 지도하고 있으며 미 8군 교회 소속인 캠프케톤 교회 신우회의 고등으로 봉사 활동과 많은 젊은이 들을 지도 하고 계시며 주일학교 교사인 박순국 형제는 왜관 보육원을 위해 어린이의 신행에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면서 고 전도자를 한층더 도와 주고 있다.

현재에 고등공민 학교는 200여 학생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신다.

매주 한번씩 학교 예배를 인도하시며 왜관 교회에서 세례준 사람은 80명 정도이며 현재 장년 40명 주일 학교 80명 고등공민학교 200명을 위해 기도 하시며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앞으로 진진하고 계신다.

30.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대전시 선화동 96번지)



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대전에 정모씨가 경영하는 고아원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인수 받게 될 기회가 있어 그곳에 전도와 고아원 운영을 위해 한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자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모임을 갖고 울산 강남 교회에 제신 박진환 형제를 파송키로 하고 경제적 협조는 이 철선 선교사가 돕기로 했다. 그러나 부임후 얼마 안가 고아원 측

(심 회 선) 과 박진환 전도사 사이에 충돌이 생겨 박 전도사는 대전 형무소 뒤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부역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게 되니 자동적으로 대전에는 교회가 상실되고 말았다.

그후 노경의 이흥식 전도자는 꼭 대전에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불편한 물으로 대전으로 가시어 1965년 2월 셋째 주일부터 대전시 선화동 100의 5에 전세를 얻어 예배를 보았으나 예배 장소로는 너무 협소하여 다시 1965년 7월 31일 초대 선교사 이며 현재 하와이에 있는 데일리치슨 선교사와 박규현 전도자의 협조를 얻어 상기 주소에 이층 전세로 옮기었으나 예배당 하층이 술집이며 가게 들로 복잡한 곳이었다.

이흥식 전도자가 어느 정도 발전의 길을 마련해 놓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해서 서울 청량리 교회와 자택으로 오시고 서울 북아현동 교회에서 계시던 심회선 형제를 이영진, 공삼열 이흥식 전도자들의 추천으로 1965년 1월에 파송하고 이영진 전도자가 매월 5천원을 생활비로 보내 주게 되었다.

심회선 형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276에서 1935년 8월 25일 출생하여 유아때 부디 장로교회에서 자라서 이대영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각 연합 운동에 가담 하여 일해 보았으나 적지 않은 모순을 발견하고 고민 하던중 북아현동교회 공삼열 형제를 알게 되어 곧 참교회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1965년 2월 15일 이영진 전도자로 부터 효창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열심으로 북아현 교회에 참석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대전그리스

도의 교회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 심 전도자는 열심 있는 젊은 교역자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공장과 농촌 공회당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그는 산업 전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약 70명에게 진리를 가르쳐 세례를 주었다.

현재 약 60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다락방에서 보고 교회 집사로는 김태범, 서다목, 이진선, 이상만등의 형제가 돕고 있으며 주일학교 학생 약 50명이 모여 4명의 주교 선생님께서 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

31. 서대문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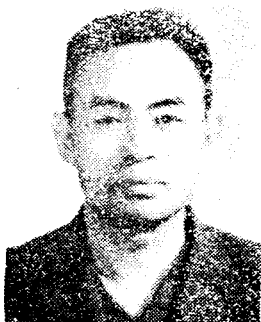
서대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가 이미 도시 계획에 의해 1968년 6월 10일 예배당이 철거 되어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교회를 설립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역력을 기우린 정희건 전도자의 노고의 결실은 오늘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정희건 전도자는 교파교회 목사들의 교권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1949년 11월 23일 한강에서 성락소 목사께

(정희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신학교에서 공부 하던중 1950년 봄부터 경기도 광주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세웠다가 동란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51년 8월 다시 서대문구 송월동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다가 57년 2월에 북악현동으로 옮기였고 58년 3월에 다시 냉천동으로 옮기여 아담하게 예배당을 짓고 발전 일로에 있을때 그만 예배당이 철거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에게서 신앙적으로 연단된 교인들은 장정옥, 이봉운 형제 덕에서 모임을 계속 갖고 있다.

정희건 전도자는 1920년 5월 1일 서대문구 홍파동 8번지에서 출생하여 기독교의 신념으로 신앙을 지켜 오면서 늘 정신 및 경제적 자립 정신으로 후에 교역자 양성과 문서전도로 그의 신앙의 정열을 기꺼히 바치고 있다.

현재 램지 선교사와 같이 “성경통신 교육”에서 전도부장의 직책으로 운집. 광산등의 교회를 설립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도우셨다.

32. 상두리 그리스도의 교회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두리 1구)

상두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성산동 그리스도의 교회 공삼열전도자가 부친상을 당해 고향인 이곳에 부친 묘를 쓰기 위하여 내려 간 것이 원인이 되어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갈구하던 때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약 10가정이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에 나갔는데 (공 정 열) 컸는데 그 거리가 멀고 교회가는 가운데 하천이 있어서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밤이던 교회 나가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많음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공삼열 전도자가 정기집회와 상의 한글학교에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로 결정 하고 조그마한 다락방으로 시작하였다.

창설된 1957년 11월 4일 이곳에 여러교인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주님께 한걸음 더 나가 가려 했으며 이들에게 정전도부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새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후에 성경 통신 교육원 직원으로 수교 하시던 이강호 형제가 약 1년 정도 주일마다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셨다. 그중에서 여러 교육원 직원과 교역자들이 다녀 가셨다 또한 1959년 3월 29일 이곳에서 정희진 전도 부장을 비롯 성경 통신 교육원에서 개최 하는 동계 대학생의 협조로 부흥회를 열어서 많은 수확을 얻은바 있다.

이곳엔 성경 통신 교육원 동계 대학 1회 동문인 이우섭 형제가 정전도부장의 권유로 지금까지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 하시고 계신다.

1969년 4월에 성산교회 공삼열 전도자님의 형님인 공정열 형제가 교회터 200평을 사서 기증하여 이곳에 교인들이 힘을 얻어 빈한한 살림살이께 쪼들리면서도 서로 정성껏 힘을 합쳐 세멘 벽돌 2000장을 찍고 교회터를 닦고 세멘트 15포까지 사놓고 나무도 여러그루 장만해 놓았으나 워낙 빈손이라서 힘에 겨워 이제는 어찌 해볼 도리없이 구제의 손이 뻗치기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만을 하고 계신다. 현재 교인수는 30명 이며 제직 5명이 교회일에 적극 협조 함으로 앞으로의 교회 부흥에 박차를 가하리라 한다. 이교회 제정은 5만원 정도이며 주일학교에 80명이 참석한다.

33. 하일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시 성동구 하일동 11통 3번)

하일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
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
스터 선교사의 고안으로 석명승, 석태정 두 형제와 같
이 상기 지역에 1968년 3월 30일 개척한 것이 교회
시작의 동기였다.

우선 모임을 위해 점포 일등을 임대하여 집회를 시
(석 명 승) 작 하였으나 나날이 주님을 찾아 오는 사람들이 많아
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것도 불편함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영진 전도자가 미국에 계신 주안의 형제들에게 호소하여 60만원
의 연보를 얻어 약 40평 대지위에 36평의 건물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 설립후 5개월만에 석태정 형제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
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떠나게 되니 석명승 전도자는 교회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석명승전도자의 굳은 인내력으로 현재까지 약 70명에게 주님의 이
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내에 봉사회를 조직하여 교회내에 봉사는 물론
교회 직원 활동과 교사와 권찰을 세웠다.



(하일동 그리스도 인들)

현용 권찰을 선출했다.

각 분과 별로 교회에 봉사하고 특히 주일학교 학생 70여명의 가르침은 봉
사회에 교사들이 담당 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 도상에있다.

다음 분들은 권찰로 교회에
서 선출된 분이다.

이현용 (남51세) 전기상 (남
50세) 이덕순 (여23세) 박
경래 (여42세) 박금선 (여
41세) 김정옥 (여41세) 강
금자 (여39세)

다음 교사로는 오익환 (남26
세) 옥선화 (여22세)로 선택
하고 교회 봉사 회장으로 이



34.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

(춘천시 약사동 1구 신흥빌딩 3층)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으로 순조롭게 확장해가고 있었으나 산 맑고 물 좋은 강원도 지방은 좀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던중 동석기 형제가 1964년도에 한국에 나와 강원도 지사 박경원형제가 미국에 있을때 (이 호 열) 그리스도인이 된분이라고 말씀하면서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는것이 좋겠다는 뜻을 말씀하자 이에 이홍식 전도자가 곧 실천에 옮기시여 1967년 4월에 춘천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다행히 강원도 지역 담당 미국 고문으로 파견 나왔던 크링형제 (Mr g Mr. Cling)가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같이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지사 박경원 형제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본래 크링부인(Cling)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 딸로서 한국당의 복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다.

활발한 교회가 발전을 보게되니 이홍식 전도자가 미처 다 못하는 일을위해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김중환 형제가 한학기 휴학을 하고 춘천교회를 돕게 되었다. 그러나 김중환 형제는 학업으로 다시 서울로 오고 대신으로 북아현 교회에 교인으로 있던 이호열 형제가 이홍식 이영진, 신성종 전도자의 권유와 추천으로 1967년 10월 1일 지로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로 부임 되었다. 이 호열 전도자는 1962년도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앙에 기쁨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1965년 9월 23일에 이영진 전도자로 부터 복음의 진리를 듣고 환원하였다.

이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온후 5개월간 “참빛” 지에 편집장및 논설위원으로 일해 문서사업 운동에 참여해 보다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힘을 보았다.

이 전도자가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 한후 크링 부부는 그의 생활비로 매달 50불씩 연보를 하며 미국 교회에서 40불을 받아 어느 정도 생활에 곤궁함은 없이 지냈다. 또 춘천교회는 박경원 강원도 지사님, 강원도 지역 평화 봉사단담당 미국 고문으로 일한 크링 부부등의 도움으로 춘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예배당이 신축을 위해 넓은 여러 평의 대지를 사게 되었으며 약 60-70명의 교인이 모이고 있으며 전도자를 도와 1명 집사님과 정인복 자매의 수고로 날로 전도 되고 있다.



35. 광산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광산부락)

이곳에는 오직 하나의 장로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이 독천에서 약 15분 도보로 나오면 광산부락이 있다. 이 부락¹ 뒷 동산에는 일정 시대 부터 광산을 했다가져 아직까지² 광산부락이라 부르고 있는데 호수는 약 200 가호가 된다. 그중에서 장로교인이 약 30호가 살고 있으

(문 금 칠) 며 나머지 170여 집은 미신에 이끌려 굿과 점장이 가정이 깃발을 흔들며 판을치고 있는게 죄악 많은 곳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금칠 전도자로 하여금 주일학병을 모가 복음을 전 하던중 1957년 1월 문금칠 씨 옷방을 빌려 쓰고 있던 문전도자는 주인의 양계를 얻어 방한칸과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이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였다. 이젠 어느 교회 못지 않게 하나님을 경배할수 있는 새 예배당에서 영광돌릴수 있는 광산 교회 교인들이다. 제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가지가 퍼지고 무성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 기도 하던중 서상준 형제가 대지 59평을 교회에 헌납 하므로 해서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경통신 교육원의 후원으로 손수 노동을 하면서 교회 건립에 나섰다. 그러나 매마른 땅에 건축 자재도 하나없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였다.

문금칠 전도자는 온갖 가산을 팔아 헌납하고 밤을세워 일을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다. 여기에 호응하여 성경 통신 교육원 빌렘지 원장님이 30,000원 화곡교회 1,500원 방화교회 1,000원 서대문 교회 1,000원 부여교회 687원 주안교회 15,000원 춘천교회에서 500원 선교사들의 특별 헌금으로 6,020원을 회사하여 큰 영향을³ 입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B. C. C. 교육보 2월 1일 참조)



그러나 아직도 빛과 수리비를 합치면 50,000 여원이 더 들어야 한다.

그는 하루에 한때를 금식 하면서 온갖 가산을 다 팔고 불철 주야 땀을 흘린 끝에 아담한 벽돌담의 성전과 문전도자를 뒷 바침 하는 교회의 기둥인 김자환, 박순애 두 집사님과 교인 60명과 주일학교 학생 130명으로 뭉쳐진 광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날로 부흥 도상에⁴ 있다.

36. 화곡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24~268)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한국농촌에 불과하였던 화곡동이 1965년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한강 이남 대 주택단지로 책정되자 일약 새로운 신흥주택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같이 급작히 발전하게 되자 화곡동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가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개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한국그리스

(기 준 서) 도의 교회 신학교에 봉직하고 있던 김창순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 형제는 화곡동 국민주택 144호를 전세내어 가정주택으로 쓰면서 예배당을 마련할 때까지 예배처소로 이용키로 작정하고 기준서형제와 교회건립을 위한 계 반계회를 번번히 작성한후 시드니 알렌 선교사와 이시우자매 그 외에 몇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1967년 1월 1일 주일밤에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수님 승천후 심령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는 백이십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은혜를 갈구하던 심령으로 첫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첫 햇불집회에는 형제 4명(김창순, 기준서, 임준섭, 임준성)과 자매 4명(김정례, 이시우, 황국희, 박은복) 그외에 선교사 4명(빌렘시 Bill Ramsey, 시드니 알린 Sidney Allen, 다윗 David Goolsby, 넬슨 Nelson)이 참석하여 우연히도 예수님 열두제자의 수와 같게 되었다.

이는 마치 청교도들이 오월화(May flower)라는 이름의 조각배를 타고 불모지의 땅 미 대륙에 들어가서 흑인과 맹수와 인디안의 위협속에 굴하지 않고 굳굳히 예배를 드리던 감격적인 그 모습과도 같았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고 모인 열두명의 개척자들은 한결같이 굳은 신념과 웅대한 계획으로 한껏 보람찬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다. 진경으로 이곳에는 말씀줄을 갈급하는 말씀중심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 오도된 신앙오선을 걷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전국 교회들의 귀감이 될만한 모범적 교회를 만들려는 투지와 의욕이 분분게 되었다.

꼭짜인 10여명의 열심있는 주축들은 임시 전도자를 안산교회에서 시무하



(하곡 그리스도의 교회)

고 있던 신성종형제를 모시고 사랑과 열심이 넘쳐흐르는 초대교회를 목표로 하여

1. 성사로 돌아가자. 2. 초대교회를 이룩하자.
3. 주 안에서 하나되자는 표어를 내걸게 되었다.

이러던중 신성종전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도자의 직분을 사임하게 되자. 1967년 3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다.

이런속에서도 교인들이 한명 두명씩 늘어나게되자 다락방으로서는 장소가 비좁아 34평짜리 이층을 전세 내어 옮기게 되었다.

7월이 되자 신성종전도자가 시무하던 안산교회를 사직하고 다시 담임교역자로 오게 되었고 반면 교회 설립에 전화자이었던 김창순 형제는 미국 에빌린 기독교 대학으로 농업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도미하게 되었다.

9월초에는 성서적인 교리를 중심한 특별집회가 알랜선교사를 도움고 있던 캠벨교회 캄스 A. 셸튼(Charls A. Shelton)전도자에 의하여 5일동안 열리었다. 이즈음하여 꾸준히 이 교회를 지원해오던 알랜선교사는 캠벨 교회의 오랜 형의글래 화곡교회 예배당을 짓는 계획이 구체화하게 되었고 대저는 학교법인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치원용지로 한지만은 965여평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회부설 유치원을 설립하여 어린 신통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통한 간접 진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드디어 온 교우들의 피땀어린 기도와 캠벨교회 교우들의 정성어린 헌금에 의하

여 예배당 건축 제 1차공사가 완공되어 100여평의 교육관이 화곡동 중심가에 우뚝서게 되었다.

1968년 1월 첫 주일에는 예배당 입주 예배를 드리고 새 건물로 옮기게 되었으니 1967년 1월 첫주일에 시작하였다. 다락방 교회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꼭 1년만에 받게 된 것이다.

3월 6일에는 75명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여 첫 개원식의 테프를 끊게 되었으며 5월 2일에는 이 교회를 도운던 알랜 선교사가 1년에정도로 그의 가족과 함께 귀국하게 되었다.

1969년 1월 27일 그동안 교회발전과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던 신성 종전도사가 미국 하딩대학원으로 선교학 연구차 도미하게 되었다.

2월 2일에는 월간 참빛에서 편집장으로 2년여 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 문서전도를 하고 있던 기준서형제를 담임 교역자로 모시는 취임 예배가 있게 되었다.

이제 젊고 유능한 새 일꾼을 맞이한 이 교회는 젊은 새 세대를 통한 선교정책을 위하여 대열을 새 정비하게 되었다.

이같이 험난한 가시밭길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는 화곡동의 지역적인 유리한 조건과 얼마든지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등을 배경으로 교회부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지금 이 교회의 목회방침은 말씀에 의거하여 (딤후 3:16) 진실하게 양떼들을 양육하여 진리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데 주력하는 반면에 대교회 지향보다는 소단위의 교회로 성도간의 순수한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교회는 기준서 담임교역자를 중심으로 권사 1명, 협동교사 1명 집사 9명, 사찰 1명, 장년 90여명, 청년 30여명, 학생 30여명, 유년주일학생 100여명, 유치원 원아 60여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표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화곡 그리스도의 교회 표어

1. 젊은 교회 <Young Church>
2. 일하는 교회 <Working Church>
3. 대화하는 교회 <Serviec Church>



37.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강원도 홍천군 서면 지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한 오봉식 형제는 깊은 신념과 교인들의 뜨거운 정성을 모아 각계 각층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아담한 교회당이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세워진 것이다. 이 새

(오 봉 식) 로운 교회당 헌당식이 1968년 6월 22일 하오 2시30분에 강원도 박경원 도지사를 비롯 성경통신 교육원 원장 빌 램지, 정희건 전도부장, 임창호 총무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강원도 유승 고문 존, 오, 크린 형제 군수, 면장, K.C.C. 이철선 학장, 그리고 각계 교역자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50명의 주민들과 함께 성대히 거행된 것이다.

이 식은 오봉식 전도자의 사회로 정희건 전도부장의 「하나님의 뜻대로」란 제목으로 모든 사람은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이자리를 빛내기 위해 강원도 지사는 “본인은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 했습니다. 오늘날 대 부분의 종교인 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내세를 맹목으로 구하는 예가 많은데 천국은 결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단지 인생의 근본적 바른 양심을 찾자 부지런하고 이웃를 사랑 할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이 있습니다.

이곳의 여러분은 따뜻하고 큰 마음으로 주어진 일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축사에 이어 강원도 고문인 존, 오, 크린, 형제는 「거룩한 가운데 이토록 훌륭한 교회당이 세워져 그리스도의 뜻이 전달됨을 감사 하게 생각하거 이곳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일할줄 아는 자비심을 간직해 달라」는 격려사가 있었고 서면 교회를 대표하여 오봉식 전도자의 헌당 선서가 있었고 춘천교회 이호열 전도가기 기도로 성대히 헌당식을 끝마치게 되었다.

한편 성경 통신교육원을 통해서 오봉식 전도자는 산간 벽지에서도 복음 소식을 기쁨으로 모든 과정을 무료로 공부하고 성경통신 교육원이 주최한 1968년 2월 제 2차 동계 대학에 참석 하시여 공부 하던 끝에 참진리를 깨닫고 동년 2월 얼음이 푹푹 얼어 붙은 얼음을 깨고 K.C.C. 여자 기숙사에서 세례를 받고 정 전도부장의 강한 설교와 추천으로 68년 3월 23일 서면 교회를 세워 전도자가 되었다.

38. 운산 그리스도의 교회



(전북 부안군 산내면 운산리)

변산 해수욕장 1킬로 떨어진 운산리 등리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 졌다.

1968년 10월 8일 부터 13일 아침까지 5일간 전북 부안군 산내면 운산리 부락 정각에서 약 120여명이 모인 성경 통신 교육원이 주회가 되어 전도 집회를 개최하여 50명의 심령들이 세례를 받으므로서 그리스도인(양 경 주) 이 되었다.

성경 통신 교육원이 68년도 하기 수양회를 변산 반도에서 가졌을때 운산리 주민으로써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20여명의 교인들이 수양회 회원들에게 생명력 있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마침내 14명이 세례를 받고 성서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여 바른 팔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

진리만을 갈구하던 그들에게 복음의 참 씨앗이 떨어지자 그중 믿음이 강했던 김판술 형제가 운산리 마을에 전도 집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성경 통신 교육원 전도부장 정희건 형제와 김송 형제 그리고 본 교육원 동계 대학을 수료한 제 1 회 동문으로 믿음이 신실한 양경주 형제가 초청되어 갔다. 5일 동안에 집회를 통해 기독교를 적대시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긍정하게 되었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신앙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서 3 일째 되던 밤에는 34명이 뜨거운 마음으로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은 저수지에서 세례를 받았고 4 일째 되던 밤 역시 15명이 세례를 받았다.

특별히 73세가 넘으신 두분의 할머니와 환갑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와 두 할머니가 평생을 통해 처음 느껴보는 기쁨으로 세례를 받는등 그 마을 유지로써 기독교인들을 제일 불신임 하던 김경채씨가 병중에 있으면서도 집회에 참석하여 세수를 받기로 했고 통일교회의 지도자 되는 분기 교인들과 빠짐없이 자리를 같이하여 마음게 감화를 받는등 집회를 이채롭게 했다.

현제 예배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70여명의 교인 들은 믿음의 지도자 양경주 형제를 모시고 초대교회를 방불케하는 예배형식으로 순회하면서 가정 제단을 쌓고 있으며 1969년 1월 26일 건축기지로 120평 헌납 받고 예배당을 신축 계획중에 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 값 원
(1930—1968)

1969년 12월 15일 인쇄

1969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이	철	선
지은이	김	세	복
발행소	참	빛	사

서울영등포우체국사서함6호

1966. 1. 17 가 제1735호 등록